송도설화

홍순모, 변희철

평양출판사
주체112(2023)

승도설화

홍순모, 변희철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차 례

홍순모편

들국화처녀 ……………………………………………………(3)

송악선녀 ……………………………………………………(18)

하가골의 초가집 ……………………………………………(37)

벽란도의 천년이 ……………………………………………(51)

범을 키우는 소년……………………………………………(64)

천냥고개 ……………………………………………………(77)

연싸움 ………………………………………………………(92)

변희철편

화담계곡에 달이 밝다 ······ (105)

파직당한 류수 ······ (125)

사신의 행차를 멈춘 별찌 ······ (132)

비취색청기와 ······ (146)

아버지가 바란 효도 ······ (171)

남행길에 비천생을 만나다 ······ (188)

홍순모편

들국화처녀

만월대에서 서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옛 고려의 궁성서문이였던 눌리문이 아직도 제모습을 다 잃지 않고 서있다.

세 나라가 통합되여 하나의 강토를 이룬 기쁨과 외래침략세력을 견지하려는 백성들의 애국충의에 떠받들려 세워진 이 눌리문에는 《들국화처녀》라고 불리운 한 애어린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천림산기슭 들국화가 류달리 많이 피여나는 서남쪽의 어느한 곳에 사냥군의 집이 있었다.

여러 색갈의 들국화들가운데서도 이 마을에는 자주빛들국화가 많이 피여나 마을이 온통 자주빛노을에 잠긴듯싶었다.

이 마을의 앞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에는 버들치며 작은 물고기들이 욱실거렸고 량옆으로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산에는 개암, 도토리, 밤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는데 머루, 다래덩굴이 나무마다에 칭칭 감겨있었다.

그 오른쪽 산기슭에 외로이 따로 떨어져있는 집에서 국화네가 살고있었다. 올해 열아홉살인 국화가 아련한 얼굴에 웃음을 지을 때에는 남들과 달리 입이 열리지 않은채로 량옆의 입귀가 살짝 벌어지고 그때 알릴듯말듯 보조개가 꽃처럼 피여나면서 입이 동그랗게 되여 가쯘한 하얀 이발이 보인다.

시원하게 빠진 몸매여서 걷는 모양도 경쾌하였다.

그는 이름이 국화여서인지 들국화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자주빛들국화를 몹시 사랑하였다.

나를 보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듯싶은 자주빛꽃들이 아마도 제

성격에 맞아서였던지, 뜨거운 해빛에도 시들지 않고 비바람도 이겨내는 억센 꽃이여서 그런 꽃이 되고싶어서였던지…

그는 옷을 입어도 자주색을 택했고 뜰안에 다른 꽃은 아니심고 봄날에 자주빛들국화를 옮겨와 꽃철이면 뜰안에 들국화향기가 가득차게 하였다.

어느날 이른새벽 그는 자주색이 아니라 남복을 차려입고 작은 밥보자기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국화야, 저녁에 늦지 말고 돌아오너라.》

문앞까지 나와 배웅해주는 어머니의 걱정어린 말이였다.

《아이참, 엄마는 또 국화…》

《참…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쇠득이…》

어머니는 촌스러운 이름이라며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국화는 지금 집에서 시오리되는 곳에 세우는 눌리문공사장으로 가는 길이였다.

국화가 제 이름을 쇠득이라고 고쳐짓고 남복을 차려입은데는 그럴 사연이 있었다.

《얘야, 어서…》

어머니가 저어주는 손길을 따라 국화는 총총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기슭을 내려 길가에까지 나와 바래주는 어머니를 다시한번 뒤돌아보고난 그는 더 빨리 걸음을 다우쳤다.

애잡짤한 마음으로 발돋움해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엔 맑은 눈물이 어려있었다.

(제 아버지처럼 몸이라도 실했으면…)

사냥군이였던 국화의 아버지는 여느때 같으면 산토끼와 꿩, 노루등을 지고왔을터인데 그날에는 다른 때와 달리 일찌감치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급히 안해를 불렀다.

《여보, 지금 장차 도읍지가 될 이곳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사람들모두가 떨쳐나섰다고하오.

그러니 어찌 나같이 끌끌한 장정이 사냥이나 하며 그걸 먼산 바라보듯 구경할수 있겠소?》

남편의 이 말에 국화의 어머니는 아무런 재간도 없는 당신을 그런

중요한 공사장에서 선뜻 받아주겠는가고 하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활을 메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 아버지는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뿔없는 사슴과 노루 한마리를 마당에 털썩 내려놓았다.

《여보, 이거면 날 받아주겠지?》

그 사슴과 노루가 눌리문공사장에 느닷없이 나타나자 일군들은 모두 쇠메며 지게, 목도채를 팽개치고 와— 모여들었다.

《이건 노루가 아냐? 챠, 이건 엄지노루!》

《이런 천치라구야, 사슴이야, 사슴! 뿔이 없다구 노루라고 하니 무겁게 올려놓고 다니는 네 머리가 거치장스럽겠구나.》

사슴을 노루라고 한 성안마을에서 온 봉국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흐아… 흐아… 웃음판이 터졌다.

이 공사를 맡은 행수석공이 일군들을 헤집고서 임자가 누군가고 두릿두릿 살펴볼 때에 한옆에 우두커니 서있던 국화의 아버지가 어줍게 나섰다.

아무 재간도 없어 받아주지 않을것같아 공사장에 이걸 《공물》하려고 가져왔다는 소리에 또다시 흐아… 흐아… 웃음보들이 흔들렸다.

행수석공은 사냥군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그 마음 갸륵하거니와 이런 나라위한 마음이 있어 눌리문은 굳건하리로다.》

사냥군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조여졌던 가슴은 확 열려오고… 사슴과 노루를 쓸어보던 행수석공이 소리쳤다.

《얘— 떡보야!》

《예잇!》

사슴을 노루라고 하였던 성안마을의 류달리 뚱뚱한 봉국이가 나섰다.

떡그릇에 달라붙으면 군말없이 스무개는 제낀 덕에 붙은 별명이였다.

《오늘은 네가 사슴을 실컷 구경하면서 이놈의 각을 떠라. 저녁에는 탁배기와 함께 배를 두드려보자.》

다음날부터 사냥군은 봉국이와 함께 목도조로 되였다.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그들은 목도로 돌을 날랐다.

돌을 캐는 곳에서부터 달구지로 실어온 화강석은 길가에 부리우게 된다.

그 길가에서 눌리문공사장까지는 400보가 실히 되는데 경사가 너무 급해 달구지가 오를수 없기때문이다. 길가에는 돌들이 가득 쌓여있어 잠시도 헛눈팔새가 없다. 눌리문앞에선 쩡― 쩡― 쇠메로 돌을 다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니 돌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날라와야 하는것이다.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어깨우에 멘 목도채를 잡고 한손에 돌을 얽어맨 바줄을 잡고서 곡조를 달아 웨쳐대는 이 소리는 송악산의 숲으로 온종일 퍼져갔다.

사냥군의 목도솜씨도 점차 익숙해져 처음에는 백근쯤 되는 돌을 바줄에 매였는데 이제는 백근이 훨씬 넘었다. 봉국이는 스물다섯살난 젊은 총각이고 몸집도 실한 장사여서 힘이 그냥 솟구쳐올랐지만 사냥군은 그렇지 못했다.

날이 감에 따라 툭― 툭― 등허리에서 느껴오는 동통을 참는다는건 그야말로 고통이였다.

세해전 화살에 맞아 자빠졌던 곰이 벼락같이 일어나 그를 들이받아 어쩔새없이 허양 공중에 날렸다가 바위에 떨어졌는데 삐죽 돋아난 바위모서리가 등허리를 때렸었다. 아물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보니 황소만한 곰이 씩씩 숨을 거두고있었다. 사냥군은 반년동안 아래목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침을 맞고 돌찜질에 약을 써 겨우 걷게 되였는데 아직까지 그럭저럭 숲을 뒤지며 사냥을 해왔다. 그러다 공사장에 나와 고된 일에 시달리게 되니 세해전의 어혈이 마지막고비에 이르렀던것이다.

《으―응!》

사냥군이 되는대로 목도채를 놓고는 쓰러졌다.

《아저씨―》

그날로 사냥군은 집으로 업혀왔다. 국화는 그때 외가집에 가고 없었다.

어느날 벽에 기대여 마당에서 꽃을 가꾸는 국화를 보던 사냥군은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남자라면 성쌓는 곳에 보내서 내가 하

지 못한 일을 대신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고 말을 되뇌이더니 그만에야 눈을 감았고 아버지의 이 말은 국화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그 유언을 지켜 남복차림을 하고 쇠득이라 이름도 고치고서 떠나는 국화의 공사장에로의 첫길로 어머니의 눈길이 따르고있었다.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는 국화의 얼굴엔 문득 밝은 웃음이 피여났다.

얼마전 눌리문공사장에서 일하겠다고 졸라대는 국화를 행수석공은 유심히 뜯어보았다.

《지금 나이가 몇이라구?》

《열아홉살이오이다.》

글쎄… 나이는 그거면 되겠지만 몸집이 왜 가냘픈가고, 아직 젖내가 나니 안되겠다며 행수석공은 손을 홰홰 저었다.

(에이, 무슨 성미가 저리도 뚝할가?)

국화는 그 다음날 찹쌀술 한동이를 들고 또 찾아갔다.

《넌 또 왜 왔느냐? 여기가 뭐 아이들이 장난질하는덴줄 아느냐?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싸움터란 말이다.》

행수석공이 고함치는 소리가 국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럼 행수님처럼 몸집이 크고 눈섭이 뻗쳐오른 사람들만 이 땅을 지키는 싸움터에 나서오이까?》

국화가 대드는통에 행수석공은 물러서면서 껄껄껄 웃었다.

이것 봐라, 말이 여물었는걸. 하지만 여기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해대는 곳이니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휘휘 돌아서갔다.

국화는 찹쌀술동이를 들고 얼른 따라가 행수석공의 앞에 놓고는 그의 옷자락을 잡아흔들었다.

《찹쌀술이오이다. 이걸 가져왔는데도 받아주지 않겠소이까?》

야무지면서도 젖은 목소리, 두눈에서 비쳐오는 간절한 기대의 빛, 반드시 그 무슨 사연이 있겠는데 그 사연이란 뭘고? 그 어떤 사연이 저렇듯 찹쌀술까지 가져오게 했을고?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사연을 가슴속에 묻어둔채 행수석공은 부드럽게 국화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어허… 누구처럼 사슴이나 노루를 가져올것이지.》

흐아… 흐아… 와하하…

그렇지만 국화의 눈은 짜릿해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사슴과 노루라는 말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사무쳤던것이다.

아니, 저 눈물은?… 얼마전 봉국이와 목도를 하던 사냥군을 못잊어하는 그 눈물일진대 그와는 어떤 사이인고? 어디 다시한번 이 총각의 마음을 흔들어보자. …

《그래, 무슨 일을 하겠느냐?》

행수석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국화가 이전에 아버지의 입에 오르군 하던 떡보의 이름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떡보와 목도를 하겠소이다.》

맞는도다. …분명히 그 사냥군의 아들이리라…

달아오른 행수석공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는 봉국이가 넓다란 가슴을 들먹이며 나섰다.

《뭐… 떡보? 요거 쪼꼬만게 오자부터 재수없이 떡보, 떡보야?》

봉국이가 눈을 흡뜨며 몸통을 씰룩거리자 국화는 흠칫 물러섰다.

흐아… 흐아…

《뭐… 쪼꼬만거?》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는 밀려나게 될거라고 여긴 국화는 팔씨름을 겨루어보자며 소매를 걷어올렸다.

《야, 이것 봐라.》

내 비록 팔목은 가늘어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고 국화가 나서자 어처구니가 없어하던 봉국이도 정 그렇다면 맞서보자며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

이런 생각속에 국화가 눌리문이 보이는 길가에 이르자 목도채와 바줄을 든 봉국이가 기다리고있었다.

《통성하자. 내 이름은 봉국이다. 넌?》

(아버지가 늘 떡보와 목도짝패라고 했는데 봉국인 또 뭐야? 국화, 봉국이, 어쩌면 《국》자가 갈구나.)

빙긋이 웃고난 국화가 제 이름은 쇠득이라고 하자 봉국이는 얼굴은 해사한게 계집애같은데 이름은 촌스럽다고 하면서도 손을 내밀었다. 우물거리다가 마주 내미는 국화의 손을 잡고는 손도 계집애처럼 작다고 이 손으로 어떻게 목도를 하겠는가고 봉국이는 두덜거렸다.

그들이 화강석 하나를 얽어매고는 《영차!》 하고 일어서는데 기

울어진 목도채가 국화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챠, 이런…》

다음엔 국화를 보고 먼저 일어서게 했건만 화강석이 땅띔을 하면서 또 목도채가 기울어져 할수없이 좀 작은걸 골라 목도채를 국화에게 절반이상 빼주고는 눌리문을 향했다.

《자, 이전엔 내 사냥군아저씨와 마음과 발을 맞추면서 일을 하였는데 어디 한번 맞춰 해보자. 발을 맞추면서 나를 따라 곡조를 불러.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숨이 하늘끝으로 헉헉 오르는데 무슨 놈의 곡조가 저럴가?)

이런 국화의 마음이였건만 봉국이는 제 혼자 타령을 잘도 엮어댔다.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이 목도로 돌나르세 눌리문을 세우세

봉국이의 청청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는지 돌이 퍼그나 가벼워진듯싶었다.

(흥! 저 계집애같은게 나하고 팔씨름을 하자구? 또 목도까지…)

봉국이의 이런 속마음을 알아차린듯 국화가 곡조를 합쳤다.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원래 상냥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또 계집애라는 말이 나올것같아 목소리를 굵게 하니 이번엔 그런 말이 없었은즉 돌을 부리고 내려올 때는 마치도 하늘의 구름우에 실려 둥둥 떠가는듯했다.

이날 저녁 일을 끝낸 봉국이가 목도군들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함께 잠을 자자고 이끌어 국화는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였다.

집에 앓아누운 어머니가 있어 저녁마다 꼭 가야 한다고 핑게를 대고는 화들짝거리는 가슴을 두손으로 꼭 누르면서 집으로 달음박질친 국화였다.

《아니, 너 왜 그리도 숨차하니? 일이 끝나고는 시오리나 되는 길을 내처 달려온게로구나. 아직 날이 어둡지도 않았는데 쉬염쉬염 올게지.》

문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이였다.

《그게 아니예요. 글쎄… 아버지와 함께 목도를 하던 그 떡보인지 봉국인지가 날 보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자고 막 잡아끄는게 아니겠나요.》

국화는 그때의 놀라움이 아직 잦아들지 않아 오르내리는 가슴을 두손으로 꽉 눌렀다.

《에그, 네가 처녀인줄 모르니까 그랬겠지. 쯧쯧…》

《정말 그렇지요.》

국화는 오늘 첫날에 있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주고 어머니는 대견한 마음으로 듣고… 광솔불도 다 사그라들어 방안이 컴컴해졌어도 국화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은 끝날줄 몰랐다.

공사장에서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봉국이는 어김없이 국화를 집근처까지 데려다주었다.

《저 캥캥거리는건 승냥이놈들의 울음소리야. 소리는 무시무시해도 사람들에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거던. 소쩍— 소쩍— 이건 밤에만 우는 소쩍새소리… 하하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아… 다 아는수가 있지. 참 쇠득아, 너 열아홉살이라고 했지. 난 스물다섯이니 넌 한참이나 아래동생이거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라. 나보다 아래인 네가 봉국이, 봉국이 하는게 딱 싫단 말이야.》

국화도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는게 편안하고 정이 든다고 환성을 올렸다.

봉국이가 무슨 계집애들처럼 정까지 들겠느냐, 그리고 쇠득이 네 체통이 작다고 누구든지 깔보면 나한테 일러바쳐라, 그 즉시에 멧다꽂겠으니 이걸 잊지 말라고 벙글거리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어느새 시오리길은 다 오고 그길로 봉국이는 되돌아섰다.

공사장에서 목도를 할 때면 봉국이의 입에선 목도타령이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시원스러우면서도 청청하여 머리우에 날던 새들도 깃을 접고 듣는듯했다. 그 타령에 국화는 힘든줄을 몰랐고 성수가 났어도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억대우같은 봉국이와 나란히 목도를 하자니 이겨내기가 헐치 않았다. 물론 목도채는 자기에게 길게 빼주었지만…

그래도 발자욱을 힘겹게 옮기던 국화는 그만에야 《아야야—》 새

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넘어졌다.

《왜 그래? 엉-》

국화를 부축하여 건너편 숲속에 들어간 봉국이가 어디 아픈가고 물으니 도무지 걷지 못하겠다고 한다.

《오- 그러니 발바닥에 물집이 가득한거로구나.》

어서 신발을 벗으라고 독촉을 몇번이나 했으나 국화는 《싫어.》 이 한마디를 뱉아놓고는 팩 돌아앉았다. 자기의 조그마한 발을 보면 처녀라는게 들킬가봐서였다.

《아, 이거 쪼끄만게 고집은 땅두께야.》

봉국이가 달려들어 신발을 벗겨보니 두발바닥이 온통 물집투성이였다. 이런 발로 용케도 견디였다고, 진작 이 형님에게 말했으면 어련하지 않았겠는가며 봉국이는 옷섶에서 바늘을 꺼내 물집들을 꿰질렀다.

따끔거리면서 아파났으나 고마움에 아픔마저 잊게 했다.

《남자라는게 바늘까지 가지고있담?》

불쑥 튀여나온 국화의 이 말에 봉국이는 얼결에 홀아비살림을 하다나니 녀자가 할것과 남자가 할것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며 벌씬거렸다.

《홀아비라면 한번 장가를 들었댔다는거나?》

《장가는 무슨 장가? 이 가난뱅이에게 어떤 처녀가 오겠대?》

호- 숨을 길게 내뿜던 국화는 바로 이 숨이 안도의 숨이라는걸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 이젠 발을 들어. 입김을 쏘여야 물집이 잦아들어.》

《망측하게시리… 싫어.》

형님앞에서 망측할건 또 뭐냐고 제가 국화의 발을 번갈아 추켜들고는 발바닥에 후후- 입김을 냅다 불어대며 설레발을 치던 봉국이의 눈이 대뜸 커졌다.

《너 혹시 계집애가 아니야? 발은 왜 이렇게 쪼끄매?》

그 말에 국화는 형님이라 해도 모르는게 많다며 몸집이 작고 약한 사람은 발도 작다고 둘러치고는 이렇게 또 물었다.

《형님, 그 목도타령 말이야. 들을수록 흥겹고 힘이 솟는데 그 타령 누가 지었어?》

《글이라는건 알지도 못하는 이 까막눈이 지었다.》

봉국이의 목소리는 서글펐으나 국화는 선망의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저 재간을 더 가꿔준다면 옛사람들 못지 않은 노래군이 될지 알게 뭐야? 가난뱅이라고 이름난 명창이 못된다는 법도 없지 않는가? 호- 내가 그걸 가꾸어줄순 없을가?)

《형님, 하나 물어보자. 형님의 꿈은 뭐야?》

꿈이야 크지, 이번 일만 끝나면 순박하고 부지런한 우리 백성들을 위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싶은데 가난뱅이 내 처지에 어디… 하며 말마디를 흐리는 봉국이의 눈가엔 서글픔이 비껴있었다.

《쇠득이, 그런데 넌?》

국화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꿈도 형님처럼 커서 언제나 형님과 함께 있으면서 형님이 품고있는 명창이 될 꿈을 가꿔주고싶다는 국화의 말에 봉국이는 너무 좋아 와락 그를 껴안으려고 했다.

《아니… 아니야, 이건 뭐야? 이러면 안돼. 비켜.》

국화가 힘껏 떠밀어서야 서운하게 밀려났으나 봉국이는 자기의 꿈을 가꿔주겠다는 국화가 기특하고 고맙기만 했다.

돌을 부려놓은 길옆에 있는 큰 개울은 폭도 넓었고 물도 깊었다. 삼복철이여선지 저녁에도 숨이 막힐것처럼 헐떡거렸고 몸을 뜨겁게 지져대는지라 하루일을 끝낸 어느날 봉국이는 집에 가야 한다면서 싫다고 하는 국화를 물을 끼얹자며 억지로 개울로 이끌었다.

개울에 이른 봉국이는 웃옷과 바지를 훌꺼덕 벗었다.

그러자 당황한 국화는 머리를 돌리고 다짜고짜 내가를 건너 달려갔다.

《어머니가 날 기다려! 난 빨리 가야 해.》

국화는 이 말을 던지고 개울에서 뛰쳐나왔다.

쿵쿵… 밖으로 튀여나올것처럼 뛰는 심장소리는 몹시도 컸다.

집에 들어서는 국화를 이상스레 살펴보던 어머니가 물었다.

《넌 오늘 웬 일이냐? 네 가슴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는것같구나.》

공사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자기를 온종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어머니에게 잠시 숨을 돌린 국화가 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어머니는 날이 어둡기만 하면 봉국이가 데려다주는걸 알면서도 모르는척하고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국화가 봉국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것을 보고 저것이 봉국이를 마음에 두고있는것이라고 윈심을 쓰고있던 어머니였다.

일판에서 쓰러진 남편을 업고온 봉국이를 미더웁게 본적이 있어 저런 사위감이면 누가 마다할소냐 하는 생각을 속에 항상 품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앞에서 봉국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화의 눈가에서는 기쁨의 빛이 반짝이군 하였다.

(내가 봉국이를 좋아한다는걸 혹시 눈치챈게 아닐가?)

아침에 집을 나올 때마다 수수범벅덩이를 잊지 않고 넣어가지고 오면 그걸 사양은커녕 한입에 하나씩 넣는걸 보면서 봉국이에 대한 알지 못할 미더움이 밀려들군 하던 국화였다.

어느날엔가는 손바닥만큼씩 빚은 조차떡을 내놓았었다.

《형님은 남들보다 몸집이 커서 배고프겠지. 첫날 떡보라고 부른걸 용서해.》

《오늘은 그 별명이 좋아. 난 아무것도 없으니 뭘 준다?》

(있지 왜 없어, 사랑을 주면 되잖아.)

국화는 제 마음속의 목소리에 소스라쳤다.

(어마나, 내가 무슨?…)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봉국이는 스무개가 넘는 찰떡을 훌떡훌떡 다 넘겼다.

(어쩌나, 이후에 난 떡을 맛도 보지 못하겠으니…)

국화의 얼굴이 익은 꽈리처럼 빨개졌다.

(내가 또 무슨?)

오래간만에 쉬는 날 국화는 봉국이와 함께 집에 들어섰다. 봉국이를 자세히 보고싶어 언제부터 한번 데려오라고 어머니가 일러두었던것이다.

《쇠득이가 왔구나. 아니… 자네 봉국이도 오구…》

마주 나오는 국화의 어머니를 얼핏 본 봉국이가 눈을 크게 흡떴다.

《엉? 사냥군아저씨네 집이구나. 그러니 넌?》

(그래서 저 어린 쇠득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기에 나왔구나. 아버지가 메던 목도채를 이어받았구나.)

뜰안에 핀 자주빛들국화를 여겨보는 봉국이에게 국화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 쇠득이가 심은거라네. 들국화중에서도 자주빛을 좋아한다네.》

국화는 어머니에게 방긋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오늘 점심은 산에서 밤청대를 한 다음 개울에서 천렵을 하자고 봉국이를 이끌었다.

《얘, 어쩌다가 왔는데 집에서 음식을 차려야지. 이 에미가 준비 다 해놨다.》

집에 폐를 끼칠게 없다며 봉국이는 어머니가 말릴새없이 국화와 집을 나섰다.

(그래, 너희들끼리 가슴에 쌓인걸 다 풀거라.)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아쉬움은 겨울날의 얼음장처럼 풀어지질 않았다.

쩍 벌어진 밤송이들이 가지가 휘도록 달려있는 앞산에 오른 국화는 긴 작대기로 밤나무를 털었다.

그리고 후둑―후둑― 우박이 내린듯한 밤송이들에 불을 지르자 탁―탁― 껍질터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했다.

《자, 이거 먹어.》

국화는 노랗게 잘 익은 따가운 군밤을 호호 불어 봉국이에게 내밀었다.

《아… 내가 해.》

《오늘은 우리 집 손님이거던. 입을 벌려. 아― 아―》

벌린 봉국이의 입으로 밤알을 쏙 넣어주며 국화는 하하하 웃어댔다.

《자, 또 한알, 아―》

…

그 이튿날부터 줄금줄금 내리던 가을비가 굵어지면서 그칠줄 몰랐고 목도군들도 할 일이 없게 되자 국화와 봉국이는 눌리문에 돌을 져나르기 시작했다. 눌리문이 한돌기, 두돌기 높이높이 올라갈수록

거기까지 돌을 날라올리는것 역시 조련치 않았다. 발을 디디라고 나무가지들을 잘라서 박아놓은것들은 비물에 젖어 미끄러운 발로 한치한치 톺아오른다는 고달픈 역사라 자칫 한발이라도 잘못 짚었다가는 아찔한 밑으로 떨어지고마는것이다.

일군들도 모두 지쳤고 여리디여린 국화는 더해 정신이 들락날락했다.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비줄기를 누비면서 목도타령이 들려왔다.

(듣고싶은 목도타령이구나. 어디서 울려올가? 응, 눌리문꼭대기로구나. 내 잔등에 돌을 져주고는 제가 먼저 올라가 돌을 부린 다음 나에게 마중오겠다고 했지. 조금만 참자, 그가 와.)

어기영싸 영싸— 치기영차 영차—
이 아니 경사로냐 눌리문이 솟는단다
구슬같은 땀방울이 억척같이 세운단다
그리운 부모처자 두렴말고 안심하소
…

(아, 청청한 저 목소리! 내 가슴에 사랑을 속삭여주는 목도타령! 이겨내자, 조금만 더 한발짝… 그래 또 한발짝… 그가 꼭 마중해.)

국화는 미끄러져내리는 발을 다잡자고 애쓰다가 그만에야 돌을 진채 모재비로 굴러내렸다.

《아—악—》

《쇠득이가 떨어졌다—》

잔등에서 돌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와— 모여들었다.

《쇠득이가… 쇠득이가 어떻게 됐다구?》

목도타령을 뚝 그친 봉국이가 부르짖었다.

《의원이 어디 있느냐?》

행수석공의 고함소리에 이어 허겁지겁 달려온 의원은 하얀 솜으로 국화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은 다음 옷단추를 벗기고 맥을 보려다가 급히 손을 빼며 머리를 숙였다.

《쇠득이는… 총각이 아니오이다.》

《뭐?》

일군들은 아연해졌다.

봉국이가 와락 달려들어 손을 잡아 흔들어대며 《쇠득아ㅡ 쇠득아ㅡ》 부르는 소리에 국화의 눈이 간신히 떠졌다.

《난… 국화예요. 저 눌리문이 끝나는 날… 자주빛적삼에 자주빛치마를 입고 어머니앞에 나란히… 함께 나란히 나서려고 했어요. 그리구… 그리구… 거기서 품고있는 노래꿈을 내가…》

《국화ㅡ》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봉국이가 몸부림쳤다.

《아!ㅡ 이놈은 못난이, 바보야. 내가 왜 국화인줄 몰랐더냐? 다심한 정과 고운 웃음을 이제 더는 바라볼수 없다는거냐? 아!ㅡ 왜 한발자국 빨리 마중하지 못했더냐! 으흑ㅡ》

꺽ㅡ 울음인지 비명인지 행수석공의 입에서 튀여나왔다.

《찹쌀술 한동이 안고 공사장에 왔을 때 내 이미 사냥군의 자식임을 알았건만 네가 꽃보다 고운 처녀인줄은 왜 몰랐더냐? 국화야, 너에게 죄를 지었다. 이놈이 지은 죄 부는 바람에 날아갈소냐, 흐르는 물에 씻기울소냐? 어… 어이구…》

일군들은 웃옷을 벗어서는 그 옷들을 합쳐 국화의 몸이 비에 젖을세라 우산처럼 펼쳐들고있었다. 설음의 눈물처럼 비는 내리고 또 내리는데…

《국화야ㅡ》

길가에 하얀 머리수건이 나타났다. 봉국이가 부축해오는 국화의 어머니였다.

국화의 얼굴에 빨간 홍조가 비끼더니 눈빛이 반짝 빛났다.

(꿈결에서 들려오나, 어머니의 저 목소리.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도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초불처럼 반짝이던 눈빛이 꺼지자 《국화야!》 피터지게 부르짖는 행수석공의 목소리가 비줄기를 헤쳤다.

봉국이가 가슴속에 품어온 보자기를 어머니가 펼치니 거기엔 국화의 옷이 정히 개여있었다.

어머니는 먼저 자주빛적삼을 입혀주듯 가슴우에 얹어주었다. 다음엔 자주빛치마를 덮어주고 자주빛머리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주었다.

봉국이는 눈물에 젖은 자주빛들국화 한송이를 국화의 가슴에 놓았다.

《국화, 어제라도 쇠득이가 아니라 국화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야속하다, 국화야ㅡ 이 슬픔을 내 어찌 이겨내라는거냐, 국화!》

부역군들의 울음소리가 터지고 그들이 흐르는 눈물이 줄줄이 국화의 몸에 내리는 속에 행수석공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국화의 몸을 어루쓸었다.

국화야 네가 가니
애통하기 그지없다
나라위한 너의 넋은
눌리문과 영원토록
자자손손 새겨지리

눌리문이 완공된 날 행수석공이며 봉국이네들은 국화의 넋이런듯 불그레한 자주빛노을속에 거연히 솟은 문을 바라보며 다시금 눈굽을 훔치였다.

아!ㅡ 들국화처녀야!

송악선녀

때는 오랑캐들의 란을 금시 치른 뒤라 봄은 봄이라도 성안과 들판도 쓸쓸하고 장거리는 더더구나 볼꼴이 없었다.

이전에는 갖가지 떡들과 음식냄새며 고기, 물고기장사군들로 붐비는데다가 오고가는 사람들이 꽉 차 한걸음을 옮기재도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다.

《땔나무 사시오, 땔나무요.》

《두눈이 새별같이 밝아지는 냉이 사세요, 냉이예요—》

《일년 내내 발이랑을 타고넘어도 끄떡없는 천이요—》

《싸구려흥정판에 내 조금 손해본들 어떠리요, 옜다, 가져가오. 열두마리 새로 낳은 돼지새끼중의 장손이요.》

여기저기서 장사군들의 목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난 짠 무우나 오가리, 콩되박이나 끼고있는 녀인들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볼뿐…

파란 머리수건을 이마에까지 내리운 명림이가 장마당에 들어서서 어디로 갈가 서성거리는데 《이것 보라구, 여기 오게나.》 하는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싸리비 몇자루를 앞에 놓고있는 로인이였다.

《장마당에 처음 나오는것같아 내가 찾았네. 여긴 오고가는 길목이고 양지여서 괜찮은 자리야.》

로인은 명림이가 이고온 함지를 내리여주고 자리를 권하다가 흠칫 놀랐다.

흰눈같이 하얀 살결에 버들잎같은 얼굴모습, 호수같이 시원한 눈매, 앵두같은 입술…

로인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장사로 끼니를 에워가는 녀인은 아니라는데서였다.

명림이는 부끄러움에 로인의 눈길을 피하며 함지에 이고온 송편과 작은 동이에 있는 술을 펴놓았다.

《할아버님 고마워요. 봄바람이 얄궂은데 이 약주나 한잔 드시

와요.》

종발로 작은 동이의 술을 퍼낸 명림이는 갸웃이 머리를 숙이였다.

(저것 봐라, 례의범절 또한 단정하고 목소리는 어이 저리도 맑은고? 시내물소리인들 저리 고울가?)

《이 술은 제가 담근 솔잎술이와요. 이 송편을 안주삼아 드시와요.》

(솔잎술에 송편이라? 송편이란 떡도 솔잎에서 쪄내여 솔향기가 풍겨나는 송도땅의 특식이거늘 이런 귀한 음식을 이런 어수선한 세월에 내오다니?)

의문은 점점 짙어갔다. 짐작해보면 나이는 열여덟아홉쯤은 되였을가? 어느 부자집 따님인듯싶은데 이런덴 어인 일로?!…

그러면서도 로인은 술종발을 입에 대고 쭉 들이켰다.

목을 간지럽히면서 넘어간 솔잎술은 가슴을 짜릿하게 해주며 배속으로 흘러들어 몸을 뜨끈하게 덥혀주더니 이어 솔향기가 입안에서 감돌았다.

《어허, 솔잎술은 우리 송도에서만 맛볼수 있는 진귀한 술이거늘 어디서 이런 술이 났는고?》

《소녀가 사는 곳은 송악산이오이다.》

《송악산? 그래, 송악산은 우리 송도의 자랑이지. 왕건대왕님의 조상 강충이란분이 송악산을 꾸렸어. 원래 그이가 송악산너머에 살고있었는데 송악산남쪽에 집을 옮기고 뒤산에 소나무를 심으면 삼한을 통일할수 있는 인물이 가문에서 나온다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즉시 그리로 집을 이사하여 소나무를 심었거던. 그 소나무들이 푸르청청 자라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가리우고 그때부터 송악산이라 부르게 되였으며 강충의 5대손인 왕건대왕이 고려를 세우고 이 땅의 임금님이 되였다네.》

송악산을 가꾸던 아버지가 자장가처럼 들려주군 하던 명림이도 이미 아는 이야기였다.

들어도 자꾸만 듣고싶은 이야기였다.

허나 지금 송악산은 벌거숭이가 되였다.

작년 겨울 북쪽오랑캐놈들이 밀려들어 만월대궁궐과 송악산을 불질러 나무들이 몽땅 불타버린 송악산엔 앙상하게 드러난 바위뿐이

니…

나무를 다시 심자면 흙을 져올리고 거름도 장만하고 하여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펼쳐야 했다.

해빛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폭설이 퍼붓는 겨울날에도 청청한 빛은 그대로 고려의 기상이였고 빛이였다.

송악산을 가꾸어야 했지만 아녀자인 제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못해낼 일이여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던 끝에 명림이는 골짜기들을 뒤지며 타다남은 소나무가지들에서 솔잎을 뜯어냈다.

이 솔잎으로 송편을 만들고 솔잎술을 담가 처음으로 장마당에 온것이다. 이 음식을 들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싶어서였다.

명림의 이야기는 로인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러면서도 의혹은 더 짙어갔다.

이 처녀가 무슨 연고로 그런 일을 생각해냈을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가? 송악산이 그처럼 아름다와 내려오고싶었던 선녀가 불타버린 송악산을 다시 꾸리자고 벌려놓은 일이 아닐가? 집도 송악산에 있다 했은즉 처녀가 혼자서 송악산에서 어떻게 살아? 선녀가 분명해…

살아가기 힘든 지금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송편과 솔잎술을 장마당에 내온다는게 선녀 아니면 누가 하랴. 송악산이 푸르러질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이 로인의 마른가슴을 푹 적셔주었다.

《여보게 동갑이, 이리 오게. 마침 아들도 있구만. 클클할텐데 이 솔잎술과 송편을 맛보게나.》

맞은켠에 앉아있던 동갑이라는 로인이 껄껄 웃었다.

《어허, 싸리비자루에 목줄을 건 막바지가난뱅이인생에 무슨 놈의 솔잎술이고 송편이야. 지난밤에 룡궁에라도 다녀왔나?》

그러건말건 로인은 가고오는 사람들을 불러댔다.

《너 이리 오너라. 황새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키꺽다리 말이다. 저기 오리발 놀리듯하는 녀인네도 오시우. 챠, 보긴? 여기 보리밥 한덩이 주고 굶을바에야 여기 와서 송편이나 몰래 잡숫고 가시우.》

명림이는 웃음이 나오는걸 겨우 참으며 연신 불러대는 로인을 존

경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보매 헌헌하고 구변좋은 익살군이였다.

《나무군총각아, 이리 오너라. 너 집에 간들 탁배기 한사발 있을소냐? 네 살아갈 길 구만리래도 이 솔잎술이 네 목구멍에 차례질것 같으냐? 허허… 저 새각시 보소. 곁눈질하다가 아예 삘리리눈이 될라. 가랑잎에 싸줄테니 랑군에게 이 고마움을 잊지나 말라고나 하소.》

《흐아— 흐아—》

저마다 터치는 웃음을 누르는 로인의 목소리는 더 커졌는데 끝이 없을상싶었다.

《송악산이 불탔는데 이런 송편은 어디서 났을가?》

《허, 솔잎술이라… 말만 들어두 취하는가보다. 솔탄내가 좀 나두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깃들어있을진대 이 귀한것이 나한테 차례지다니…》

로인은 사기가 올랐다.

《알고나 드소이다. 이 솔잎술은 은하수를 기울여 담그었고 이 송편은 백설로 빚었은즉 여기 하늘나라 선녀에게 인사들이나 하시우.》

(하늘나라 선녀라니?)

모든 눈빛들이 명림이에게 쏠리였다.

《어쩌나, 나에겐 때묻은 엽전 하나 없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콩 한주발 사지나 말걸.》

《이거참, 나무짐을 팔지도 못하고 허탕이니 맹랑하다.》

송편과 솔잎술을 앞에 놓고 어쩔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로인은 값은 후에 갚으라고 하고는 명림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구변좋은 로인이라 더 보태니 기름진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격동으로 끓게 하였다.

《로인님, 알았소이다. 우리 힘으로 송악산을 가꾸겠소이다.》

《날자를 정해주시오이다. 우리 마을 젊은이들을 휘동하겠소이다.》

《고려국의 청청한 기상이 소나무에서 뿜어나오게 하겠소이다.》

즐겁게 솔잎술을 따르면서 송편들을 권하는 그들의 말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이들이 한창 흥에 겨워있을 때 얼굴이 퉁투무레한 뚱보가 열너덧살이나 되였음직한 소년의 뒤덜미를 우악스럽게 잡고 끌고오고있었

다. 헝클어진 머리칼, 언제 한번 세면이나 했을가싶게 얼룩덜룩한 얼굴, 무릎이 드러난 바지, 눈물을 훔쳐대는 옷소매도 넝마짝마냥 너덜거렸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녀석, 잘못인줄 뻔히 알면서 일을 저지른 놈이 뭐 잘못했다구?… 가자, 이녀석!》

뒤에서는 한 로파가 허둥허둥 따라오면서 그녀석을 되우 혼내주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네 나이면 남의 집 삯일을 하든가 땔나무짐을 지든가 해야지 돈 한푼 벌어보겠다고 나온 늙은이의 록두지짐에 손을 대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 건달군, 비렁뱅이야!》

명림에게는 그 소년이 불쌍해보였다. 집도 부모도 없는 애여서 남의 집 처마밑에서나 웅크리고 잠을 자고는 배가 고프니 장마당이나 떠도는것이 분명했고 나이로 보아도 한참이나 아래인 동생벌인지라 감싸주고 보살펴주고싶었다.

명림이가 일어나 대바람에 소년의 팔을 잡아 휘두르니 손탁이 어찌나도 셌던지 뚱뚱보는 잡았던 뒤덜미를 놓쳐버렸다.

《너 어디서 나쁜짓을 배웠니? 배고프면 이 누이를 찾아올게지 늙은 할머니의 지짐을 채먹어?》

명림이의 손이 소년의 뺨을 후려쳤다.

《우린 건달군이 아니야, 비렁뱅이도 아니구.》

소년은 얼결에 뺨을 쥐고 명림이를 뻥해 바라보았다. 왜 뺨을 치느냐고 대들고싶었으나 난생처음 보는 녀자가 누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울컥울컥 치밀어올라 고맙기만 했다.

《보기 싫다. 이거나 먹어.》

남은 송편을 그채로 소년에게 넘겨준 명림이는 함지를 머리에 이고 총총히 떠나갔다. 두릿거리며 소년에게로, 뚱보에게로 번갈아 눈길을 돌리던 로인이 소년을 불러 누이가 옳은가고 물었다. 소년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다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뚱보가 거지라고 말한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는 누이가 맞느냐고 다시 물었다. 소년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다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누이라고 하며 나의 뺨을 칠 때 뺨은 얼얼했지만 가슴으로 뜨

거운것이 흘렀어요. 빰을 또 맞고싶었어요. 누이라는 그 말을 또 듣고싶어요.》

그리고는 《누나－》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토다. 분명해.》

한편 함지를 이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던 명림이가 누가 뒤에 좇아오는것같아서 아차! 돌부리에 걸린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잡고는 얼핏 돌아보니 방금 만났던 소년이였다.

(왜 따라올가? 나와 뭘 하자는걸가?)

부지런히 길을 걷던 명림이가 옆에 있는 골목으로 스며들자 소년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두리번거리였다.

(저애를 동생삼아 송악산을 가꾸면 어떨가? 서로 의지도 하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남자가 할 일을 저애가 맡아줄수 있지 않을가?)

명림이가 길 한복판에 나서서 소년을 부르니 그는 반갑게 매달리며 어디 가는줄도, 어떤 일을 하는줄도 안다면서 불쑥 물었다.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지요?》

명림이는 가쯘한 하얀 이를 내보이며 선녀라면 얼마나 고운데 나같은게 무슨 선녀인가고 웃음을 지었다.

소년은 하늘의 선녀라도 만나본것처럼 그들도 이렇듯 아름답지 못하다면서 제 나이는 열셋이고 이름은 복동이라는것과 지난해에 오랑캐놈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집도 불타버려 이렇게 고아가 되였으니 어떤 심부름이라도 다하겠다며 명림이의 손을 꼭 쥐는것이였다.

(어쩌면 내 처지와 꼭같을가? 그렇게 하자, 복동아. 우리 이렇게 손잡고 송악산을 가꾸자.)

이렇게 속마음을 다진 명림이가 네가 달라붙으면 난 어림없겠는데 빰을 맞고도 왜 가만히 있었는가고 하니 복동이는 그게 나에게 준 사랑이였다고,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고 벌씬거렸다. 주고받는 말의 끝은 어딘지…

어느새 그들은 송악산기슭의 자그마한 초가막앞에 이르렀다. 그 앞에는 넓은 밭이 펼쳐져있었는데 한뽐이 넘는 소나무싹들이 파랗게 돋아나고있었다.

3년전에 아버지와 함께 심은 세잎소나무모밭이였다. 송악산에서 소

나무를 키우며 한생을 바친 아버지는 잎이 세개씩 묶여있는 세잎소나무의 솔방울에서 씨앗을 털어내는 일에 명림이도 불러냈었다. 솔방울의 뾰족한 부리가 손을 찔러 피방울이 내돋을적에는 나이가 아직 어려 토달거렸지만 지금은 그때가 그립기만 하는 명림이였다.

아버지는 소나무 가꾸는데서 막히는데가 없어 송악산기슭을 빙 둘러 잡풀과 나무그루터기들을 뽑아내고 모래를 섞어 몇백평의 모밭을 만들고는 솔씨를 뿌리고 그 넓은 땅에 보드라운 흙을 펴놓았다.

아버지에게 점심밥을 날라다주고 얼굴의 땀을 씻어주며 잔등을 두드려주기도 하면서 명림이도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모밭에 뿌렸었다. 이 소나무씨가 움터 두세해가 지나면 옮기게 될거라며 세잎소나무는 한 열보정도 높이 자라는데 송충이도 달라붙지 못해 여섯일곱해쯤 지나면 송악산이 이런 소나무들로 울울창창해질거라던 아버지의 기쁨넘치던 눈빛을 그려보았다.

소나무모를 쓸어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명림이는 물통을 들고나섰다.

어린 나무모에 물을 주려는거라고 알아차린 복동이가 얼른 빼앗아쥐고 바지가랭이를 철철 적시며 물을 길어왔다. 포기마다 부어주기도 전에 물통을 계속 날라오는 복동이가 대견스러웠다.

명림이는 초가막으로 복동이를 불렀다. 점심때가 지난지 오랬으니 복동이가 얼마나 배고프랴싶었던것이다.

《이런 초가막에서 사는걸 보면 하늘의 선녀라는게 옳아요. 장거리의 사람들이 선녀구경을 하러 오겠대요.》

잠시후에 남자옷으로 갈아입은 명림이가 소리없이 웃는것을 본 복동이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어쩌니, 이럴수밖에 없구나. 네 이름이 복동이인즉 사람들앞에서 나를 보고 복남형이라고 해라. 선녀가 어디 갔느냐고 하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렴.》

그들은 하하, 호호 웃으며 초가막을 나섰다. 타다남은 나무등걸들과 불에 그슬린 바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산중턱너머쯤에 올라 절벽에 의지해 세워진 초가막에서 두대의 활을 내온 명림이는 이윽토록 바라보고 쓸어보다가 아버지에 대한 말을 꺼냈다.

세살적에 어머니를 잃은 명림이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다.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는 명림이를 등에 업고 송악산에 올랐다.

봄철이면 소나무를 심고 여름철이면 비바람에 꺾어질세라 버팀대를 세워주고 뿌리가 뽑힐가봐 물도랑도 째주었다. 벼랑을 톺아오르다가 굴러내리여 이마며 다리 등 온몸이 피범벅이일 때도 있었다. 명림이는 점차 커가면서 모르는것이 더 많아 온밤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곁에서 병시중을 하며 조용히 물어보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누가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숲속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왜 고생하나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송악산에 나무를 심은 강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도 몇번이나…

《명림아, 잊지 말거라. 소나무는 고려의 기상이고 빛이란다. 너와 나는 고려의 백성이구. 그러니 소나무는 너와 나의 기상이기도 하지. …》

아버지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을 싫어하였는데 그것은 잎새우를 두툼하게 덮은 눈이 가지를 부러뜨리기때문이였다. 이런 날엔 명림이도 소나무를 타고올라 잎새우의 눈을 털어주었다. 송악산에 꽉 들어찬 소나무들의 눈을 없애버리자니 그 고생인들 오죽하였으랴.

송악산의 푸른 숲은 그들이 애쓰고 바치는 노력을 보고만 있지 않고 봄철엔 고비와 고사리, 비내린 뒤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들을 안겨주었고 소낙비 오는 소리인가 하늘을 쳐다보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이고 때아닌 우박소리인가 하면 익은 밤송이가 쏟아지는 소리였다. 여기저기 바위틈사리에선 도라지꽃이 반겨주었고 머루, 다래향기는 온몸을 흠뻑 적시게 했다. 하얀 바위를 타고내리는 폭포수는 하도 맑아 몸을 잠그면 마치도 하늘의 선녀인듯싶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활을 메고 산에 올랐는데 그럴 때면 산새들은 목청을 더 높여 맞아주는듯하였고 사슴과 노루, 산짐승들은 두눈을 껌벅이며 길을 비켜 바래워주는듯싶었다.

가끔 승냥이놈들이 어슬렁거리며 저 착하고 귀한 짐승들을 해친다고 명림이에게도 활을 메워주었다. 명림이에게 활쏘는 자세와 활쏘는 법을 배워주고 익혀준 아버지는 어디 한번 시험을 쳐보자며 하늘에 빙빙 도는 수리를 가리켰다. 저놈의 수리가 송악산에서 뛰노는 산

토끼를 덮치자고 내리꽂힐테니 제각기 오른쪽, 왼쪽눈을 맞히자고 하였다. 숨쉬기를 조절하면서 활을 들어 겨냥하고있을적에 수리가 돌덩이처럼 꽂히기 시작하였다.

핑― 핑―

아버지의 화살과 파란 천이 달린 명림이의 화살이 나란히 솟구치자 수리가 날개를 접고 뚝 떨어졌다.

《허허, 이것 봐라. 파란 화살은 오른쪽눈을 맞혔는데 내 화살은 목에 박혔구나. 우리 명림이가 명궁이로다.》

명궁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자고 일부러 목을 겨냥한줄을 명림이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고려국에 란리가 터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더니 오랑캐놈들이 얼마후엔 만월대궁궐을 불질렀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두드렸다.

《어허이구, 천인공노할 변괴로다.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을 악귀들아!》

통분해 가슴을 쥐여뜯다가 세상을 하직한이들은 얼마이고 바위에 부딪쳐 피를 뿌린이들은 그 얼마였던지. …

전통에 화살을 꽉 채운 아버지가 명림을 흔들어깨우고는 이밤엔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 저도 가겠소이다.》

《안돼.》

벌컥 성을 낸 아버지가 밖으로 문을 채우고는 마당가에 내린 겨울밤의 별빛을 밟으며 집을 나섰다. 그러자 명림이도 뒤따라 활을 메고 송악산에 이르니 오랑캐놈들이 든 불뭉치들이 바다를 이루고있었다.

《저 송악산의 소나무숲은 고려국의 기상이다. 모조리 불사르라!》 악다구니를 쓰며 휘두르는 불뭉치들에 화살이 날았다.

핑― 핑―

화살마다 놈들의 목줄기를 뚫었다.

《아버지!》

《왜 왔느냐? 어서 가지 못할가?》

그러나 명림이는 아버지를 두고 떠날수 없었다.

핑― 핑― 두대의 활에서 날으는 화살은 어김없이 불뭉치를 든 놈

들을 쓰러뜨렸다. 그래도 오랑캐놈들은 악을 쓰면서 밀려들었다. 이젠 전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었다.

흉물스러운 오랑캐놈들이 눈앞에 보여와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든 아버지는 바위우에 솟구쳐올라 《오랑캐놈들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웨치며 명림이를 아래로 밀쳐버렸다.

《명림아, 송악산을 부탁한다—》

돌부리에 걸쳐 대굴대굴 굴러내린 명림이가 이윽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송악산은 룡틀임하듯 시커먼 연기를 꾸역꾸역 내뿜고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바위를 넘고넘어 옷자락을 나무그루터기에 찢기우며 이 벼랑바위에 오니 아버지가 고요히 누워있었다. …

(그래서 이 송악산을 떠나지 않고 가꾸는구나.)

복동이는 명림이에게서 그의 아버지의 체취가 슴배인 활을 넘겨받으며 명궁이 되여 송악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림의 뜻도 받아안았다.

다음날 아침 명림이가 밤새 지은 복동이의 옷을 안고 벼랑바위의 초가막에 이르러 보니 이게 웬 일인가? 초가막안에서 어린 사슴이 봄풀을 가만가만 먹고있었다. 복동이가 하는 말이 어제 밤 초가막에서 어석버석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이 어린 사슴이 와있더라는 것이였다. 달아나지도 않고 두눈이 올롱해서 쳐다보기만 하고 다리는 절룩거리길래 함께 잠을 잤다는것이였다.

볼수록 귀여워 명림이가 쓸어주니 어린 사슴은 그대로 품속에 안겨들었다.

(숲이 불타 너도 아빠, 엄마를 잃고 보금자리를 잃었구나. 가엾어라. 내 너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만들어주마. 약속하자.)

인츰 약초를 짓찧어 싸매주고는 복동이에게 새옷을 입혀보니 름름하고 의젓한 총각이였다.

눈물이 글썽한 두눈으로 한동안 바라보던 복동이가 《누님—》하며 그 자리에 꿇어앉았다.

《나를 보고 누님이라고 하니 고맙구나. 일어나거라. 재가루만 날리는 송악산에 어서 흙을 덮고 나무를 심자꾸나.》

그들은 제각기 질통을 지고 흙을 날라다가는 바위틈사리들마다 덮었다. 흰 바위우에 앉아 땀을 들이면서 쉴 때는 푸르러질 송악산

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명림이가 날마다 약초로 싸매주어 다리상처가 다 나은 어린 사슴은 흙을 나르는 그들을 온종일 따라다니기도 하고 제 혼자 골짜기에서 놀다가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초가막을 찾아왔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날 송악산에 질통을 진 행렬이 올라왔는데 구변좋은 로인과 뚱보, 키꺽다리, 오리발 놀리듯한다던 아낙네…장마당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였다.

《아이구, 록두지짐이구만. 나보다 먼저 왔는걸.》

복동이가 장마당에서 록두지짐을 챘던 날에 그의 뒤덜미를 잡아끌던 뚱보의 말이였다.

《록두지짐도 새옷을 입으니 꾀죄죄하던 꼴은 다 없어지고 미끈한 록두지짐총각이 되였는걸. 네옆의 기생오라비같은 총각은 누구냐?》

뚱보가 저보고 하는 말인줄 알아챈 명림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내 형님이예요. 그런데 이거 기분없게 말끝마다 록두지짐, 록두지짐 하면서…》

사람들이 흐아－ 흐아－ 웃어댔다.

《이놈아, 네 이름을 알게 뭐냐? 록두지짐을 채먹을 때 이름을 대줬으면 록두지짐이라고 하겠느냐, 하하하!》

뚱보의 걸죽한 말에 또 흐아－ 흐아－ 웃음이 터졌다.

뚱보는 입이 한발만큼이나 나온 복동이를 구슬렸다.

《복동이라… 네 이름이 참 좋구나. 이제부턴 록두지짐이라고 부르지 말자. 헌데 송악산에 산다고 하던 선녀는 어디 있느냐?》

복동이는 마깝지 않게 바라보다가 하늘을 가리켰다.

《뭐… 하늘로 올라갔다구? 선녀를 만나보는가 했는데 오늘 운수가 나쁜걸.》

로인이 아쉬운 마음을 누르며 어서 일들이나 하자고 서둘러대자 그들은 흙을 이고 지고 구뎅이를 메꾸고 바위짬에 틀어박았다.

성수가 나서 하는지라 일자리가 푹푹 나서 하루일이 끝나 헤여질무렵에 명림이와 복동이가 송편이 담긴 함지와 솔잎술이 담긴 동이를 안고왔다.

《아니?! 이건?…》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이제 방금 우리 누이가 하늘에서 둥둥 바줄로 내려보냈다는 복동이의 말에 야, 록두지짐아, 바줄을 그냥 보낼건 뭐냐, 내가 매달려서 올라갈걸 하며 뚱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를 보고 록두지짐이라 놀려대는 뚱보라는걸 알면 누이는 중천에서 바줄을 끊어버릴거라고, 그러면 수수대에 찔리우는 신세가 될거라는 복동이의 말이 그럴듯해 흐아— 흐아— 또다시 웃음집이 흔들렸다.

래일부터는 우리 누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몫을 따로따로 골라 내려보낸다고 하자 그럼 제몫이 꼴찌일거라면서 오리발 걷듯하는 아낙네가 아부재기를 쳤다.

《그러면 오리발을 되우 재게 놀리면 되지 않나.》

구변좋은 로인의 참견에 웃음은 그칠줄 몰랐다.

로동은 기쁨이고 웃음이라고 이런 기쁨, 이런 웃음속에서 세잎소나무모를 옮길 날은 어느덧 다가왔다.

복동이가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송악산을 가꾸는 행수격이여서 그앞에서는 누구든 쩔쩔매며 《예, 예, 알았소이다. 그렇게 하겠소이다.》 했지만 유독 뚱보만이 불평질로 엇서나갔다.

《뚱보형님, 내가 모를 줄 때는 제발 첫애기 받듯 조심하라요.》

《야, 이 록두지짐아, 그래 네가 첫애기 나오는걸 봤다더냐?》

《나무심을 구뎅이를 더 넓게, 더 깊이 파야겠어요. 퇴짜예요.》

《뭐라구? 나무모라는게 세뽐이나 될가말가하고 뿌리라는게 할아버지수염발만큼도 채 안되겠는데 무슨 놈의 구뎅이를 이보다 크게 파라는거냐?》

《이 구뎅이에 짐승들의 썩은 배설물을 깔고 보드라운 흙을 펴야하거든요. 알겠어요, 뚱보형님?》

뚱보는 머리는 끄덕이면서도 저 쪼꼬만게 벌써부터 잔소리가 많으니 이담에 장가들면 새각시가 그 잔소리에 진저리를 쳐 도망칠거라고 툴툴거렸다.

《그리고 모에 흙을 덮은 다음에는 좀 잡아당겨야 해요. 그래야 뿌리가 눌리지 않고 땅속으로 깊이 내릴수 있거든요. 아— 아— 이건 뭐예요? 저 돌!》

복동이에게서 빼앗은 돌을 휙 팽개친 뚱보가 두눈을 부라렸다.

《록두지짐아, 그 잔소리가 듣기 싫다.》

그 기상이 무서우면서도 그렇지 않은척 대담하게 맞선 복동이가 래일부터는 송악산에 오지 말라고 하자 뚱보는 화를 천둥같이 냈다.

《이 버르장머리없는 록두지짐아, 네가 대체 뭐길래 나를 오라가라해? 오늘부터는 이 송악산마루에 자리를 펴고 잠잘테다. 알겠느냐? 록두지짐아!》

이럴 때면 명림이는 저 혼자 몰래 웃음을 짓군 하였다.

나무심기로 하루일이 끝나갈무렵 건너편 골짜기에서 뛰노는 사슴의 모습이 뚱보의 눈에 비쳐들었다. 명림이와 복동이가 키우는 어린 사슴이였다.

송악산에 오를 때면 언제나 메고오던 활을 벗겨든 뚱보의 가슴은 몹시도 활랑거렸다.

(이게 웬 떡이냐? 아침에 문밖에까지 따라나와 고시랑거리던 집사람의 웃음이 사슴을 데려왔더냐? 록두지짐 이놈아, 네놈의 잔소리에 뭉쳐있던 화를 저 사슴으로 풀련다. 나에게는 운수좋은 날이건만 사슴아, 너에겐 불행한 날이구나. 하지만 어찌겠니. 미안하다.)

지그시 당겼던 활줄을 놓자 핑— 화살이 날았다. 그 화살이 사슴의 목덜미를 맞혀 《야!》 하고 오르려던 환성이 《악—》 하는 경악으로 터졌다. 뒤쫓아 번개처럼 날아온 화살이 뚱보가 날린 화살을 뚝 꺾어버렸던것이다.

조마조마했던 가슴이 풀린 복동이가 뚱보에게로 싱글거리면서 다가왔다.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 내 화살을 꺾었다는거냐?》

복동이는 하늘을 가리켰다.

《뭐? 선녀가?》

선녀가 송악산에 내려보낸 사슴에게 활질을 했으니 천벌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말에 뚱보는 그런줄 몰랐다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 잘난 활재주를 가지고 쫄랑대지 말라는 복동이의 말에 그래도 송도장안에선 누구도 당하지 못할거라며 방금 떨던 기색은 아예 아닌보살했다.

그렇다면 우리 형님과 내기를 해보면 어떤가고 하니 《그 기생오래비같은 총각과? 정말? 정말?》 하고 혹해서 되뇌였다.

만약 지면 뭘 내겠다는 말에 그까짓건 래일 아무거나 정하자고

우쭐거렸다.

뚱보와 복동이의 형님이 활쏘기내기를 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다음날 나무심기쉴참에 모두 내기장에 모여들었다. 백보쯤 떨어진 골짜기엔 두개의 기둥이 세워졌고 기둥들을 련결한 줄에는 열개의 솔방울이 매달려있었다. 어깨엔 전통을 메고 활을 든 두 궁수들이 나란히 서있었다. 복동이는 어제 밤 명림에게 활쏘기내기에 나서달라고 청을 했었다.

뚱보형님이 그냥 록두지짐이라고 엇서는데 그 버릇을 뚝 떼주고 나무심기를 즐겁고 흥겹게 하려는데 있다는 복동이의 청을 명림이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복동이가 싱글거리며 물었다.

《뚱보형님, 뭘 낼수 있겠나요?》

아무거나 부르라는 말에 형님이야 이것밖에 있느냐며 복동이는 그의 사타구니를 꽉 쥐였다.

《아야야ㅡ 이 록두지짐아, 깨지겠구나. 내가 지면 그것을 어련히 내놓지 않으리.》

사람들은 흐아ㅡ 웃어댔다. 이걸 내놓으면 아주머니에게 쫓겨나지 않겠느냐는 말에 《이 록두지짐아, 무슨 말라빠진 소리를 하는거냐? 아직 내 절개는 저 바위보다 굳세다. 버르장머리없는 록두지짐아!》 하며 윽윽거렸다.

흐아ㅡ 흐아ㅡ 웃음소리가 울리는 속에 뚱보가 먼저 날리는 화살이 줄에 매달린 다섯개의 솔방울을 떨구어버렸다. 뚱보가 씩 웃음속에 그래 어떠냐는 뜻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다. 이어 연거펴 날린 명림이의 화살도 솔방울 다섯개를 다 떨구었다.

다음엔 공중에 던진 두개의 돌멩이를 맞혀 박살내는 내기라 사람들도 모두 긴장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복동이가 두개의 돌멩이를 공중에 대고 뿌리자 더 멀어지기 전에 맞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쏜 뚱보의 화살은 빈 공간을 가르면서 날아갔다. 돌들이 포물선을 긋고는 떨어질쯤에 파란 댕기가 달린 두개의 화살이 날아올라 제각기 동시에 두개의 돌멩이를 박살내고는 돌쪼각들과 함께 땅으로 곤두박혔다.

《야!》
환성이 터졌다.
《과시 명궁이로다.》
복동이가 기세등등하여 식칼을 쥐고 뚱보앞에 나섰다.
《에그나!》
새각시들이 얼굴을 돌렸다.
《야… 야… 너… 정말이냐? 우리 집사람이 알면 큰일난다, 큰일나.》
아까는 절개가 바위보다 굳세다더니 집사람은 뭔가고 을러메는 복동이앞에 뚱보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얘… 록두지짐아, 아니… 복동아, 아… 아니 행수님, 이제부턴 행수님이 하라는대로 나무를 심겠다, 제발… 제발…》
뚱보의 불쌍하고 가련한듯싶은 그 모양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장마당에서 뒤덜미를 잡았던 그에게 분풀이를 해준 명림이가 고마와 복동이는 눈인사를 보냈다.
송악산기슭의 세잎소나무모가 다 옮겨지니 벌거숭이였던 산자락들은 푸른 주단을 펼친듯했고 뜨거운 해별에 애어린 모들이 마를세라 물을 주는 명림이의 몸은 온통 땀이 흘러 물주머니였다. 물통을 들고 오를 때는 숨이 헉헉 하늘에 닿은듯… 내릴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러기를 그 몇번…
나무그루터기를 잡고 한발자국 바위를 넘어 또 한발자국 골짜기로 내려서는데 가까이에 찰랑이는 물이 보였다. 어렸을적에 이맘때면 덕수를 맞으며 목욕하던 절벽아래의 샘터였다. 산은 불탔지만 물은 옛시절의 물 그대로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어 명림이는 너럭바위에 훌훌 옷을 벗어던지고는 물속에 몸을 잠그었다. 절벽틈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잔등을 대니 물방울들이 시원하게 두드리며 흘러내렸다.
명림이는 두손을 모아 물을 담고는 앞가슴에 댔다.
뭉클하는 감각과 함께 온몸이 짜릿해 눈을 깔고 내려다보니 백설같은 하얀 살결우에 두 봉우리가 솟아있었다.
(어마나!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가느다란 실 한오리 걸려있지 않는 앞가슴이 부끄러움을 확 몰

아오는지라 명림이는 눈을 꼭 감았다. 언제… 그 언제 눈이 열리려는지…

문득 《어ㅡ 기생오라비총각ㅡ》 하며 꽉대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다음 저벅저벅 내려오는 발자국소리…

(어마나! 이건 또 무슨 벼락이야?)

명림이에겐 온몸을 들부시는 벼락소리로 들려와 후닥닥 일어나 물기를 씻을새도 없이 너럭바위우에 널려진 옷들을 다 입었을 때 물통을 든 뚱보가 어정어정 다가왔다.

《이것 봐, 기생오라비총각, 너럭바위우에 널려진 옷을 보고 함께 목욕하고싶어 내려왔는데 다했나?》

호ㅡ 긴숨이 새여나왔다.

다행이로구나, 어쩔번했담. …

물통을 쥐고 벼랑길을 톺아오르는 명림이의 잔등으로 뚱보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여보게, 내가 전번에 활쏘기에서 졌어. 바른대로 말하면 난 안돼. 어림없어. 좀 배워주지 않겠나?》

명림이에게는 물통을 쥐고 오르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온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물주는 일이 지루하지도 않았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명림의 가슴엔 근심과 걱정이 내려가지 않고 뭉쳐있었다.

(어린나무들이 뿌리뽑히지는 않을가? 사태에 파묻히지 않을가?)

비가 멎은 짬새에 숨을 할딱거리며 올라와보면 어린나무들이 더 파랗게 순을 치고 아지가 자라나 불어오는 바람결에 한들한들 춤추는 모양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랐다.

(무사했구나.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더 크게 자랐구나.)

명림은 어린나무들을 쓸어주고 안아주며 정을 담아 노래를 불러주었다.

한밤 자면 한뽐 으쓱
두밤 자면 두뽐 으쓱
잘도 잘도 어서 커서
어른나무 되여다오

밤새껏 번개치고 우뢰울고 굵은 비줄기를 퍼부은 어느날 아침에 명림이는 복동이와 서둘러 산으로 올랐다.

《복동아, 넌 건너편 산중턱의 나무들을 살펴봐라.》

《예, 알겠어요.》

어제 밤 비에 어린나무들이 걱정되여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복동이는 그곳으로 갔다.

밤새 더 청청해진 잎새들을 쓸어보면서 돌아보던 명림이의 눈이 크게 떠지면서 온몸이 굳어졌다.

커다란 바위밑으로 물곬이 패워졌는데 그 바위가 움쩍 한바퀴 구르는것이였다. 그대로 굴러내리면 밑에 펼쳐진 어린 소나무들이 짓이겨지게 되는데 바위 오른쪽으로는 바위등판이여서 구른다 해도 그쪽으로 굴러내려야 했다.

와당탕— 와당탕— 굴러내리는 바위가 그 숱한 어린 소나무들을 부러뜨리고 들부시는 환각이 머리를 쳐 언제 어디서 나무기둥을 메고왔는지, 어느새 그 기둥을 바위밑에 틀어박았는지 명림이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다.

끙— 명림이가 바위를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기둥에 조금 들렸던 바위가 제자리로 가면서 명림이를 짓눌렀다. 기둥을 벋친 어깨뼈가 부서지는듯 아팠다. 바위가 한바퀴 명림이쪽으로 굴렀다.

(안된다, 안돼—)

명림이는 휘청거리며 주춤 물러섰다가 자기쪽으로 육박해오는 바위밑에 나무기둥을 더 깊숙이 박았다. 이윽고 뿌리를 드러낸 바위가 기둥을 내리치고는 오른쪽바위등판으로 와당탕— 와당탕— 굴러내려갔다.

《아—》

명림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바위에 눌리웠던 기둥이 명림이의 어깨와 목을 후려갈겼던것이다.

《복남이가 상했다—》

구변좋은 로인과 뚱보며 사람들모두가 너도나도 모여왔다.

뒤늦게야 이 소식을 들은 복동이가 엎어지며 굴며 명림이앞에 이르러 둘쳐업고는 등판을 내려 너럭바위우에 눕혀놓았다.

조용히 눈을 감고있는 명림이를 보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복

동이가 어깨를 조심히 흔드는데 그의 입귀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렸다.

《아니… 누님이? 누님, 눈을 떠요. 나 복동이예요.》

(누님이라니?)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누님— 명림누님—》

복동이는 태를 쳤다. 벌벌 기여가 로인의 바지자락을 움켜잡고 흔들어댔다.

《할아버지, 우리 누님을 살려줘요. 우리 누님은 그렇게 많은 송편을 빚으면서도 한개도 들지 않았어요. 풀죽으로 끼니를 대면서도 밤새껏 솔잎술을 담갔어요.》

복동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뚱보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뚱보형님, 우리 누님이 활쏘기를 한건 나무심는 일을 흥겹게 하기 위한것이였어요. 그날 우리 누님은 얼마나 미안해하였는지 몰라요. 어서… 어서… 살려줘요. 예?》

아침이면 먼저 산에 올라 맞이해주고 이렇게 와주어 고맙다고, 좀 쉬면서 일을 하자고 웃음짓던 그!

일을 끝낸 저녁이면 송편과 솔잎술을 나누어주고는 정말 수고했다고 기슭까지 바래워주던 그!

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보고싶어하던 하늘의 선녀란 말인가?

《명림아!—》

구변좋은 로인도 뚱보도 굵은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쳤다.

《누나! 누나야!—》

울부짖는 복동이의 목소리를 송악산이 받아안고 내뿜었다.

이때 가까스로 뜬 명림이의 두눈이 허둥거렸다.

《어디서… 나…나를 부르는 소리일가?…》

명림이의 눈길이 로인이며 뚱보의 얼굴에 차례로 멎더니 다음엔 그의 손이 더듬거리며 복동이의 손을 잡았다.

《복동아,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니? 어서… 어서 송악산을 가꾸어야지.》

《누나! 명림누나야!》

복동이는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명림이를 잡아일으켰다.

반듯한 이마우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명림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 울창해진 소나무숲이 보고싶구나.》

명림이의 그윽한 눈빛이 싱싱하게 자라는 세잎소나무들을 하나 또 하나 더듬을 때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노란 색갈의 솔꽃가루가 송악산을 뒤덮으며 설레였다. 그 솔꽃가루속에 어린 소나무들이 우쩍우쩍 소리를 내며 거목으로 자라나 숲을 이루고 나무밑둥마다에 송이버섯, 능이버섯들이 돋아나고 바위틈새마다 도라지꽃이 곱게 피여났다.

쿵― 쿵― 찧는 폭포수가 물보라를 날리고 머루, 다래향기가 가득 넘쳐났다.

머리우에 멋진 뿔을 얹은 어제날의 어린 사슴이 노루, 산토끼, 다람이무리를 이끌고와 머리를 숙이고 명림이의 주위를 감돌고있었다.

솔꽃가루를 두손에 받아쥐고 로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연 송악의 선녀로다. 하늘에 선녀가 있다한들 우리 송악선녀에 어이 비길소냐.》

하가골의 초가집

훅— 입김으로 벽에 걸린 등잔불을 끈 길복이는 어머니옆에 나란히 누웠다.

지척을 분간할수 없이 새까매지자 담벽에 낸 들창가로 흘러든 별빛이 방안을 희미한 빛으로 채웠다.

《어머니, 옛이야기 또 하나 해주세요.》

하가골에서 울려오는 소쩍— 소쩍— 소쩍새의 울음소리.

하가골에서 내려오느라면 성안에서 고남고개로 오르는 큰길이 가로질러 뻗어갔는데 바로 그옆에 열두보가량 떨어진 너부죽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 가까이의 나지막한 집에서 사는 길복이는 아버지에게서 늘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인지 북쪽변방에 침범한 녀진오랑캐들을 쳐부시려 아버지가 싸움터에 나서면 어머니에게 졸라대며 외적치는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즐겨 들으며 자라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초기에는 우리 북쪽변강을 넘겨다보며 침범하는 녀진족들때문에 좀 애를 먹고있었다. …

그렇지만 지금 어머니는 길복이가 재촉하는 눈빛을 느끼면서도 들창가에 내려앉은 별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길복이 아버지는 어데 계실가? 지금 싸움터에 계실가, 잠자리에 드셨을가?)

어머니에겐 이밤따라 길복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상스럽게도 밀려들었다.

힘이 장사인 길복이 아버지를 두고 마을사람들은 옛적의 항우도 그한테는 안될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길복이 아버지는 선친들이 물려준 크지 않은 땅에서 오이농사와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남새들을 지게우에 얹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작은 산이 움씰거리는듯싶었다.

그러면 길복이 어머니는 그 열매남새들을 머리에 이고 성안에 들어가 팔았고 그것으로 집살림을 펴나갔다.

길복이 아버지는 농사일에 근면하면서도 짬만 있으면 하가골의 뒤산에 올라 무술을 익혔다.

하가골사람들이 거의다 그랬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무술을 닦도록 하는 뜻을 안겨주었는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달밝은 밤이면 하가골뒤산에 모여들었다.

칼쓰기, 창던지기, 활쏘기를 패를 나누어 서로 겨루었고 마을아이들은 달리기와 씨름으로 힘을 키웠다.

이즈음 오랑캐놈들이 기름진 이 땅을 노리고 때없이 침략의 발을 들이밀어 나라는 또 전란의 시기를 맞아 시달렸다.

오랑캐족속들의 침입에 하가골사람들도 전장에 나섰는데 길복이 아버지도 그중의 하나였다.

하가골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하는 속에 문기둥을 잡고 서있는 길복이 어머니에게 다정한 웃음을 보낸 길복이 아버지는 훌쩍 말에 뛰여올라 말발굽에 먼지를 뽀얗게 감아올리면서 집을 떠났다.

그때부터 두해 남짓하게 흘렀지만 그날의 모습은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졌고 그리움속에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길복이 어머니였다.

《엄마는 아버지 생각하나?》

옛이야기를 기다리는 길복의 물음에 흠칫하여 돌아누운 어머니는 길복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자기의 속마음이 어린 아들에게 들킨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넌 아버지가 보고싶지 않니?》

머리에 와닿은 손을 꼭 쥐며 길복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말을 하면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거 뭐…》

듣고보니 길복이의 말이 옳아 속이 다 짜릿해왔다.

언젠가는 애가 《야, 이거 아버지가 계시면 나하고 한번 씨름내기를 걸겠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벌씬 웃기에 새삼스레 쳐다보니 그동안 길복이도 퍽 자랐다.

그날은 마을아이들과 씨름내기를 한 뒤라 도대체 그애들은 대상이 안되니까 어방이 없는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보고싶은 마음에 그

런 말이 튀여나온것만 같았다.

그때 남편에 대한 생각이 불쑥 치밀어올라 돌아서 옷고름을 두눈에 가져갔었지.

가슴에 타는 그리움의 재를 모은다면 얼마나 될가?!…

이젠 애가 철이 다 들었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호ㅡ 숨을 내쉴적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던 길복이가 밖을 내다보며 소곤거렸다.

《어머니, 문소리가 나요.》

(이 밤중에 무슨?!)

귀를 강구었다.

《덜커덩ㅡ》

바깥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또 들려와 길복이가 급히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엄마는 무서워말고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나가볼게.》

마당에 나가 길복이가 귀를 기울이니 《끙ㅡ》 하는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분명 사람소리인데… 열가말가? 열었다가 콱 덮치면…)

온몸이 오싹해오는데 또 《끙ㅡ》 하는 신음소리가 나 더 어쩔사이가 없이 안깐힘을 쓰면서 문을 여니 쿵ㅡ 시꺼먼 형체가 마당안으로 쓰러졌다.

문에 몸을 기대고있었던 모양이였다.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 분명해요. 어디 다친것같아요.》

뒤따라 마당으로 나온 어머니도 조심조심 다가왔으나 사위가 캄캄한지라 도무지 알아볼수가 없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방에 눕혀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길복이가 쓰러져있는 사람을 안아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을 꿈쩍할수도 없어 길복이가 두손을, 어머니는 두발을 잡고 한치한치 옮기기도 하고 손을 잡아끌기도 하며 방에 눕혔다.

《어서 등잔불을 켜렴.》

방안이 어슴푸레하다가 등잔심지에 불꽃이 올라 환해지자 어머니는 《아ㅡ》 비명속에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아니?! 아버지ㅡ》

길복이는 아버지의 가슴우에 덮쳐들었다.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싸움터에 있을 그이가 이 밤중에 이런 몸으로 불쑥 나타나다니?)

얼굴을 가리웠던 두손을 내려 다시 봐도 분명 길복이 아버지였다.

눈을 꾹 감고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버지, 눈을 뜨세요. 길복이예요.》

엉- 엉- 울음을 터뜨리며 길복이가 아버지의 가슴을 두드려댔으나 아무러한 기척이 없었다.

둥글던 얼굴도 길쭉해지고 광대뼈는 툭 불거져나오고 옷자락은 볼썽없이 찢어지고 엎디여 기여온 흔적이 력력해 두무릎이 다 드러났다.

《얘, 어서 막동이 엄마를 찾아라.》

막동이 엄마란 성안에 살던 길복이 어머니가 하가골로 시집온 이태후에 역시 성안에서 이곳으로 시집온 녀인인데 이들 두 녀인은 형님, 동생 하면서 자별하게 지냈다.

길복이 어머니가 조용하고 침착하고 섬세한 내성적인편이였다면 막동이 엄마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나 난듯이 설레발을 치며 헤덤비나 손은 큰편인지라 두 녀인의 호흡은 언제나 잘 맞아돌아갔다.

길복이보다 두살아래인 막동이까지도 끈에 매놓은것처럼 《형, 형.》 하며 따라다녀서인지 두 녀인의 사이는 더 가까와졌다.

게다가 길복이와 막동이의 아버지들은 함께 전장으로 떠나 두 녀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남편들을 못내 그리워하며 성한 몸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퀴를 짓군 하는것이였다.

길복이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내려가 소랭이에 따뜻한 물을 퍼담아왔다. 땀방울에 피자욱이 엉켜붙은 얼굴을 닦아주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의 모습이 똑똑하게 안겨왔다.

장롱에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말끔히 개여놓았던 옷들을 꺼내 남편의 헌옷을 가까스로 벗기고 조심스레 이리저리 굴리면서 겨우 옷을 입혀주었을 때 마당을 콩콩 짚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형님, 이게 웬 일이요? 길복이 아버지가 왜 이런 꼴이 되였다는거요?》

막동이 엄마는 방안에 들어서자 길복이 아버지의 얼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산 사람같지 않게 죽은듯이 누워있

으니 막동이 아버지의 소식을 물을수도 없었다.

부엌의 아궁에선 벌써 황황 불이 일어 물을 끓인다, 미음을 쑨다 하며 바쁘게 돌아치던 막동이 엄마는 날이 밝아오자 성안으로 떠났다.

본가집동네에 성안에서 능하기로 소문난 의원이 살고있다면서 다녀오겠다고 하니 막동이 엄마가 더 급한듯싶었다.

길복이 아버지가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한 다음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싶었던것이다.

길복이 어머니가 미음이 담긴 숟가락을 내밀었으나 아버지가 전혀 입을 열지 못하여 길복이가 두손으로 입을 벌리고서야 한술, 두술 넘기였다.

중낮쯤이 되여서 막동이 엄마와 함께 부랴부랴 방안에 들어선 의원은 팔다리차례로 맥을 짚어본 다음 허리로 넘어갔다.

방안은 모두의 눈길들이 맥을 짚어보는 손을 따라 왔다갔다할뿐 숨소리조차 내지 않아 조용하였다.

의원이 녀인들에게 길복이 아버지의 등허리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이걸 보시우. 이게 쇠몽둥이에 맞은 자리웨다. 전장에서 입은 부상이겠는데 다행히도 뼈는 상하지 않았수다.》

그 말에 녀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전장에서 쓰러졌던 남편이 고통스러운 아픔에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끌고 이렇게 집을 찾아오느라 멀고 험한 길에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졌은즉 이제 미음을 먹이면 사흘후에 깨여날거라며 그다음부터는 온몸의 허약한 기를 추세워야 하니 소고기와 잉어 등을 구해다 먹이면 다른 변이 없어 예전처럼 될거라는 처방을 내린 다음 인삼이 들어간 약재를 주면서 사흘후에 달여먹이라는 말을 남기고 의원은 떠나갔다.

과연 사흘이 지나니 길복이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깨여나 눈길을 천천히 돌리며 쳐다보았다.

길복이와 막동이, 길복이 어머니와 막동이 엄마를…

《여보, 깨여났구려.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소?》

머리를 돌려 옷고름을 눈가에 가져가며 길복이 어머니가 묻는 소리였다.

《오ㅡ 당신이요? 아, 막동이 엄마도 있었구려.》

길복이 아버지는 두눈에 핑 눈물이 고이는걸 억지로 참자했건만 그냥 솟구쳐올랐다.

《아니?!… 눈물은 웬 눈물이오이까?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셨소이까?》

막동이 엄마도 누가 볼세라 눈가에 옷고름을 가져갔다. 아마도 어서빨리 남편의 소식을 듣고싶은 반가움의 눈물이였으리라.

(좀 참자. 아직은 안돼. 길복이 아버지의 몸이 추선 다음 자세히 들어보자.)

이날부터 약탕관에서 초약달이는 냄새가 하가골초가집을 떠날줄 몰랐고 저녁이면 길복이 아버지는 안해의 손을 꽉 잡고서 부탁하군 했다.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내 몸을 빨리 일으켜주오. 어서 전장으로 떠나야겠소. 오랑캐무리들을 복수하고야말테요.》

새벽이면 두 녀인은 밭에서 딴 오이와 참외를 머리에 무겁게 이고서 성안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그 오이, 참외들이 잉어와 소고기 같은것들이 되여 돌아왔다. 엄마들이 하가골초가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를 간호해주니 길복이는 막동이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이면 집으로 오군 하였다.

《아버지, 이건 잉어탕이예요. 오늘은 소고기를 꼭 사오겠다고 어머니가 막동이 엄마와 함께 성안에 갔어요.》

이 말을 들으니 이왕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싸움터에 다시 갈수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였건만 어쩐지 두 녀인들에게 너무한것만 같아 길복이 아버지는 눈앞이 다 뿌잇해왔다.

《자, 어서요. 이걸 다 드신 다음 오랑캐놈들을 몰아내던 이야기나 해주세요.》

막동이도 바싹 다가와 말을 이었다.

(그래, 말해주자. 싸움터에서 흘린 아버지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않도록 이애들이 아버지들의 복수를 하고 나라를 지켜가도록 다 이야기해주자.)

길복이의 아버지와 막동이의 아버지는 언제나 진의 앞장에서 오

랑캐놈들 무리속으로 질풍같이 말을 몰아갔다.

그들이 서로 《막동이 애비!》, 《형님!》 하고 찾고 부르며 해빛에 칼날을 번쩍일 때마다 오랑캐놈들의 목이 뎅겅뎅겅 날아나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막동이 아버지가 적장놈을 뒤쫓아 말을 내달릴 때에 털부숭이오랑캐놈이 뒤에 바싹 달라붙어 칼을 쭉 뽑아들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막동이 애비—》 하고 웨치면서 길복이 아버지가 말에서 획 날아올라 털부숭이놈을 덮쳐안았다. 땅바닥에 떨어져 엎치락뒤치락하던 끝에 놈을 타고앉은 길복이 아버지가 무쇠같은 주먹으로 상통을 내리치니 단 한매에 쭉 뻗고말았다.

《막동이 애비!》 하고 자기를 찾는 소리를 얼핏 듣고서 막동이 아버지가 적장놈의 목을 벤 다음 돌아서본즉 길복이 아버지가 손을 털고 일어나 껄껄 웃고있었다.

《형님—》

《막동이 애비—》

이들은 서로 끌어안았다. …

《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주어 고맙소이다.》

막동이가 구수한 냄새 풍기는 잉어탕을 입에 떠넣어주었다.

《허허… 너의 아버지는 적장놈을 죽인 용감한 장수이니라.》

장수를 잃고도 오랑캐놈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더 악착하게 덤벼들었다.

숱한 손실을 보고 물러섰다가도 수적인 우세를 믿고 놈들이 포위진을 계속 조여들어 자칫하면 우리 군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였을 때였다.

《포위진을 뚫어야 한다. 군사들! 나를 따르라.》

길복이 아버지가 앞에 나서자 그뒤로 막동이 아버지와 군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짓쳐나갔다.

산언덕에 숨어있던 놈들이 화살을 마구 날리기 시작했다. 비발치듯하는 그 화살을 칼로 쳐버리면서 선두에서 말을 몰아가는 길복이 아버지를 향해 한옆에 숨어있던 놈이 핑— 화살을 날렸다.

《형님—》

다급하게 소리치며 길복이 아버지에게로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 몸을 내댄 막동이 아버지의 잔등에서 오랑캐놈들의 화살이 푸들거리

고있었다.

막동이 아버지는 피가 질벅한 두입귀를 씰룩이며 중얼거렸다.

《형님, 무사했구려. 우리… 우리 막동이를 내대신 용감한 군사로 잘 키워주우.》

길복이 아버지는 성난 파도마냥 계속 말을 짓쳐몰았다.

오랑캐놈들의 진이 허물어질무렵 어디선가 날아온 쇠몽둥이가 잔등을 후려치는통에 《아!》 하며 몸을 비틀어대다가 그만에야 말잔등에서 떨어졌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부터 내리던 비는 그치지 않고 전장터에 쓰러진 우리 군사들의 얼굴에도 계속 휘뿌리고있었다.

《막동이 애비, 어디 있나? 어디ㅡ》

길복이 아버지는 질적한 땅에 엎디여 기여다니느라 등허리가 쑤시고 동통이 심했지만 그걸 느낄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여서야 눈을 감은채로 비내리는 하늘을 향해 펑퍼짐한 땅에 누워있는 막동이 아버지를 찾을수 있었다.

《여보게, 눈을 뜨라구. 어서 눈을 뜨란 말이야. 아! 자네 정녕 갔다는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자그마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끌고가 칼로 땅을 팠다. 아니, 쏟아지는 눈물로 땅을 파고 다듬어 막동이 아버지를 눕히고는 묻어주었다.

오랑캐놈들을 몰아낸 군사들이 왔을 때 길복이 아버지는 막동이 아버지의 봉분을 그러안고 엎드려있었다.

《여보게, 막동이 애비ㅡ》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가슴을 허비여 군사들은 추연히 서있었다. …

《아니?! 웬 눈물이나요.》

막동이가 묻는 그 소리, 이전에 막동이 어머니가 묻던 그 소리와 꼭같았다.

(이 이야기만은 들려주지 말자. 저 어린것이 알면 얼마나 태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랴. 막동이 어머니가 그 슬픔을 어이 이겨내랴.)

길복이 아버지가 전장터에서 남편을 구원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막동이에게서 전해들은 막동이 엄마는 후ㅡ 가슴에 남아있던 근심과 걱정의 한숨을 마음껏 내뿜었다.

(우리 막동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길복이 아버지가 구원해주셨구나.)

참외와 오이를 이고서 성안으로 나드는 막동이 어머니의 발걸음은 빠르다 못해 날개가 돋쳤다.

(빨리 병을 털고 일어서게 해야지. 그래, 우리 막동이 아버지가 있는 싸움터로 하루빨리 가닿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 도무지 힘든줄을 몰랐다.

저녁이면 막동이네 집에 길복이가 찾아와 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다.

눈이 거불거불하면서 졸음이 올적에 《뿌―웅―》 막동이의 방귀소리가 울렸다.

악취가 길복이의 코구멍으로 솔솔 기여들어도 억지로 참고있는데 얼마 못가서 《푸드럭 뽕―》 또 터져나왔다.

이거야 어디 견딜수 있나, 잔뜩 이불안에 웅크리고있어 역한 냄새가 가득찼기에 이불을 걷고 방문을 열고싶었으나 무안해할것같아 코를 막고 가셔지기만을 기다릴적에 또다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악취가 내뿜어졌다.

《자식, 꽤나 구리구나. 너 오늘 밤 무슨 놈의 방귀폭포냐?》

막동이도 킥킥거리다가 측은한 어조로 말했다.

《형, 나 배고파. 점심을 건느고 저녁엔 보리죽을 먹었는데 이렇게 방귀로 다 나오다나니 배는 훌쭉해지고 꼬르륵소리만 나.》

그 말에 길복이는 울적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럼 참외라도 따먹자고 하자 막동이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노랑참외는 속이 하얗게 아삭아삭 저절로 넘어가고 개똥참외는 겉은 시꺼멓지만 속은 빨간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을 꿀꺽 삼키게 되고 엿보다 달디단 줄참외는 호박만해서 혼자서는 먹지 못할거라고 계속 주어섬기다가 인차 시무룩해한다.

왜 그러냐고 거듭 물어서야 소고기며 잉어를 사느라고 길복형님네 참외, 오이밭이 거덜이 나서 이젠 우리 집의것을 팔아야 되니 어머니가 한개도 따먹지 못하게 한다는것이였다.

(내가 왜 미꾸라지생각을 미처 못했을가?)

요즘 길복이도 배고픔을 이겨낸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이전 갈

으면 참외, 오이를 팔아서 배를 곯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몸을 추세우는데 거의 쓰다나니 백미밥은커녕 보리죽으로 이어대고있어 배고파하면 어머니가 마음쓰실것만 같아 몰래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던것이다.

《막동아, 가자.》

가뜩이나 보리죽이 《뿌ㅡ웅 푸드럭 뿡ㅡ》 방귀소리로 나와 배가 고픈데 어딜 가느냐고 칭얼대는 막동이를 끌고 길복이는 마을앞 논판으로 나왔다.

실개울엔 작은 송사리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논판마다에는 미꾸라지가 득실거리고있었다.

막동이에게 가지고온 불뭉치를 들고있도록 한 길복이는 논두렁을 잘라내고 졸졸 흘러내리는 논물밑에 반두를 대였다. 불뭉치의 불빛에 몰려든 미꾸라지들이 잘라낸 논뚝을 따라 반두속에 떨어져내렸다.

한주발쯤 들었을무렵 논뚝을 막고 막동이네 집으로 되돌아온 길복이는 그것들을 소랭이에 쏟아놓았다.

《어… 어… 형, 이거 미꾸라지가 아냐?》

이 소리를 들은둥만둥 소랭이에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덮었는데도 갈개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조금 있다가 그 미꾸라지들을 아직 불땀이 있는 아궁속에 처넣으니 고기익는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나왔다.

미꾸라지에 묻은 재를 툭툭 털고서 어서 먹어보라는 길복이의 말에 막동이는 기겁을 해 물러났다.

《맛이 고소해.》

길복이는 절반을 꺾어 제가 먼저 입에 넣고는 와작와작 씹었다.

《어, 맛있다. 어서 먹으라는데… 이걸 먹어. 아무 탈이 없어. 걱정말아.》

막동이도 한마리를 씹어보느라니 고소한 그 맛이 어디 비길데가 없었다.

그들 둘은 입이 새까매지는것도 모르고 한주발도 넘는 미꾸라지를 들장내고는 불쑥해진 배를 쓸어만지면서 흥얼거렸다.

《형, 그까짓거 배부르니까 좋기만 하구나.》

밤이면 구운 미꾸라지로 배를 맘껏 채우게 된 때부터 막동이에

게서 방귀소리도 터져나오지 않았고 배고프다는 말도 더는 없었다.

요즈음 길복이 아버지는 팔을 짚고서 벽에 기댈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였으나 다리가 힘을 쓰는데는 소발통이 약재라기에 두 녀인은 있는 가산, 없는 가산을 다 팔고 다녔다.

그런데 두녀석들은 다 얼굴이 퉁퉁해지면서 불깃불깃한 혈색이 도는것이였다.

목덜미와 넙적다리도 투실투실한게 글쎄, 자라는 아이가 되여 그럴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해봤으나 그렇게만 여길것도 아니였다.

(아니, 이애가 남의 재산에 손을 대는게 아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길복이 어머니가 길복의 바지주머니를 뒤져보니 구운 미꾸라지가 있었다.

(그랬댔구나. 미꾸라지를 먹었다면 경을 칠가봐 몰래 숨겨왔댔어.)

남편에게도 미꾸라지를 먹이면 어떨가 하고 막동이 엄마를 찾았다.

《요새 녀석들이 돼가는 모습이 이상하니 아무래두 의원에게 알아봐야겠수다.》

막동이의 주머니에서 역시 구운 미꾸라지를 찾아낸 막동이 엄마는 성안으로 가서 중참쯤 되여서야 의원을 데리고 왔다.

온몸의 맥을 짚어보고나서 의원은 아직도 모든 기들이 허하니 설사 일어난다 해도 예전같지 못할거라고, 힘이 뻗쳐야 멀고먼 싸움터까지 갈수 있겠는데 그게 조련치 않을거라고 머리를 저었다.

두 녀인은 의원을 밖으로 불러내여 구운 미꾸라지를 내보이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의원은 세월을 더듬는듯 저 멀리 하늘가를 쳐다보다가 무릎을 쳤다.

《옳으이. 이 미꾸라지탕이 몸을 추서게 하는데서 보약이요. 내 미처 그 소고기랑 생각하면서두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구려. 녀석들이 용커던. 이게 그 소고기에 못지 않게 몸을 추세우는데서 한몫을 할거네. 이 미꾸라지탕이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식이 아닌가. 내 하두 급한김에 소고기랑 말은 했어도 진작 미꾸라지탕소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아쉬운듯 의원은 설레설레 머리까지 젓는것이였다. 두 녀인은 머

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처음부터 미꾸라지국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미꾸라지를 푹 삶은 물에 남새국을 끓이자는 합의를 보았다.

길복이 아버지는 그 남새국을 남김없이 다 먹고는 여느날보다 오늘 국이 별스레 맛있다고 웃음까지 지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푹 끓인 미꾸라지를 꾹 짜서는 뽀얀 그 즙에 순두부를 넣어 끓이니 남편은 소고기나 잉어국보다 더 맛있다며 이제야 기운이 돌아가는것같다고 벙글거리는것이였다.

이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길복이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이번에는 미꾸라지를 음식그대로 리용하였다.

겨울이면 추워서 논뚝을 파고들어가는 미꾸라지라 반대로 찬물이 담긴 솥에 모두부를 그대로 안치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어보자.

아궁에 불을 때면 물은 더워질것이고 미꾸라지는 뜨거운 물에 견딜수 없어 아직은 차거운 모두부에 파고들어갈것이 아니냐? 그속에서 미꾸라지는 죽을것이고 그다음 모두부를 썰어 국을 끓여보자. …

말그대로 다 익은 모두부를 꺼내여 썰어보니 그속에 파고들어갔던 미꾸라지도 동강이 났다.

끼니마다 식찬과 국은 달라야 한다는 음식상이라지만 길복이 아버지에겐 이 국이 싫지 않았고 매번 한사발 더 달라고 청하군 하였다.

길복이와 막동이도 신바람이 나 저녁이면 불뭉치를 켜들고 논판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왔다.

길복이 아버지의 몸은 예전처럼 튼튼해졌고 기운도 왕성해졌다.

이렇게 된것이 무엇때문일가?

길복이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두 녀인의 음식준비를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다.

(아하! 저 미꾸라지였구나. 미꾸라지가 나를 전장에 다시 세워주게 했구나.)

두 녀인이 고마왔다. 음식상에 미꾸라지를 들여왔다고 성을 낼가봐 두부속에 감추어 그렇게도 좋은 음식을 마련한 그 마음들이 갸륵하게 안겨왔다.

그날 저녁 불뭉치와 반두를 들고 막동이와 함께 논판으로 나가려는 길복이를 불러세웠다.

《너희들 어디 가느냐?》

《저… 저… 아무데도 안가요.》

《나도 함께 가자. 너희들과 함께 미꾸라지를 잡아보자!》

《아니?! 아버지도 알고계셨나요?》

《난 오늘에야 알았다. 이 아버진 너희들보다 못하구나.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야 나보다 몸이 더 튼튼해서 이 땅을 지킬수 있지 않겠느냐?》

길복이와 막동이의 손을 잡은 남편이 씨엉씨엉 논판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길복이 어머니의 얼굴엔 기쁨어린 웃음이 함뿍 피여나고있었다.

이런 나날속에 길복이 아버지가 완쾌되여 다시 싸움터로 떠나는 날이다. 집앞에는 마을사람들이 마련해준 키가 늘씬한 말의 고삐를 길복이와 막동이가 잡고있었다.

마당에 내려선 길복이 아버지는 대문짝을 쓸어보았다.

다섯달전 이 대문짝을 넘지도 못하고 그채로 넘어졌건만 지금은 기력이 넘쳐나는 몸이 되여 이렇게 성큼 넘어 싸움터로 가게 된것이다.

오랑캐놈의 철퇴에 맞아 가누지 못하는 몸을 끌면서 막동이 아버지의 묘자리를 칼로 파던 비오는 날이 아프게도 안겨왔다.

막동이 아버지의 묘앞에서 기어이 몸을 일으켜 다시 오마 하고, 그날을 기다려달라는 다짐을 하고 멀고먼 길을 걸어 하가골의 초가집까지 이르던 길은 얼마나 힘겨웠던가?!…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인정도 많아 싸움터에서 온다고, 고향에 가서 몸을 추세운 다음 다시 싸움터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집집마다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길량식도 성의껏 싸주었었다.

그런 마음들에 실려 찾아온 하가골의 초가집!

이 집에서 팔팔 끓인 미꾸라지탕은 오랑캐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복수의 마음을 날카롭게 벼려주었고 이 나라를 지켜낼 억센 의지를 키워주었다.

배웅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속에서 발돋움해 바라보는 두 녀인의

얼굴엔 긍지가 어려있었다.

길복이 아버지가 나란히 서있는 애들중에 먼저 막동이를 그러안았다.

《네 아버지에게 가마. 네가 이 나라의 장수로 억세게 자라난다고 내가 이야기해주마, 막동아—》

아직은 말해줄수 없는 사연을 안고 말우에 올랐다.

저녁이면 홰불을 들고 저희들이 잡아낸 미꾸라지가 저렇듯 달리는 말우에 올리태웠다고 길복이와 막동이는 자랑에 넘쳐있었다.

《꼭 이기고 막동이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세요.》

굽인돌이를 돌아 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젓는 길복이 어머니와 막동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선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하가골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이 나라 녀인들의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 떠받들려 펄펄 끓던 미꾸라지탕이 퍼지고퍼져 오늘날에는 이 지방의 특산음식 추어탕으로까지 이름떨치게 되였다.

벽란도의 천년이

먼 옛날 벽란도부근의 자그마한 마을에 천년이라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살고있었다.

어머니는 잘사는 부자집들의 삯바느질과 삯빨래를 하였고 천년이는 아버지가 쓰던 어구로 례성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례성강의 어부였던 아버지는 키꼴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벽란도 마을의 어부들보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나 생활은 그 식이 장식이라고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돈을 버는대로 살림에 썼으면 천년이에게도 새옷을 입혀주고 집은 초라해도 날마다 백미밥에 물고기국이나마 배불리 차례지게 할수 있으련만 버는 돈은 거의 마을에 일이 생기는대로 돌려쓰기때문이였다.

례년에 없는 장마비에 집들이 무너진 그해에는 기둥감, 서까래 그리고 싸리발을 구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장가나 시집가는 집이 있을적마다 첫날옷을 의례히 맡아해주었던것이다.

의롭고 인정많은 아버지를 온 마을이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천년이네 싸리발문부터 열군 하였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휘동하여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이 마을에 덮쳐들지 않도록 뚝쌓는 일을 벌려놓고 뚝우에는 꽃나무들도 가지런히 심었다.

그런대로 마을의 생활을 마련해주는 례성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강뚝에서 돌이 삐져나오면 더 큰돌을 끼워놓았고 꽃이 피는 계절이면 천년이를 데리고 나와 강뚝에 앉아 나라를 지킨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군 하였다.

천년이가 열두살 나던 해 섬나라오랑캐들이 무리지어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에 침노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아버지는 불안에 떠는 마을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고 장정들을 뽑아 창쓰는 훈련을 시키는 한편 집집마다에 방울을 달도록 했다.

드디여 례성강 건너편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긴급통보가 오고 아버지가 신호줄을 당기자 딸랑딸랑 집집마다에 울리는 방울소리에 마을의 장정들이 례성강도래굽이로 모여들었다.

오만무례한 왜구들이 이따위 벽촌이 무슨 대수냐고 여기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 기슭으로 기여나올 때 《한놈도 남김없이 족쳐라!》 하는 천년이 아버지의 벽력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와— 노도같이 달려드는 장정들의 창에 찔려 엎어지고 자빠지고 남은 왜구들은 벌렁벌렁 맞은켠 기슭으로 도망쳐갔다. 이런 벼락이 터질줄 몰랐던 오랑캐놈들은 이 강을 건너야 북쪽으로 갈수 있었으므로 깊은 밤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다.

처절썩— 솨—

물갈기를 날리는 강물우에서 떼목을 타고 기다리고있던 장정들이 오랑캐놈들의 목을 베고 창으로 찔렀다. 막았던 물동도 터뜨렸다.

왜구들과의 계속되는 싸움속에서 천년이가 그처럼 믿고 의지하며 또 온 마을이 기둥처럼 여겨오던 천년이 아버지는 자기의 창을 잘 간직하고 례성강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아버지를 잃은 열네살밖에 안된 천년이가 어머니와 함께 집안살림을 돌보고 짊어져야 했다.

아버지를 꼭 닮아 몸이 숙성한 그는 작살과 창 그리고 그물질이 능하지만 새끼고기들을 절대로 잡지 않았다. 그물안에서 퍼들쩍거리는 새끼고기들을 강물에 놓아주는걸 본 마을애들의 눈은 커졌다.

《아깝구나. 차라리 나를 주지.》

잉어를 줄테니 방금 잡은 새끼고기를 달라는 천년이의 말에 애들은 더욱 놀랐고 바꾼 새끼고기들을 강물에 놓아줄 때 눈들은 더 커졌다.

《이 례성강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강일텐데 새끼고기들이 여기서 엄지로 자라게 하자꾸나.》

이 소문은 마을의 집집마다에 퍼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빼물었다는 칭찬이 자자했고 어머니는 천년이의 대견한 모습에서 남편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군 하였다.

하루는 도래굽이의 바위틈에서 손바닥보다 큰 금빛물고기가 공중으로 뛰여오르더니 천년이의 그물에 내려앉았다.

《난 서해룡왕의 막내금붕어란다. 넌 누구니?》

《난 벽란도의 마을에 사는 천년이다.》

금붕어는 또렷또렷한 눈으로 천년이를 찬찬히 훑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너를 처음 보지만 마음씨가 몹시 착한 애갈구나. 난 례성강의 경치가 하도 좋다고 해서 구경왔댔어. 정말 멋있더구나. 물은 수정같이 맑고 강뚝우에는 온갖 꽃들이 피여나구 마음껏 놀다가 룡궁으로 가려고 할 때에 <게 섰거라ㅡ> 하는 거센소리가 들려오지 않겠니? 얼핏 뒤를 돌아보니 수염은 길다랗고 머리가 되박만큼이나 큰 시꺼먼 놈이 따라오고있었어. (이크, 꼼짝없이 죽었구나. 다시는 룡궁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슬픈 생각을 하면서도 죽어라 도망치다가 이 바위틈이 보이길래 숨어있었던거지. 내 꼬리를 보렴. 이 바위틈에 몸을 감출적에 그 시꺼먼 놈이 사나운 이발로 물어뜯은건데…》

볼수록 신기한 고기인즉은 다른 물고기는 꼬리지느러미가 하나이지만 다섯개나 되는 금붕어인데 그중의 한개가 긁혀있었다.

《그 시꺼먼 놈이라는건 가물치가 뻔해. 아주 고약한 놈이지.》

《글쎄, 그 고약한 놈이 아직까지 바위앞에서 <이놈아, 나오지 못할가? 네놈의 금빛살을 씹어 몇백년을 살아볼테다.> 이렇게 소리치다가 네가 오는걸 보고 달아났어. 제발 나를 물속에 놔주지 말아. 꼬리지느러미가 아파서 헤염을 치지 못하겠어. 엉큼하게 어디엔가 숨어있던 그 시꺼먼 놈이 내가 이 바위에서 나오기만 하면 사나운 이발로 씹어삼키고말걸.》

천년이가 강물을 길어 채운 물독에 금붕어를 놓아주고는 제가 먹으려던 밥을 먹이로 주니 그동안 배가 고팠던지 조금씩 뜯어먹었다.

어머니가 썰어주는 풀잎사귀며 천년이가 도랑창에서 파낸 실지렁이를 먹으며 금붕어의 몸은 날이 감에 따라 실해지고 꼬리지느러미의 상처도 말끔해져 물독의 아래우를 씽씽 오르내렸다.

가물치란 놈은 음산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며 저녁에 돌아치므로 천년이는 해빛이 밝고 물결이 잔잔한 날을 골라 금붕어를 도래굽이의 바위아래 물속으로 놓아주었다. 그러자 금붕어는 한바퀴 빙 돌다가 공중에 뛰여올라 고맙다고 인사하는듯 두눈을 끔벅이더니 인차 다섯개의 금빛꼬리를 휘저으며 사라졌다.

이제는 금붕어를 제 집으로 돌려보냈는지라 천년이와 어머니는 제각기 아침이 오면 마을을 벗어나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러 가고 례성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천년이의 그물질은 너무나도 손에 익어 절대로 허탕을 몰랐으며 겨울은 겨울대로 얼음장을 까내고 밑에서 헤엄치는 큰 고기들을 작살이나 창으로 잡아냈다.

금붕어를 보낸 다음 어느새 여름과 가을이 다 지나가고 눈보라가 례성강을 휩쓰는 겨울의 어느날 맑은 얼음장밑을 아무리 들여다보았으나 물고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맥이 풀려 집에 돌아오니 삽짝문이 닫긴채로 있었다.

(웬 일일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일찍 돌아와 삽짝문을 열어놓고 문앞에서 천년이를 기다렸었다.

얼마나 추웠겠느냐며 따뜻한 손으로 방안으로 이끌고는 아래목에 묻어놓은 밥을 놓아주었었지. 또 두무릎을 포개고 밥상앞에 앉아서는 《이걸 먹어봐라, 이걸 맛보아라.》 하며 찬그릇을 밀어놓군 하였는데…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선 천년이가 찬방에 조용히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겁이 덜컥 나 《어머니— 어머니—》 안타깝게 불러봐도 아무런 응대없이 이따금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새여나왔다.

아궁에 불을 지펴 방안을 뜨끈하게 덥힌 천년이는 20리도 넘는 의원할아버지네 집을 찾아 길을 떠났다. 길가에선 눈보라가 얼굴을 칼로 찌르듯이 덤벼들었지만 (아버지없는 내가 어머니마저 잃을수 없어. 이렇게 추운 날에 삯빨래하는걸 막았어야 했는데… 얼음물에 빨래를 하느라 생겨난 병일테니 어떻게든 어머니를 꼭 살려내야 해. 내 목숨을 바치는한이 있더라도…) 하는 생각이 천년이를 걸음걸음 떠밀어주었다.

의원할아버지네 집에 이른 천년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의원할아버지, 아버지없는 내가 이제 어머니마저 잃으면 난 어찌하오이까? 불효막심한 이놈을 욕해주시오이다.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오이다, 예?》

지동치는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온 천년이의 효성에 그리고 왜구

무리들을 쳐몰아내고 마을을 지켜낸 의로운 장사의 집이라는데 감복한 의원은 늙은 몸을 지팡이에 싣고 밤길을 걸어 어머니의 병을 각근히 보아주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맥을 짚어보고 두드려보는 자기의 손길만 지켜보는 천년이에게 의원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물고기를 잡숫는걸 한번이라도 보았느냐?》

천년이는 어머니가 살아온 지난날을 하루하루 빠짐없이 더듬어보았다.

《보지 못했소이다. 물고기의 비린내가 싫다고 하면서 전혀 들지 않았소이다.》

《음, 그렇댔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난 의원은 그게 아니라며 어머니는 한마리라도 살림에 보태자고 했은즉 비린내가 몸에 들어가야 하니 구운 은빛숭어 한마리면 능히 병을 털게 될거라고 일러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등도 은빛인 숭어를 이 엄동설한에 어디서 구할고? 하긴 지성이면 감천이거늘…》

머리를 설레설레 젓는 의원을 20리를 걸어 집앞까지 바래워준 천년이는 그길로 장거리의 어물점들을 찾아다녔다.

《똑똑똑…》

눈보라가 회오리치는 소리에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선지 안에선 아무러한 기척이 없었다.

《똑똑똑…》

더 크게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깬 주인의 목소리가 마뜩지 않게 흘러나왔다.

《거 누구요? 깊은 밤에 시끄럽게시리.》

문을 벌컥 연 주인은 눈보라를 하얗게 뒤집어쓴 천년이를 보고서도 눈을 희뜩거리는게 성이 가라앉지 않은듯싶었다.

천년이의 곡진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거 푸르락거려 안됐다고 손을 잡아 방으로 데려갔다.

천년이가 언 물고기들을 한마리, 한마리 뒤져보았으나 잔등이 검은색인 숭어들은 있었으나 온통 은빛을 띤 숭어는 없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라 천년이는 도끼와 작살, 불뭉치를 들고 례성강으로 나갔다.

넓은 강변이라 몰아쳐오는 눈바람을 마주하고 쩡쩡 얼음을 까내는데 휘— 휘— 얼음쪼각들이 달라붙어 옷은 금시 꽛꽛해지고 머리칼과 눈섭엔 하얀 성에가 불렸다. 얼굴에 날아든 얼음쪼각들은 녹아 줄줄 흘러내렸지만 오직 어머니를 살려내려면 은빛숭어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줄도 추운줄도 몰랐다.

추위가 어찌도 혹심하였던지 강얼음은 두터웠고 구멍을 내기가 헐치 않았다.

이렇게 펑 뚫린 구멍에 불뭉치를 바투 대고 물고기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렸으나 낮에도 없던 물고기들이 밤이라고 있으랴. 나타나기만 하면 창대로 단번에 명중할수 있으련만 송사리떼만이 불빛이 좋아 모여들뿐 강복판에서 강기슭까지 다섯개의 얼음구멍을 까냈으나 숭어란 놈은 잔뜩 어디에 웅크리고있는지 볼수조차 없었다.

그러는새에 뽀얀 눈보라속으로 아침해빛은 비쳐오고 눈사람이 된 천년이는 기운이 진해 도래굽이에 솟아있는 바위에 쓰러졌다.

《아버지, 이 못난놈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자식구실을 하지 못해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이 례성강과 우리 사는 마을을 지키느라 피흘린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소이다. 아버지—》

천년이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눈보라속에 잠겨들제 뜨거운 눈물방울은 뚝뚝 강반의 얼음장에 떨어지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울방울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 얼음장에서 쩡— 쩡— 소리가 나더니 량옆으로 쭉 갈라지는것이였다. 하도 이상하여 눈을 비비고 바라보는 천년이앞에 금붕어가 나타났다.

《나야, 금붕어야. 온밤 례성강에서 얼음까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분명 너의 집에 급한 일이 생긴것같아 이렇게 왔어. 무슨 일이니?》

금붕어와 헤여진지 얼마나 되였을가?… 천년이가 너무 반가와 쓸어주고 안아주며 지난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금붕어는 《뭐? 어머니가?》 하고 놀라면서 잠간 기다리라 하고는 룡궁으로 내려갔다.

금붕어의 말을 들은 룡왕은 은빛숭어는 우리 룡궁에만 있는 귀한 물고기인즉 안되겠다고 머리를 저었다.

금붕어에게서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듣고서야 어허,

일전에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댔지, 내 그새 깜깜 잊었댔구나 하며 가물치놈에게 잡혀먹히울번한 너를 살려준 기특한 애인즉 뒤뜰안의 련못에서 제일 큰 은빛숭어를 가져가도록 하라는 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래굽이에 다달은 금붕어는 은빛숭어를 천년이에게 안겨주었다.

《고맙다, 금붕어야. 이젠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낫게 되였구나.》

《천년아, 집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또 생기면 여기에 와서 <금붕어야― 금붕어야―> 큰소리로 불러. 내 그럼 인차 나오지.》

금붕어는 공중으로 솟구쳐올라 인사를 하고는 천년이와 헤여졌다.

집에 다달은 천년이가 이글거리는 숯불우에 적쇠를 놓고 은빛숭어를 구우니 방안에 가득찬 그 고소한 냄새에 어머니는 눈을 떴다.

천년이가 뜯어주는 구운 숭어살점을 입에 넣은 어머니는 마치 거짓이기라도 한듯 금시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것이였다.

《어머니―》

《천년아, 너의 효성이 나를 일으켜세웠구나.》

어머니와 천년이는 와락 껴안고 오래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삯빨래, 삯바느질을 하지 마세요. 내 나이 열네살인데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나요? 그저 나의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나 해주세요. 약속하지요,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성을 내겠어요.》

《오냐, 내 꼭 그러마. 자식두…》

어머니는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다가는 다시 껴안았다.

천년이는 그때부터 고기잡이에 더 극성을 부리면서 마을애들과 함께 례성강꾸리기에 정성을 다했다.

봄철이 오면 허물어진 강뚝에 돌을 더 높이 쌓았고 뚝우에는 꽃씨를 뿌렸다.

글귀가 밝아 스스로 익힌 글을 아이들에게 배워주기도 하고 강변의 씨름터에서 힘도 키워주군 하였다.

아침이면 애들을 이끌고 고기잡이 떠나는 천년이의 모습에서 마을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면서 그를 따라 성장하는 제집 아이들이 대견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해 여름 장마철엔 여느때보다 많은 비를 퍼부었으나 성벽처럼

솟아오른 강뚝은 끄떡없어 례성강물이 마을로 덮쳐들지 못하였다.

그래도 걱정이 되여 나가보니 불어난 시누런 강물이 흘러가고 어디의 집이 무너져내렸는지 솟구치는 파도에 기둥이며 집짐승들이 휘뿌려지면서 떠내려오는것이였다.

쫙쫙 쏟아붓는 비줄기사이로 너풀거리는 옷자락 같은것도 얼핏 보였다.

(사람이다!)

어쩔새없이 강변을 따라 헉헉거리는 숨을 내뿜으면서 도래굽이의 바위우에 오른 천년이는 위험하다는건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강물에 뛰여들었다.

들이받으려고 기둥들이 다가오면 그밑으로 자맥질하고 파도가 높아지면 타고넘으면서 헤염쳐간 천년이는 떠내려오는 옷자락을 움켜잡고 간신히 기슭으로 나왔다. 누군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둘쳐업고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와 눕혀본즉 열살이 넘어보이는 소녀애였다.

천년이가 그제서야 방바닥에 쓰러지자 어머니는 소녀의 젖은 옷을 벗기고는 따뜻한 아래목에 눕혀놓았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칠새없이 내리던 비가 멎고 해빛이 작은 들창가에 비쳐드는 날 소녀애의 두볼에 발그스름한 빛이 어리였다. 미음을 마시고 짭짤하게 구운 물고기를 입에 대면서부터 기운이 생긴 소녀는 눈물속에 더듬더듬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이름은 하영이며 깊은 밤중에 덮쳐드는 산골물에 집은 무너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살에 떠내려가면서도 자기를 기슭으로 밀어놓았는데 다시 왈칵 달려든 산골물이 휘감아 강물속에 던져버린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영아, 가엾게도 너는 이 세상에 외토리가 되였구나. 이제부터 나를 엄마로 부르고 천년이를 오빠로 삼아 이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ㅡ 오빠ㅡ》

예쁘장한 얼굴에 웃음이 어린 하영이는 아침이슬을 머금은 한송이의 꽃과 같았다.

가난에 몰리우던 하영이인지라 부지런히 어머니를 도와 물도 길어오고 아궁에 불도 때고 빨래도 해 집안엔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다.

해빛에 시들세라 저녁마다 강뚝우의 꽃나무들에 물을 주고는 고기잡이간 오빠를 기다리던 하영이가 《오빠―》 하고 맑은 소리로 마중할 때면 다른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천년아, 네 동생 하영이가 하늘에서 내렸니, 땅속에서 솟았니?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어?》

《얼굴이 예쁜데다가 목소리까지 고와 힘들었던 이 하루가 즐거워지누나.》

《나에게도 저런 녀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기만 하다야.》

그러면 천년이는 벙글거리고 하영이는 오빠뒤에 숨었다가 넘겨받은 물고기를 안고는 집으로 향했다.

세상살이라는게 도무지 종잡을수 없으니 천년이네 집에 복과 불행이 번갈아 끼여드는지라 어머니가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였던 지난겨울에 이어 이해의 겨울 또다시 이 집에 슬픔이 기여들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어머니가 덜컥 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는것이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없는 설음을 어떻게 이겨내랴! 아, 어머니―

천년이와 하영이의 극진한 보살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웃음만이 깃들던 집안에서 긴 한숨소리만이 흘러나왔다.

하영이는 방을 덥히느라 아궁에 장작을 집어넣는데 지난밤도 꼬박 밝힌 천년이는 어머니의 곁에 앉은채로 깜박 잠에 들었다.

《여봐라―》 하는 소리와 함께 구름우로 구불구불한 지팽이를 든 할아버지가 솟아올랐다.

《천년아, 듣거라. 네 어머니의 병은 작년 겨울과 같이 이 마을에 살면서 과일 하나 입에 넣지 못해 심한 갈증과 허탈에서 오는것이란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겠은즉 수박중에서도 제일 크고 잘 익은 수박 하나를 잡숫게 하면 앞날에도 병이 없이 오래오래 살게 될것이니 지체없이 구하도록 해라. 눈이 뒤덮인 산에 수박이란 말이 당치않건만 지성이면 감천이니라―》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작년에 어머니의 병을 고쳐준 고마운 의원할아버지라 《할아버지―》 하고 목메여 부르는데 할아버지는 《허허허…》 웃음발만 구름우에 얹어놓고는 사라지고말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웨쳐대는 목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뛰여든 하영이가 다급히 천년이를 흔들어깨웠다.

《오빠야, 왜 그래? 응, 왜 그래?》

천년이에게서 꿈이야기를 들은 하영이는 무작정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어서 수박을 따러 가자고 졸랐다.

글쎄, 그렇긴 한데… 이 겨울날 수박이 어데 있을가?

수심에 잠겼던 천년이는 문득 금붕어가 떠올라 불뭉치를 들고나섰다.

《하영아, 넌 내가 다녀올 동안 어머니를 돌보거라.》

《싫어, 나도 갈래요.》

안된다며 수박따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말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고, 살아도 죽어도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하영이는 막무가내로 졸라댔다.

그럼 그사이에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는 말엔 넓은 세상에 오빠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나 혼자만 남아있으면 뭘 하겠느냐고 몸부림을 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도카니 돌아앉아있던 하영이가 어머니를 흔들어댔다.

《어머니, 오빠와 가는걸 승낙해주세요. 예? 어머니—》

어머니는 끙— 신음소리를 낼뿐이였다.

《이것 봐요, 어머니가 승낙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지요, 오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오죽하면 눈보라치는 이 겨울날에 수박을 따러 가는 길에 나서고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승낙한다는 소리로 알고있을가. 도무지 떼여놓을수가 없구나. 그동안 어머니는 옆집에 부탁하고 하영이도 같이 가자.)

천년이는 불뭉치를 들고서 앞에 서고 하영이는 뒤따르고…

도래굽이에 다달은 천년이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치밀어올라 더운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그 눈물이 두터운 얼음장에 떨어지자 쩡— 쩡—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쭉 갈라지면서 넘실거리는 례성강물이 보였다.

하영이는 놀라움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천년이가 《금붕어야— 금붕어야—》라고 부르는 소리에 금시 다

섯개의 꼬리지느러미를 흔들며 금붕어가 솟구쳐올랐다.

금붕어는 《뭐? 어머니가 급하다구? 천년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간이 급해 정을 나눌새도 없구나. 잠간만 기다려.》 하고는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갔다.

금붕어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다 듣고난 룡왕은 《정녕 천년이가 기특하도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효성은 고향마을에로 이어졌거니 그애가 례성강을 잘 다스려 우리 룡궁엔 사시절 맑은 물이 넘치고 강뚝우에 피여난 꽃들의 향기를 례성강물이 싣고와 우리 룡궁에도 향기가 풍기거늘 어서 앞동산에 있는것들을 그대로 가져다주거라.》 이렇게 이르고는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언제면 금붕어가 나올가 하고 어리둥절한 하영이가 지켜보고있는데 물속에서 파랑새 한마리가 솟구쳐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야, 파랑새!》

《하영아, 금붕어인 내가 파랑새로 변했단다. 어서 따라와.》

《그래?》

하영이는 제 이름을 불러준 기쁨이 커서 불뭉치를 들고 따랐다.

산을 넘고 또 넘어 날으는 파랑새를 놓칠가봐 부지런히 달음박질치는데 뒤에서 《악—》소리가 들려오길래 돌아보니 천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있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만 생각하고 오빠에게 불뭉치를 비쳐주지 못했어요.》

끙— 일어나다가 넘어지려는 천년이의 겨드랑이에 어깨를 낀 하영이는 아파도 참으라고 하고는 발을 맞춰 걸었다. 파랑새도 그들의 머리우에서 천천히 날았다.

힘겹게 천년이를 부축하면서 그들이 둥그런 다리우에 다가갔을 때에 금시 눈바람이 멎고 향기가 풍겨오는데 가지가 휘도록 울긋불긋 열매가 달린 과원이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배, 추리, 살구 등 온갖 열매 주렁진 과일나무밑에는 딸기, 참외, 수박들이 푸른 잎새사이에 달려있었다.

천년이는 과일들을 하나하나 쓸어보고 안아보았다. 이렇게 탐스럽고 향기풍기는 과일들을 아직 보지 못한 천년이였다.

《오빠야, 난 알아. 이 과일들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고

싫어하지요? 안돼요. 수박 하나만을 따자요. 오빠의 정직한 그 마음을 흐리면 안돼요.》

천년이는 부끄러웠다. 총명한 하영이가 어쩌면 제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듯싶어…

하영이는 길게 뻗은 덩굴에서 물동이만큼 큰 수박을 따안고서 기쁨에 넘쳐 웃고있었다.

하늘에서 파랑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년아— 하영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오래오래 복속에서 살기를 바란다. 난 가—》

《파랑새야, 정말 고맙다. 너를 잊지 않으마—》

천년이와 하영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파랑새가 보이지 않게 되자 벌나비 춤추던 과원은 온데간데 모르게 없어졌다.

휘날리는 눈보라를 헤치고 집으로 돌아와 쪼갠 수박의 한쪼각을 하영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주니 창백하던 어머니의 얼굴빛이 불그스레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또 한쪼각을 떠드리니 감겨있던 두눈이 열리고 수박을 다 든 다음에는 언제 병에 시달리던가싶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들을 와락 껴안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원할아버지의 말대로 너희들은 효성으로 이 어미를 일으켜세웠구나. 천년아— 하영아—》

《어머니—》

《엄마야—》

…

세월이 흘렀다.

섬나라 왜도적들이 서해로 기여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제일먼저 벽란도에 전해졌다.

악착하기 그지없는 오랑캐놈들이 물고기 욱실거리는 례성강하구에 틀고앉아 맛좋은 물고기들을 퍼내고 그곳 마을들을 불사르며 고기배들을 마구 략탈한다는것이였다.

왜적들이라면 이 땅이 열백번 뒤집힌대도 용서 못할 무리들이여서 천년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쉰근도 넘는 창을 쥐고 분연히 싸움길에 나섰다.

마을의 장정들도 성스러운 그 길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어머니에게 큰절을 드린 천년이는 몸집이 실한 갈색말에 올랐다.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한푼두푼 푼전을 모아 어머니가 마련한 준마였다.

《쩌—》

갈색말은 《오호홍—》 두 앞발을 번쩍 쳐들었다가 뽀얀 먼지를 휘감아올리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첫아기를 가슴에 안은 녀인이 례성강 도래굽이를 지나는 싸움군들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손을 젓고있었다.

《만년이 아버지!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어요—》

그 녀인은 천년이와 혼례를 이룬 하영이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를 사랑하며 자기 고향마을을 위하는데서부터 귀중한 싹이 트고 무성해지는 법이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와 고향마을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한 천년이였기에 그는 어엿한 장수로 자라나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나라를 지켜낸 충신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여도 전해질수 있었다.

섬나라 왜도적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쳐죽인 천년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하영이 그리고 아들인 만년이와 함께 오랜 세월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

범을 키우는 소년

박연폭포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거슬러올라가느라면 얼마 못가서 기세차고 웅장한 성거산이 솟았는데 그아래에 있는 얼마 안되는 몇채의 집들중에 웅건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 대체로 열네살이면 모험성과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데 성거산에 깃든 이야기를 듣게 된 다음부터 웅건이에겐 그것이 류달리 더 커졌다.

옛날에 호경이라는 사람이 일행과 함께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여러곳을 돌아보다가 이곳 부소산(개성 송악산)일대에 자리를 잡고 살림을 펴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평나산(성거산 또는 구룡산)으로 매사냥을 갔었는데 하루종일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바위굴에 잠자리를 정하였었다. 날이 어둡자 큰 범이 사람냄새를 맡고 바위굴어구에 막아서더니 빨건 입을 크게 벌리고 군침을 흘리며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으흥―》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일행은 놀라 겁에 질려 의논을 한 다음 서로 모자를 밖으로 던지고 범이 먼저 입으로 무는 모자의 임자가 밖으로 나가 범과 대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모자를 벗어 밖으로 던졌는데 범은 코를 벌름거리며 한동안 모자들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호경의 모자를 성큼 입으로 무는것이였다. 하는수없이 약속대로 호경이 먼저 창을 들고 굴밖으로 나왔더니 별안간 범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그 순간 바위의 굴구멍이 무너져내려앉았다. 그바람에 굴속에 있던 아홉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후 호경이 아홉사람의 장사를 지내주자 산신이 나타나서 호경이더러 자기와 부부의 인연을 맺자고 말을 하자바람에 그를 데리고 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때부터 그곳 사람들은 호경을 대왕으로 섬기고 사당을 세워서 그를 제사지내였으며 그 산이름도 그 아홉사람들과 인연이 있다고 하여 성거산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였다.

(예로부터 우리 성거산은 물맑고 산좋아 아름다운 경치로 소문이

났다고 했지. 칠색령롱한 무지개를 펼치며 억만구슬이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은 박연폭포수는 성거산기슭을 감돌아가는 물이거니와 매바위, 쌍바위, 선녀바위 같은 헤아릴수 없이 기묘한 바위들이 솟아있어 특유한 그 풍치 또한 어디 비길데 없다.

실바람 한줄기 불지 않아도 무성한 수림은 조용히 설레이고 절벽마다엔 굽이쳐 쏟아지는 옥계수라 사슴과 노루, 산토끼, 꿩들이 많아선가 매들도 또한 많다.

이런 산중에 뭇짐승의 왕인 범이 어찌 없으랴. 나도 한번 범을 만나볼테다.)

웅건이는 그날부터 성거산의 기묘한 바위들을 타고오르고 진대나무들을 넘어 골짜기를 뒤졌다.

돌팔매의 능수인 웅건이의 한쪽옆구리엔 언제나 돌주머니가 있었고 어깨우엔 띠천이 메워져있었다.

처음에는 돌멩이를 손에 쥐고 심심풀이로 바위나 나무들을 겨냥하며 던졌고 잣나무에 열린 잣송이를 따느라고 했다. 이게 버릇으로 굳어져 마음먹은대로 맞힐수 있었으나 던진 돌멩이가 멀리 가지 못하는지라 띠천에 돌멩이를 재워 빙빙 돌리다가 띠천의 한끝을 놓으니 아슬하게 높이 떠올라 멀리 날아갔다.

번개처럼 날아간 돌멩이가 바위를 때리면 벙끗 불꽃이 튀면서 두쪽으로 쩍 갈라지기도 했다. 하도 돌팔매질에 극성을 부려 나무꼭대기에서 간들거리는 잣송이를 떨구는건 여반장이고 하늘에 빙빙 도는 매도 단방에 맞혔다.

범이 달려들어도 무서움은 도무지 없어 벌써 열흘이나 산속을 헤매였지만 그림자는커녕 발자국도 보지 못했다.

하기야 범발통의 생김도 모르는 웅건이가 발자국인들 어떻게 가려낼수 있었으랴.

《에그나, 옷주제를 봐라. 어제 기운 무릎의 덧천마저 없어졌구나. 이 에미가 괜히 성거산의 범이야기를 들려주었나보다.》

등잔불의 심지를 돋구고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말이였다.

《어머니, 난 범을 꼭 보고싶어요. 장쾌하고 웅장한 우리 성거산에 범까지 있다면 얼마나 큰 자랑이겠나요.》

이 말을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뭉클해왔으니 제가 나서자란 고장

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대견해서였다.

《네가 돌팔매질을 잘하는걸 알고 범이 무서워 얼씬도 못하며 슬슬 피해다니는게 아니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확실히 제일이예요.》

웅건이가 여기에 맞장구쳤다.

(옳다, 이 돌주머니를 차지 말고 범의 굴을 찾아보자. 그리고 옛사람들처럼 모자를 쓰고 가서 범이 나타나면 밖으로 던져보자. 그러면 옛이야기에서처럼 마을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왕이라 부를지도 몰라.)

저 혼자 피씩 웃은 웅건이는 다음날부터 돌주머니를 풀어놓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는 성거산을 오르내리면서 굴을 찾기 시작했다. 산토끼들이 두눈을 빤히 뜨고서 바라보다가 숲속으로 내빼기도 했고 풀숲에서 화닥닥 놀란 꿩이 푸드득 공중으로 날으기도 했다.

(흥, 너희들과 놀 내가 아냐, 겁쟁이들 같으니.)

발목이 시큰거리도록 온 산판을 헤매였지만 굴은 나타나지 않았고 어쩌다가 뻥― 뚫린 아구리가 있어 엎어지며 뛰여가며 들어가볼라치면 그 깊이라는게 한기장도 못되여 되돌아서고말았다. 그 다음날에야 벼랑중턱에 뚫린 굴을 하나 발견해낼수 있었는데 마침 벼랑짬에 뿌리를 박은 소나무가 굴아구리를 가리우고있어 가지를 타고 굴에 들어설수 있었다.

언제 나타나겠는지 모를 범을 굴안에 있으면서 기다린다는것이 베찬노릇이였지만 꾹 참고 셈세기까지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배고픈걸 억지로 참으려니 배속에서 나는 꼬르륵소리가 어서 집에 가자는 소리같아서 다음날엔 점심밥을 싸가지고 왔다. 굴은 굽인돌이를 돌아가면서 깊었고 여기저기로 뻗어있어 자칫하면 굴아구리까지 나오기 힘들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깃들어 《웅건아― 웅건아―》라고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얼핏 잠에서 깨여나보니 맞은편 산봉우리에 아침해가 떠올랐기에 집에 온 웅건이는 방안에 벌렁 눕고말았다.

그거야 한갖 옛이야기이지 진짜 그렇겠느냐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성거산에 범이 없는걸 괜히 찾는게 아냐?… 아니야, 없을수 없

어. 없다는건 말이 안되지. 있어, 있구말구.)

소르르 잠이 들무렵 귀가 번쩍 열리는 소식이 왔다. 옆집에서 사는 천길이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 개성장안에 있는 외삼촌이 매사냥군과 함께 왔는데 웅건이가 범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반가와 웃음까지 띠우며 래일 산에 가자고 했다는것이였다.

(이것 봐라, 매사냥군을 따라다니면 혹시 범을 볼수 있는게 아냐?)

웅건이는 날이 밝기도 전에 엽구리에 돌주머니를 차고 어깨에 띠천을 멘 다음 천길이네 집으로 갔다. 천길이는 벌씬 웃으며 벌써 왔느냐고, 외삼촌과 매사냥군이 술을 마시면서 밤늦도록 이야기하느라 피곤해 그런지 깨여나지 않았다고 웃방을 가리켰다. 매사냥군이라도 보자고 문틈에 눈을 댔던 웅건이는 흠칫 놀랐다.

납죽한 얼굴에 쳐들린 눈섭, 옆으로 길게 째여진 눈, 뾰족한 코… 삵의 모양이였다. 신통히도 삵의 상통이라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에 천길이는 생김새는 그래도 마음은 후더분하다며 갖가지 천들과 돈까지 듬뿍 주었다는것이였다.

한동안이 지난 후에 사냥총을 메고 방안에서 나온 매사냥군이 웅건이를 찾았다.

《오, 네가 범을 찾는다는 애로구나. 참 똑똑하게 생겼는걸.》

머리를 쓸어주려는걸 흠칫 물러나서 쳐다보니 작은 키는 난쟁이와 흡사하였고 똥똥한 몸이 가로 쭉 퍼져 잠자는걸 볼 땐 몰랐지만 삵의 상통이라는 느낌이 더 컸다.

매사냥군이 성거산의 숲에서 범발자국이라도 보았느냐, 범굴은 어디 있더냐 하며 이것저것 범에 대한것만 묻는것이 웅건이에겐 이 난쟁이가 매사냥군이 아니라 범을 잡으러 온게 아닐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웅건이는 어디에 굴이 있던가고 물으면 모른다고 머리를 흔들었고 길을 안내하면서도 소나무가 뒤덮인 절벽의 굴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웅건이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자 매사냥군은 천길이에게만 살뜰한 관심을 돌렸다. 벼랑을 오를 때는 손을 잡아 끌어주고 내릴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덤불은 사냥총으로 툭툭 쳐내깔리며 길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산발타는데는 웅건이보다 못한지라 이내 숨을 헉헉 내뿜으며 퍼더버리고 앉아 쉬는 참에 천길이가 사냥총을 쓸어보다가 한번 쏴보자고 졸랐다.

《오, 그것 말이냐? 신기한게지.》

매사냥군은 탄알을 재워준 다음 겨냥을 어떻게 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대주고 넘겨주었다. 천길이가 총구를 공중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니 《꽝―》소리에 이어 나무우에 앉았던 새들이 순간에 날아올랐다.

호기심이 많은 웅건이도 사냥총을 한번 쏴보고싶었지만 매사냥군이 단마디로 거절하는지라 아까부터 천길이만을 감싸도는게 아니꼬왔던 그의 가슴엔 뱉이 울컥 치밀었다.

(시시하다. 이 난쟁이 삵의 상통아!)

이때 공중에서 빙빙 돌던 수리가 산토끼라도 발견했는지 내리꽂히기 시작하자 천길이가 급히 가리키며 어서 쏘라고 독촉했다.

급히 탄알을 재운 다음 지그시 눈을 감고 겨냥하던 매사냥군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빗나가고 총소리에 놀란 수리는 하늘로 오르려고 방향을 바꾸었다.

(때는 왔다. 신식총으로 수리도 맞히지 못하는 이 난쟁이야, 어디 내 맛을 봐라.)

웅건이가 어깨에서 벗은 띠천에 돌멩이를 재워 휘― 휘― 몇바퀴 돌리다가 한쪽 띠천을 풀어놓으니 공중으로 솟구쳐오른 돌멩이는 면바로 수리를 들이맞혀 돌덩이처럼 떨구어버렸다.

숲속에 떨어진 수리를 어깨에 걸친 웅건이는 매사냥군의 옆을 지나 휘휘― 휘파람속에 산을 내렸다.

《허― 저놈이 제법인걸. 쓸데가 있어. 어서 저애를 불러라.》

《웅건아― 웅건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척 웅건이는 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 삵의 상통이 범을 잡으려고 온게 분명해. 매사냥군이라는건 허울뿐이지. 너따위 삵같은게 감히 범을 잡으려 하다니? 절대로 안된다, 안돼. 산중의 왕인 범이 없이야 무슨 성거산이람.)

천길이가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매사냥군이 총쏘는 법을 배워주

기도 하고 총을 쏴보게 한다고도 했지만 듣지도 않고 돌려보내다가 한번은 그와 마주앉아 어떻게 되여 매사냥군이 집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개성장안에 사는 외삼촌이 음식점에서 그를 만났다는것이였다.

이러저러하게 통성하면서 술까지 거나하게 마신 외삼촌이 성거산 아래마을에 누이네 집이 있다는 소리를 하자 이곳으로 왔다는것이였다.

말은 매사냥군이라고 하지만 실은 범사냥군으로서 왜땅에 범이 없어 살아있는 범을 보내면 부귀영화에 금덩어리가 차례진다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값진 물건과 돈까지 약차하게 주었다는것이였다.

(나쁜 놈, 아무리 돈에 미쳤다한들 조선의 범을 어떻게 왜적에게 팔아먹겠다는거냐? 몰래 숨어있다가 팔매질로 대갈통들을 까부시고말가? 그놈들이 그대로 죽어자빠지면 모르겠지만 한놈이라도 살아나면 알게 될게고 그러면 제놈들의 죄는 묻어두고 나를 살인강도라고 몰아대겠지? 그러면 난…)

그러나 성거산의 범을 지켜내려는, 하여 아름다운 명산의 정기를 지켜내려는 웅건이의 굳센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오르는 그를 말리지 않고 대견하게 여기였다.

범과 맞다들린다면 팔매질을 하여 다른 산으로 쫓아버리려는 마음으로 웅건이는 매일 숲속을 뒤지고 벼랑밑의 굴에도 가보았다.

그러다가도 숲속에서 삶의 상통을 만나면 침묵속에 오고가는 눈빛들이 날카로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스름한 어느날 저녁 산을 내리던 웅건이는 숲속에서 가랑잎더미가 움씰거리는것을 보았다.

뭘가? 한잎두잎 조심히 가랑잎을 들춰보니 팔뚝만한 조그만 짐승이 옴지락거리고있었다.

《가엾어라, 엄마는 어데 가고 너 혼자서 비를 맞고있어? 참 예쁘게도 생겼네. 너 여기 있다가는 스산한 이 날씨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심보사나운 놈이 너를 잡아먹을수도 있어. 어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누가 볼세라 얼른 그 짐승을 품속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웅건이는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다.

《아니, 이게 새끼범이 아니냐?》

《예?!…》

웅건이도 놀랐다.

범을 찾자고 그렇게도 애쓰다가 이렇게 뜻밖에 새끼범을 만나다니?!

누런 잔등에 검갈색의 줄을 두르고 제법 수염도 나온 새끼범의 두눈에선 새파란 빛이 넘쳐나고있었다.

웅건이 준 밥그릇을 본 새끼범은 배가 고팠던지 단숨에 먹어치웠다. 송아지만큼 큰 개를 키워 숲으로 갈 때 끌고 다니는게 소원이였던 웅건이에게 있어서 새끼범은 그야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였다. 잠자리가 불편한지 밤새껏 끙끙거리던 새끼범에게 가랑잎을 두툼하게 깔아주니 제법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

마음속에 날개가 돋친듯싶어 웅건이가 휘휘ㅡ 휘ㅡ익ㅡ 휘파람을 불면 새끼범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알았는지 잠을 자다가도 깨여나 말똥말똥 바라보군 했다.

휘휘ㅡ 휘ㅡ익ㅡ 휘파람을 불며 먹을것을 가져가면 새끼범은 꼬리를 휘저으면서 마주 오군 하였다.

이렇게 보름쯤 지나니 새끼범이 웬 일인지 음식을 전혀 대지 않아 근심에 잠긴 웅건이에게 범은 새끼라도 날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대주었다.

웅건이는 그길로 돌주머니를 차고 띠천을 메고 성거산에 올랐다.

원래 수리들이 무리지어 살고있는 성거산이라 마침 커다란 수리 한마리가 산토끼를 물고 공중으로 오르고있었다. 웅건이가 띠천에 돌을 재워 몇바퀴 돌리다가 한쪽 띠천을 손에서 푸니 산토끼와 함께 수리가 철써덕 떨어졌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휘휘ㅡ 휘ㅡ익ㅡ 휘파람을 부니 범우리에서 어느새 새끼범이 나와있다가 제 몸보다 더 큰 산토끼와 수리를 날카로운 이발로 쭉쭉 찢어 삼켜버렸다.

날마다 수리를 몇마리씩 잡아가지고 왔어도 남아나는게 없었지만 성거산엔 수리가 많은지라 걱정이 없었다.

또 달포가량 지나서부터 새끼범은 몸집이 커갔고 돌아칠 때에는 제법 바람소리를 냈다. 웅건이가 범을 데리고 문밖에 나서면 동네개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듯 꼿꼿이 굳어진채 오줌을 질질 내갈겼고 허둥지둥 개구멍으로 겨우 들어간 개들은 짖지조차 못했다.

사람들은 놀라 《범이다!》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대문을 잠그고는 머리도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범은 아츠러운 바람소리를 내며 이집저집으로 날으다가도 웅건이가 휘휘— 휘—익— 휘파람을 불면 그앞에 단정히 무릎꿇고 앉군 하였다.

웅건이네 집으로 자주 오던 아낙네들의 발걸음도 일체 끊어지고 그 집을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움에 소름이 돋는다고 누구나 말하였다.

마을엔 소동이 일어나 웅건이가 데리고 다니는 범이 온 마을을 휩쓸거라며 벌벌 떨었다. 더는 범을 집에 둘수가 없어 웅건이는 소나무절벽굴에서 기르리라 생각하고는 아직은 사람들이 깨여나지 않은 이른새벽에 성거산에 올랐다.

굴바닥에 나무가지들을 촘촘히 펴고 가랑잎을 폭신하게 깔아놓았다. 먹이감을 구해가지고 와서 휘휘— 휘—익— 휘파람을 불면 범이 굴아구리에 머리를 기웃이 내밀군 하였다.

성거산마을의 한 소년이 범을 키운다는 소문이 개성장안에도 널리 퍼져 사람들은 모두 놀라와했다.

《거짓이겠지. 범에게 잡혀 먹히우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괜한 소문이 있을라구? 봐야 알노릇이야.》

《그게 정말일가? 그렇다면 그 소년은 누굴가?》

성거산에서 허탕을 치고 장안에 들어와있던 삵의 상통을 한 난쟁이는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며 분명히 웅건이일거라고 쾌재를 올렸다.

(웅건이 그 자식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사냥총과 값진 천들 그리고 금붙이들도 가지고 가자. 돌부처도 돈앞에서는 벙글거린다는데 아무렴, 돌부처보다 굳셀소냐.)

삵의 상통은 범을 산채로 잡아넣을 철창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뛰여다니면서 천길이 외삼촌을 구슬렸다.

《살아있는 범을 이 철창에만 넣는다면 황금소나기일세. 그때 가서도 자네가 궁색스럽게 거간질로 살아가겠나? 수십칸 되는 기와집의 대청마루에서 여봐라 하면 숱한 하인들이 고기꿰미처럼 줄지어설 그날을 그려보면 숨이 다 가빠날걸세.》

삵의 상통은 천길이의 외삼촌과 함께 성거산마을에 도착한 즉시 웅건이네 집을 찾았다.

《뉘신지?》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섬찍했다. 일전에 천길이 외삼촌이 데리고 온 난쟁이사냥군을 마을어구에서 본적이 있었다.

(난쟁이에 삵의 상통, 천길이 외삼촌이라는 놈! 무슨 기미를 채고 또 왔구나.)

웅건이가 어데 갔느냐는 물음에 그애가 제갈길을 간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삵의 상통은 코를 벌쭉거리며 빈정거렸다.

《더운방에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에 비린내가 섞여있는걸…》

어머니가 두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리자 이놈들은 벙벙해 마주보다가 자리를 떴다.

동네를 소란시키던 범이 얼마전부터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범이 다른 곳에 있다는걸 알게 된 삵의 상통은 음식상을 잘 차려놓고 천길이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웅건이를 데려오게 하였다.

《난 그 난쟁이 삵의 상통이 보기 싫고 너의 외삼촌도 보기 싫어. 가지 않을테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천길이가 말해주어서야 웅건이는 음식상에 마주앉았다. 웅건이가 음식을 맛있게 들면서 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화제로 돌리군 할 때에 삵의 상통과 천길이 외삼촌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아이구, 이거 돌팔매질능수가 왔구나. 많이 먹어라.》

웅건이가 마깝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다가 움찍 일어서려는데 삵의 상통이 그를 눌러앉혔다.

《자 봐라, 이 사냥총은 한번에 두알씩 총알이 뿜어져나가는 신식총인데 네가 아주 가지도록 해라. 일전에 사냥총을 쏴보지 못하게 해서 네가 품었던 노여움을 풀어주자는거다.》

그리고는 금붙이며 이러저러한 값진 물건들을 내놓는것이였다.

《이런걸 나에게 왜 주나요? 범을 내놓으라는건데 나는 범이 어데 있는지 모르거니와 알고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산에 직접 가서 찾아보는게 좋을거예요.》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웅건이에게 눌리워 방금 쏟아지던 황금소나기가 뚝 멎는것같아 삵의 상통과 천길이 외삼촌은 서로 마주 바

라보며 두눈만 껌벅일뿐이였다.

(저놈들이 집에 범이 있는가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범이 있는 곳을 알려고 먹을것과 금붙이며 값나가는것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제 또 무슨 꿍꿍이를 하려는걸가? 아주 조심해야겠는걸. 소나무절벽의 범굴이 저놈들에게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돼.)

금붙이를 가지고 범을 구하려는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느낀 삵의 상통은 웅건이를 몰래 따라다니며 범굴을 알아내려고 벌써 며칠째나 숲속에서 헤매였으나 웅건이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다.

웅건이는 미리 높은 나무에 올라가있으면서 이놈들이 산을 내리는걸 살펴본 다음에야 범굴에 찾아가군 하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하루는 끝내 그놈들에게 걸려들게 되였는데 이놈들이 다른 위치에서 서로 교대해가며 지켰기때문이였다.

웅건이는 뒤따르는 놈들을 모르는척하며 돌팔매질로 와르르― 밤송이들을 떨구고는 아래우입술이 새까맣도록 밤청대를 하였다.

할수없이 이놈들은 군침을 삼켜가며 밤청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숲속에서 바스락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앉아있자니 다리가 쑤셔오는게 이것도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이윽해서 일어난 웅건이는 숲속을 헤치면서 부지런히 10리쯤 걸어 바위들이 덧쌓인 절벽으로 올라갔다. 그다음엔 잠시 보이지 않더니 다시 바위를 타고 내리다가 놈들의 눈에 뜨이였다.

(옳지, 저곳이 범굴이렷다. 됐다. 성공이다, 성공! 저 굴아구리에 철창만 걸쳐놓으면 그만이지. 범이란 놈이 나오다가 다치면 철창에 저절로 잡혀들어갈테니 이 아니 경사일소냐. 황금소나기가 마구 들이퍼부을 땐… 으흐흐―)

범잡을 준비를 서둘러 끝낸 삵의 상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창을 메고 바위들이 겹치여 덧놓인 벼랑을 톺아올라갔으나 굴은 없고 번번한 절벽이 앞을 막아나서고있었다.

놈들이 자기를 뒤따르는것을 알아차린 웅건이가 소나무 뒤덮인 벼랑의 범굴과는 반대로 10리가량이나 되는 먼곳으로 이놈들을 끌고왔던것이다.

(속았구나,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웅건이에게 내놓고 분풀이도 하지 못할 형편이여서 삵의 상통은

이를 갈며 길길이 날뛰였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범은 몸집도 커지고 먹이도 제 혼자서 척척 구하군 하였다.

이따금 보고싶어 수리를 잡아 휘휘― 휘―익― 휘파람을 불면 어디에 있었는지 범은 어느새 웅건이앞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웅건이는 범의 얼굴과 잔등을 쓸어주군 하였다. 그러다가 돌팔매질로 수리를 떨구고 그쪽을 가리키면 범은 바람소리와 함께 수리를 물어왔는데 그 바람에 나무잎이 와스스― 흔들거리기도 하였다.

한번은 범의 잔등에 올라 성거산봉우리를 가리키자 범은 아름드리나무들을 감돌아 바위츠렁을 넘어 잠간새에 올랐는데 웅건이의 얼굴은 할퀴우지 않았고 옷자락도 찢어지지 않았다.

한번 만나면 또 만나고싶은것이 범이였고 그럴 때마다 삵의 상통의 눈에 뜨이면 안되겠기에 항상 조심하였다.

날이 갈수록 기어코 범을 잡으리라는 야욕에 부글부글 끓던 삵의 상통은 범잔등에 오른 웅건이를 발견했을 때 아연해져 콱 죽여버릴가 하고 생각했다가도 그까짓 자식의 목숨이라는게 무슨 쓸모가 있다더냐, 범을 산채로 잡는게 급선무라고 여기고 숲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있었다.

범을 만나 놀고온지가 며칠이 지났는지라 그동안에 범이 어떻게 되지나 않았을가 하는 근심속에 산에 오르던 웅건이에게 풀숲에서 반짝이는 사냥총의 총구가 안겨왔다.

(저놈들이 나를 어쩌려나? 범을 부를가? 아니야, 그러다가 저 사냥총에서 불줄기가 쏟아져나오면…)

삵의 상통이 나오고 뒤따라 천길이의 외삼촌이 길을 막았다.

《네놈에겐 이럴수밖에 없구나. 목숨을 내놓겠느냐, 범을 내놓겠느냐?》

뻥 뚫린 사냥총의 총구가 웅건이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범은 모른다. 네놈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비켜라!》

총구를 밀어던지는 웅건이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이놈아, 범이 네놈을 태우고 이 산을 내려 마을앞까지 오는걸 봤는데도 뻗칠테냐?》

또 주먹이 날아들면서 코피가 쏟아져내렸다.

웅건이는 손바닥에 고인 코피를 놈의 상통에 뿌려던지며 네놈이 뭔데 손찌검질인가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

삵의 상통에 잔인한 웃음이 비껴올랐다.

《네놈이 뭐냐구? 봐라, 난 너의 반도인들을 마음대로 죽일수 있는 일본사람이다.》

삵의 상통이 웃도리를 와락 벗어던지니 피방울이 떨어진듯싶은 속옷이 보였다.

《뭐?! 일본사람?…》

천길이의 외삼촌이 눈을 흡떴다.

《이 자식아, 전번엔 덧쌓인 바위구경만 시키면서 나를 멋지게 속였는데 범만 내놓으면 살려주지 않으리. 이 총구앞에서도 계속 뻗칠테냐?》

《이 난쟁이 왜놈삵이야, 조선범이 간다면 너희네 쪽발이들을 그냥 둘것같으냐? 넝마쪼박마냥 산산이 물어찢을거다. 그렇지만 섬나라가 더러워 보낼수도 없거니와 범들도 가지 않는다.》

《무엇이?》

악에 받친 삵의 상통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뒤미처 급히 올라온 천길이가 그앞을 막아나섰다.

《안돼요, 웅건이는 내 친구예요.》

《네놈도 살겠으면 저리 비켜.》 하며 천길이를 밀어팽개치고 난쟁이왜놈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안된다, 이놈아-》

재물에 눈이 멀었던 자신을 뒤늦게야 뉘우치며 더우기 왜놈인줄도 모르고 따라다닌 죄를 씻고싶어 천길이의 외삼촌이 난쟁이왜놈에게 달려들어 총부리를 쳐내깔렸다. 총알을 공중으로 날려보낸 분풀이로 칼을 뽑아든 난쟁이왜놈은 천길이의 외삼촌을 자빠뜨리고 타고앉았다.

이런 다급한 속에 휘익- 휘익- 웅건이가 휘파람을 불어대자 숲을 와스스 흔들며 날아온 범이 으르렁- 고함을 쳤다.

외삼촌에게 칼을 박은 삵의 상통이 《으악- 범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걸음치다가 돌아서 뺑소니치는데 범이 두발을 벋디디고 앞을 막아섰다.

《으악-》

되돌아서는 삵의 상통의 머리우를 날은 범이 앞발을 쳐들고 또 앞을 막자 난쟁이왜놈은 《히히히…》 웃음인지 비명인지 내지르며 두눈이 뒤집혀지더니 미쳐버리고말았다. 두팔을 너풀너풀, 몸뚱이를 들썩들썩하며…

《범이다, 함께 가자. 범아, 둥둥— 어깨를 겯자꾸나. 이걸 봐라, 이게 무엇이냐? 황금이로다. 황금의 소낙비가 터졌도다. 쏟아져라, 소낙비야. 얼싸절싸 맞아보자.》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던 난쟁이왜놈은 낭떠러지로 곤두박히고 말았다.

《외삼촌—》

질벅하게 피가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겨우 눈을 뜬 외삼촌이 천길이를 더듬었다.

《내가 왜 쪽발이왜놈인줄 몰랐더냐? 돈… 돈이 눈을 흐리게 했구나.

그래서 조선범을 지켜가는 웅건이의 가슴에 칼질을 했어. 이놈은 살아서도 살 곳 없고 죽어서도 묻힐 땅이 없는 놈이다. 천길아, 넌… 넌 나처럼 되지 말아—》

힘겹게 더듬더듬 말을 남긴 외삼촌은 옆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휘익— 휘익—

범이 웅건이앞에 와 넙적 엎드렸다.

웅건이는 범의 잔등에 올라 마을로 향하였다. 성거산의 범을 지키고 쪽발이왜놈을 쳐죽인 웅건이를 보자고 집집마다의 문들이 활짝 열리였다.

천냥고개

어딜 가나 고개는 있어 그 고개가 높고낮든, 경치가 좋든, 볼성이 없든 다 제 이름을 가지고있다.

그 이름을 새겨보느라면 방추물고개나 무시울고개와 같이 이름그대로 부르는가 하면 고개가 높아 되돌아선다고 하여 되너머고개, 숯장사군들만 넘는다고 하여 숯고개라고 뜻을 풀어 이름을 짓기도 했다. 또 그 모습이 새우등같다고 새우고개, 뱀처럼 오불고불하다고 뱀고개라고 부르니 이름들을 꼽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고개들중에서 어느 고개가 제일 높고 험한가고 물으면 보리고개라고들 하는데 농군들이 보리가 익을 때까지의 굶주림이 너무 심해나온 이름이지 걸어서 넘는 고개는 아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돈이름을 붙인 고개가 있다.

그 고개가 바로 오산리에서 안릉골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한번 넘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홍수고개라고도 불리우는 이 천냥고개를 부지런히 넘으면 천냥을 가진 큰 부자가 되는지…

고남고개를 넘어 한참 가느라면 다섯개의 산들인 큰봉, 바리봉, 모래봉, 자라봉, 웃골봉들이 있다고 하여 오산리라고 부르는 오붓한 마을이 나진다.

백석이와 득범이는 보리쌀과 이러저러한 물건들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산리에 이르렀다. 성안에서 장을 보고 안릉골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였다.

《형님, 앞산에 고개만 하나 있으면 시오리길은 축낼수 있는건데 노상 이 물건짝보따리들을 지고 빙빙 돌아야 하는 이 신세도 우리 팔자인가요?》

나이가 두살아래여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득범이가 항상 외우는 말이라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기에 여기에 와서는 버릇처럼 입을 꾹 다문채 수굿이 걷기만 하는 백석이다.

성안에서 30리 되는 이곳까지 무거운 보짐이 어깨를 짓눌러 득범이가 팔자타령까지 하지만 틀리는 말은 아니고 이 앞산에 고개가 있어 그걸 넘으면 곧장 안릉골이 되겠는데 산들을 돌아야 하니 족히 시오리길은 더 걸어야 하는것이다.

안릉골의 백석이네 집앞에 닿을즈음에 득범이가 또 입을 열었다.

《형님, 막걸리라도 한대포 해야지요?》

《아래마을에 있는 너의 집이 아니라 날 보고 내라는거겠지? 집안식구들을 먹여살리느라 애쓰는 너에게 이 형님이 어련할라구.》

막걸리상도 술상이라고 짠 무우와 고추지지개가 안주로 댕그라니 올랐다.

보짐을 털썩 내려놓은 득범이가 상앞에 다가앉았다.

《형님, 이 고달픈 보짐인생 막걸리로라도 달래봅시다요.》

연거퍼 사발로 들이켜 얼굴이 벌겋게 되니 제 하고싶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득범이다.

《남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땅마지기나 재산을 넘겨준다는데 형님이나 이 득범이나 이게 뭐요, 기껏해야 보짐이 아니요?》

옆에 놓여있는 보짐을 밀어팽개치며 득범이는 여전히 볼부은 소리를 해대였다.

《그러구보면 참, 우리 부모들은 어질게만 살아온 못난이들이 아니겠소? 못난이!》

《다시 말해봐라. 이 자식, 네놈이 뭐라구… 네놈이 뭐 잘났다구 조상을 욕하는거냐?》

《어… 어…》

백석이의 불끈 쥔 주먹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 득범이는 얼빤해져서 말도 고르지 못하고 주춤주춤 물러서다가는 동이에서 또 한사발을 퍼내여 쭉 들이켰다.

《형님, 나를 욕하지만 말고 좀 들어보시우. 형님네 부모들이 이다음에 천석군부자는 못되더라도 백석군부자라도 되라고 백석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지요? 그런데 말이예요, 땅도 없이 어떻게 백석군부자가 되라는거요?》

백석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떨렸다.

《이놈아! 우리 부모들에게 땅이 뭐 없었더냐? 성안의 인삼포주

놈에게 다 빼앗겨서 그러지.》

《맞아요. 그랬지요.》

백석이와 득범이네도 얼마간의 땅은 있어 문전옥답이라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골안의 밭들에서 봄이면 누렇게 익은 밀보리가 설레였고 가을이면 팔뚝만한 무우와 동이만한 배추들을 거두어들이였다.

그런데 이 골안을 탐낸 놈이 있었으니 그놈은 성안의 인삼포주였다. 이곳은 진흙과 석비레가 섞인 땅이고 다섯개 봉우리들이 뜨는 해, 지는해의 해빛을 가려주는 인삼의 적지인지라 포주놈은 천이며 옷가지들, 신발따위들과 더우기는 병이 든 사람들에게 인삼을 쓰라고 이 골안에 외상으로 풀고 거기에 리자를 마구 붙이다나니 가난한 농군들이 내놓을거란 땅밖에 없게 되였다. 예전대로 그 땅에 곡식이라도 심으면 안릉골의 농군들이 소작살이라도 할수 있으련만 인삼포전으로 만들어버려 포주에게 원한이 깊었다.

백석이와 득범이가 보짐을 지고 뼈빠지게 성안을 나들어도 살림은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하니 그 원한은 날이 갈수록 쌓여졌다.

《형님, 내 아까는 조상들앞에 잘못했수다. 내가 못난이지요. 우리 밭들을 빼앗은 인삼포주놈을 보시우. 제 애비가 뭐라고 우리 안릉골에 무덤을 쓰는거요? 그것도 고려 3대왕인 정종묘와 골짜기를 건너 마주보게 해놓았으니 이거야 정말 메스꺼워서… 그걸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세상천치가 어디 또 있겠소?》

득범이는 제 가슴을 탕탕 두드리다가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갑시다요. 오늘이 바로 이 못난이 귀빠진 날이라 슬퍼지는 마음 어쩌지 못해 인삼포주놈에게 말주먹질이라도 해보니 좀 시원하구려.》

다음날 아침 득범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두두— 하며 백여근도 넘을 돼지를 몰고 백석이를 찾아왔다. 성안의 육고집에 가져갈 돼지였다.

《가만… 득범이, 오늘은 우리도 보짐인생에서 좀 벗어나보세.》

득범이는 백석이의 이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어제 밤 백석이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허 참, 득범이의 생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형님인가? 그런데 그 포주놈에게 어떻게 하면 원한풀이를 할수 있을가?)

백석은 온밤 엎치락뒤치락거렸다.

포주놈은 산릉선을 넘어 제놈의 인삼포전이 바라보이는 산중턱에 애비의 묘를 썼다. 농군들에게 빼앗은 밭에서 우줄우줄 자라는 인삼들을 무덤속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라는 뜻이였는지, 죽어서도 놀지 말고 인삼포전을 지키라는 흑심에서였는지…

작년 봄 놈의 애비를 묻을적에 요란하였다. 인부들이 산중턱을 하얗게 뒤덮었고 무당들의 쾡창거리는 소리가 산아래마을까지 들려왔다. 득범이의 말대로 제깟놈이 뭐라고 골짜기건너에 있는 정종왕의 묘를 바라보게 지었는데 그보다는 작아도 상돌이나 비석도 흉내를 내느라 다른 묘들보다 어방없이 컸다.

백석이에겐 포주놈 애비의 묘앞으로 자그마한 길을 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그 길이 인삼밭울타리를 지나 들어서야 하거늘 그렇게 되면 인삼 한뿌리도 하늘처럼 여기면서 허황한 미신에 빠져있는 포주놈이 펄펄 뛸것이 분명하였다.

(그다음엔… 그다음엔 어떻게 되나보자.)

백석이의 이야기를 들은 득범이가 환성을 올리며 오늘따라 형님답게 돋보인다고 그의 허리를 부여잡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들은 낫과 도끼로 작은 관목들과 풀나무를 치면서 절벽바위를 에돌아 포주 애비의 묘앞으로 오솔길을 바싹 냈다.

퉤, 퉤 더럽다! 득범이는 연신 침을 내뱉으며 부지런히 릉선을 향해 일손을 다그쳤다.

《형님, 릉선까지 다 냈수다. 저기 성안으로 들어가는 고남고개가 한눈에 보이우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 성안으로 드나들며 보짐을 나르자구요?

저, 그런데 저 포주놈이 가만있겠어요? 말도 없이 묘앞으로 길을 냈으니 아마…》

《자넨 가만있게. 사람을 보내 통고했는데 미처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런 기별도 없어 우린 포주어른이 다 승인한것으로 알았다고 우기면 다네. 그다음은 내게 맡기게.》

그러면서 오솔길이 좀 험하고 높아 산밑으로 돌아다니는것보다 힘들겠지만도 인삼포주놈을 골탕먹이는 일이라며 산밑까지 째나가자고 하였다.

고남고개를 바라보는 오솔길이 생겨나 시오리나 줄어들게 되였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제일 좋아하는 축은 조무래기들이였다.

《얘들아, 오솔길을 넘어보자. 릉선에 올라서면 고남고개가 빤히 바라보인대.》

《그래그래.》

조무래기 대여섯명이 인삼포울타리를 지날 때였다. 저 오솔길에 들어서서 오줌이 마려워 싸게 되면 첫 개통식이 재수없을거라면서 그중 큰애가 괴춤을 풀어제끼자 다른 애들도 그게 맞다며 울타리에 찍―찍― 갈겨댔다.

인삼포를 지키는 하인이 황황히 달려왔다. 이놈은 다짜고짜로 인삼포울타리에 주인의 승인도 없이 길을 냈고 그것도 여기 이 묘주변에 길을 냈으니 야단이 아닌가고 막 행패질을 해댔다.

《이놈들아, 인삼모양이 사람과 꼭같은줄 모르느냐? 어따 대고 사람의 머리우에 지린내나는 오줌벼락을 퍼붓는거냐?》

조무래기들이 기겁을 하여 괴춤을 춰올리며 참새무리처럼 흩어져 바스러지게 깔깔대면서 오솔길에 들어섰다.

백석이와 득범이도 보란듯이 보짐을 지고 오솔길을 택하였다.

이 소식이 인삼포주의 귀에 들어갔다.

《뭐라구? 인삼포전에 대고 오줌을 갈겨대? 또 묘앞으로 그따위 보짐을 지고다녀?》

하루는 마름이 안릉골에 닥쳐들어 소란스레 집집의 문을 벌컥벌컥 열고는 동네 한복판에 서있는 느티나무아래로 모이게 했다. 무슨 변이 났는가 해서 웅성이는 마을사람들앞에 마름놈이 헛기침을 깇으며 나섰다.

《어험, 어느 놈이 인삼포울타리를 지나 포주님네 묘앞으로 오솔길을 냈는고?》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 마름은 지팽이로 한명한명을 짚어갔다.

《너냐?》

백석은 눈앞에 다가오는 지팽이를 밀어버렸다.

《그럼, 너냐?》

《이건 어디서 온 말라꽹이가 거들거려?》

득범이는 지팽이를 잡아당겨 빼앗아내여 무릎에 대고 절반을 뚝 꺾어 팽개쳤다.

《어… 어… 이 불한당놈 봐라. 내 성안에 있는 인삼포주님의 마름이다. 이… 이놈!》

백석이가 앞에 나섰다.

《하— 몰라봤소이다. 마름님이시라는걸 알았더라면 내 동생이 그 무례한짓을 했을라구요. 득범아, 어서 잘못했다고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 여기에 오솔길을 낼 때 다 이 아근이야 누구나 다 살아보자고 해서 넘나드는 길로만 여겼지 어디 거기 인삼포주의 묘가 있었던것을 알았겠소? 그리 알아보구 할걸 안됐수다. 그때 사람을 띄웠는데도 종시 무소식이기에 다 승인된것으로 알았지요. 헌데 숱한 사람들이 다 이 지경으로 다니는데야 어떻게 하겠소이까. 곁을 지날 때 례의나 좀 표하면 되겠소이다.》

백석이가 돌아서서 슬쩍 눈을 끔쩍해보이자 득범이가 허리를 굽석 접으니 제딴에 더 기고만장해진 마름은 어험— 헛기침을 또 해대고 일장훈시를 늘어놓았다.

남의 인삼밭을 지나 포주님 선친의 묘앞으로 오솔길을 내고 다닌다는게 될법한 일이냐? 인삼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온갖 잡병이 다 옮는다. 이 마을 가난뱅이들에게 무슨 병인들 없겠느냐? 어험, 이 세상을 하직한 포주님의 선친은 살아생전에 귀한분이여서 신선으로 되였은즉 신선은 사람냄새를 제일로 싫어한다. 그런데 그앞을 뻔질나게 지나니 그 냄새에 얼마나 괴로웁겠느냐? 나중엔 그 액운이 인삼포주님에게 들씌워지거늘 오늘부터 당장 오솔길출입을 금해야 하겠다. …

어이 마름님의 령을 거역하겠느냐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고서야 마름은 두동강난 지팽이를 들고 떠나갔다.

목을 빼여들고 안타까이 기다리던 인삼포주가 반갑게 맞으면서 신칙을 잘했느냐고 물었다.

《이걸 보시오이다! 오솔길을 낸 놈을 찾아 이 지팽이로 조겨댔더니 나중엔 이렇게 두동강이 났는걸요.》

역빠진 마름놈은 길을 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을 보내였다는 말은 슬쩍 빼버리고 꺾어진 지팽이를 보였다. 그때 일도 묘하게 마름놈도 포주도 집에 없었으니 벼락은 분명 마름놈에게 떨어질것은 뻔

하였다.

《아무렴, 무지한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말을 들을게거던. 수고했네. 어서 술상에 나앉으라구.》

술상엔 예전에 보지 못하던 삶은 닭까지 올라있었다.

백석이와 득범이는 마름이 떠나가자 아무런 일도 없은듯이 오솔길을 걸어 성안을 나들었고 마을사람들도 성안이 가까운 길인지라 오솔길을 택했다. 조무래기들도 오솔길로 산에 올라 개암과 밤송이를 털어 길은 점점 더 넓어져갔다.

그해엔 인삼포전에 알지 못할 병이 돌았는데 까닭을 알수 없는 인삼들의 뿌리가 썩는 병이라 안릉골 인삼포전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인삼포주놈의 노기는 하늘끝에 닿았는지라 허리를 굽히고 서있는 마름의 머리우에 욕사발이 쏟아져내렸다.

《이 얼뜨기같은 놈아, 뭐 지팽이가 두동강이 나도록 족쳐댔다구? 그런데 웬 일이냐? 그 가난뱅이들이 인삼밭울타리를 지나지 않았다면 왜 인삼들이 썩었다는거냐, 엉? 이 미시리같은 놈아, 멍청하니 서있지 말구 관청에 있는 어른을 냉큼 모셔오지 못할가?》

관청의 어른이란 안릉골의 밭을 빼앗을적에 인삼포주가 옆에 달고 다니던 중년배의 벼슬아치인데 궁색한 살림살이에 뭉치돈이 저절로 생겨 인삼포주놈이 청하면 군말없이 제꺽 오군 했다.

뭉치돈이나 인삼을 받아먹은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번져지든 강건너 불보듯하는 그자의 심보를 포주놈은 아직 모르고있었다.

《인삼포주님, 오래간만이우다. 무슨 불상사라도 생겼소?》

관청의 중년배가 대문을 열고 어험― 점잖은 기침속에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방안의 자리에 앉기도 바쁘게 포주놈은 돈꾸레미를 내놓았다.

그리고는 인삼밭을 거쳐 조상묘앞으로 낸 오솔길과 인삼밭울타리곁으로 가난뱅이들이 나다니는통에 인삼뿌리들이 모조리 썩었다는 이야기를 자초지종했다.

중년배는 인삼포주의 말엔 아무런 흥심도 없이 돈뭉치만 훔쳐보면서 속구구로 세여보았다.

(저게 열냥쯤이나 될가? 깍쟁이같은 두상.)

《글쎄 포주의 사정도 딱하오만 백성들이 산에 오솔길을 내고 다

니는게 죄가 되는것은 아닌지라 무슨 죄명으로 다스리겠소?》

돈에 눈길이 갔을 때 벌써 이렇게 나오리라고 타산했던 포주가 얼른 인삼꾸레미를 내오게 하여 돈뭉치옆에 슬쩍 놓는걸 능청스럽게 보지 못한척하며 중년배는 입을 열었다.

《하여튼 내가 나가 주리를 틀어보겠소만…》

마름은 그길로 관청의 중년배를 앞세우고 안릉골에 나타났다.

《자자… 떠들지 말고 관청에서 나오신분이니 정숙하라구요.》

관청의 중년배는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오솔길을 처음으로 낸 놈을 잡아낸다한들 그게 뭐 법에 어긋난다고 주리를 틀소냐, 형틀에 매놓고 곤장을 칠터이냐? 안릉골의 저 백성들에게 잘못 보이면 후날 길가다가 돌벼락을 맞을지 누가 알랴. 까짓거 돈먹은 뒤라 어름슬쩍 넘기는게 으뜸 방비책이야.)

안릉골백성들의 눈길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불쑥 나온 말이 조무래기들의 오줌사태였다.

《어느 놈들인고? 어째 인삼포전에 오줌을 내질러 인삼들을 썩게 했는고?》

마을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속에 바지괴춤을 먼저 내렸던 애가 관청의 벼슬아치앞에 당돌하게 나서 입을 열었다.

《올해는 인삼들에 병이 돌았소이다. 우리 웃마을의 인삼밭도 병에 걸려 몽땅 망했소이다.》

《오늘부터 오솔길로 다니면 누구든 주리를 틀고 형틀에 매달테니 그리 알거라. 조무래기들은 인삼포울타리에 오줌을 내지르지 말고… 그랬다가는 까뒤집거나 썩뚝 잘라버릴테다. 어험.》

마을사람들속에서 웃음이 터졌는데 중년배는 자기를 비웃는 웃음인줄은 모르고 어험— 어험— 하며 흡족해서 발길을 돌렸다.

《형님, 저 오솔길에 발길을 끊지 않으면 그 포주놈이 어떻게 나올가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 어쨌든 두고보자.》

백석이와 득범이는 하루도 그치지 않고 오솔길로 그전날에 성안의 장사군들이 부탁한대로 콩이나 팥을 량곡점에 내가기도 하고 염소나 개, 돼지를 육고장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올 때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보리쌀을 사서 안릉골의 집으로 한시바삐 가자는 마

음으로 오솔길에 들어서군 했다.

오늘도 역시 그러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서라, 이놈들!》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길래 백석이와 득범이 앞뒤를 둘러보며 어정쩡하게 서있는데 허줄한 옷을 걸친 놈팽이가 거들거리면서 다가왔다.

《이 오솔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거늘 네놈들은 뻔뻔스럽기도 하구나. 이렇게 시퍼런 대낮에 뻐젓이 들어서?》

주먹질을 해도 한두번에 넘어뜨릴 놈팽이여서 득범이가 대들었다.

《이것 봐라, 이건 어디서 벌어먹다 굴러온 놈이야? 아침에도 이 오솔길로 넘어왔는데 금시 나라의 령이라도 내렸다더냐?》

《이놈들아, 일전에 관청에서 나왔을 땐 귀구멍을 막고있었더냐? 지금처럼 뻥 뚫려있었겠지?》

득범이는 어이가 없어 웃어댔다.

《도대체 네놈은 누구냐?》

《그것까지 밝혀야 물러가겠느냐? 난 인삼포주네 집에서 사는 사람이다.》

백석이와 득범이는 마주보며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관청의 벼슬아치가 안릉골에 와서 한 행동거지를 마름이 그대로 인삼포주놈에게 일러바쳤을것이고 그런즉 소리는 크지만 믿을데가 못되는 관청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길목파수를 세운게 분명했다.

《네놈의 옷주제를 보니 하인꼴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우린 이 오솔길을 넘어야 보리밥이라도 식구들의 배에 채워줄수 있단 말이다. 다 같은 처지에 무슨 큰 변이라도 났다구 꽥꽥거려? 내 참…》

백석이의 이 말은 옳은 소리였다.

《하긴 네놈은 엎어졌어도 떡함지에 엎어진셈이야. 인삼포주집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달리지 않으니 그런 팔자가 어디 있어? 여기서 온종일 매미처럼 흥타령이나 부르다가 집에 가서 한놈도 오솔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면 보리밥이라도 한덩이 더 주지 않을라구. 하하하…》

《득범아, 가자.》

백석이와 득범이가 오솔길에 들어서니 녀석은 저들을 막았다가 주먹떡이라도 날아들지 몰라 두눈만 껍적거릴뿐이였다.

《형님, 인삼포주가 이 오솔길로 다니지 못하게 꽤나 안달아하지요?》

《그래, 또 무슨 일이 있겠는지 지켜보자꾸나.》

그들이 서둘러 오솔길을 넘어서자 이제나저제나 마을에서 기다리고있던 조무래기들이 와 둘러섰다. 성안에 들어갔다가 오는 길에 웬놈이 오솔길을 떡 막는 바람에 저 산을 빙 돌아왔다면서 그럴줄 알았으면 형님들과 함께 올걸 그랬다고 저마다 아쉬워하였다.

《그래그래, 이다음엔 함께 넘자꾸나.》

그들은 허허 웃고는 돼지기르는 집들을 찾아갔다. 육고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던것이다.

다음날엔 해가 산마루에 솟아올랐을적에 오솔길에 들어섰다. 여느때는 이른아침에 떠나군 했지만 웃마을, 뒤마을의 집들을 뒤져서야 구할수 있었던것이다. 긴 오래기로 뒤다리를 묶고 산에 오르려는데 짐승들이 땅을 허비며 발버둥쳐 앞에서 득범이가 먹이를 주어서야 겨우 오솔길에 들어섰다.

두두… 이놈아! 이 개… 이놈아! 회초리로 련이어 갈기면서 인삼포주 애비의 묘에 이르렀을적에 이게 웬 일이냐, 녀인들이 밥이며 고기붙이, 과일이며 떡 등으로 제상을 차리고있는게 아닌가?!

챠, 이거 돌아서자니 육고집에 가야 할 시간은 급하고 그대로 가자니 제상앞을 지나간다는게 난감한즉 어허, 오늘이 무슨 날인고? 청명도 추석도 아니거늘 도대체 무슨 날이라는거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속에 《컹─》 득범이에게서 빠진 개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요란스레 짖어댔다.

《꽥─ 꽥─》

뒤미처 빠져나온 돼지도 꿀꿀… 꿀꿀… 하며 제상에 뛰여들었다.

《사람 살려요─》

녀인들이 무서움에 뿔뿔이 흩어져 얼굴은 땅에 대고 엉덩짝만 하늘로 쳐드니 급해난건 백석이와 득범이였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그놈들은 육붙이그릇들에 쿵쿵대다가 넙적넙적 처먹었다.

《이놈들아─》

질질 끌려다니는 뒤다리의 오래기를 간신히 찾아쥔 득범이가 회초리로 족쳐대니 돼지는 주둥이를 하늘에 뻗대고 뿌지직─ 뿌지직─ 똥

을 내갈겼다.

그제서야 흩어졌던 녀인들이 저마다 행악을 부렸다.

《아이구나, 돌아가신분의 생일제상에 개, 돼지를 끌고오다니? 두억시니같은것들, 냉큼 없어지지 못할가? 주인님이 이걸 알게 되면 이년저년 행패질이겠는데 어찌란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나…》

요즈음 인삼포주놈의 심기는 몹시 불안하였다.

하필이면 오솔길이 선친의 묘앞으로 나질건 뭔지… 어느 놈이 먼저 오솔길을 냈는지 알수가 있나? 그놈을 찾아낸다한들 거기에 마땅한 죄항목이 없는데야 어떻게 처리할고. 할수없이 오솔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마름을 보냈더니 지팽이가 두동강이 나도록 신칙했다 하지만 달라진게 뭐냐? 안릉골에 가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한 그 알량한 관청의 벼슬아치는 뭉치돈과 인삼꾸레미를 넙적 먹고는 흠흠해 있고… 이것저것 믿을수 없어 하인을 오솔길에 파수로 보내긴 했는데 괜스레 밥이나 축내면서 파수를 세운다는게 아깝기 그지없다. 헌데 아까운건 뒤로 제쳐놓고 파수를 선다는 놈이 숲속에서 쿨쿨 잠이나 잔다면 멀리 떨어진 이 성안에서 어이 알것이냐?!

그런데다가 작년 가을의 인삼폐농의 아픔이 온종일 떠날줄 몰랐고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했다.

…갑자기 멀리서 와― 함성이 들려왔다. 대체 무슨 일인고? 장지문을 열고 울담을 넘어 눈길을 보내니 안릉골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함성이였다.

살기띤 함성이 이젠 고남고개를 넘어오고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쇠스랑과 걸이대, 괭이를 든 발가숭이 조꼬만 애들이였다. 천인지, 만인지… 그런데 하나같이 한쪽다리가 없거나 한팔이 부러져나갔거나 애꾸눈에 째보 등 모두 병신들이였다. 그것들이 자기네 집 대문을 두드려댔다.

《내 머리를 붙여놔라.》

《나를 왜 절름발이로 되게 했느냐?》

《내 한팔은 어디 갔느냐?》

집대문이 부서져나갈듯이 콰당탕거리는 소리에 인삼포주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발가숭이 조꼬만 애들이 안릉골의 병든 인삼들이였구나.)

인삼포주놈은 후유—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이게 다 오솔길때문인지라 그 길때문에 잠자리가 어수선한거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마른하늘에 생벼락인지… 선친의 생일제상에 난데없이 개, 돼지가 달려들어 컹컹, 꽥꽥 소란을 피우면서 육붙이들을 삼키고 똥까지 내질렀다니 어느 우라질 놈의 괘씸한 행실이라는거냐? 선친이 얼마나 노하셨으랴.

과연 그날 밤 꿈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갈퀴같은 두손을 쳐들고 애비가 장지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섰다.

《이… 이놈…무릎을 꿇어라. 내앞으로 오솔길이 지나가서 어디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다더냐? 가난뱅이들의 궁상맞은 타령에 또 조무래기들의 바스러지는 웃음소리에 잠을 들지 못하고 눈만 뻔히 뜨고있으니 네놈이 이걸 알기나 하느냐? 또 봐라, 개새끼가 왕왕 내 목덜미로 달려오게 하고 생일날에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다 족친 돼지새끼가 내 머리우에 퀴퀴한것까지 퍼붓도록 하였은즉 선친을 잘 모시지 못하는 네놈이 무사할상싶으냐?》

애비는 갈퀴같은 손을 쳐들고 다가와 발을 탕탕 굴렀다.

《예, 예… 그 륙실할 놈의 오솔길때문이라 이제…》

애비가 포주의 말을 가로챘다.

《오솔길로 다니지 못하도록 또 방비책을 세운다한들 그게 될상싶으냐? 가난뱅이들에게 돈을 내주어 고개길을 따로 내야 해.》

《아니?! 돈을 주다니요?》

《네 이놈, 조상보다 돈이 더 귀하냐, 조상을 구박하는 죄로 네놈이 천벌을 받겠느냐? 관속에 네놈이 돈을 묻어놨다면 내 그 돈으로 고개길을 내겠지만 나 쓰라고 어디 동전 한잎이나 줬느냐? 이놈, 불효막심한 이놈!》

애비의 갈퀴손이 얼굴가까이로 덮쳐들었다.

악!— 포주가 비명을 지르며 깨여나니 주르륵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살아서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고개길을 따로 내야 한다. 그런데 그 돈은 얼마? 백냥? 고개길을 닦는 인부들을 사들이고 먹이려면 좀 빠듯하기도 하지. 그걸로 밀어보자. 그것도 그놈들의 기를 죽인 다음에 선심을 쓰는것처럼 내놓자.)

다음날 포주놈은 마름과 함께 안릉골로 발길을 향했다.

《오솔길로 개, 돼지를 끌고갔던 놈이 누구냐? 당장 나서지 못할고?》

백석이와 득범이가 어정어정 나왔다.

《네놈들이 분명한고?》

《그렇소이다.》

《제상의 음식을 뒤엎은 죄를 아는고?》

처음 듣는 말이라 마을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렇소이다.》

제놈의 눈길과 마주치는 백석이와 득범이의 눈찌가 사나운것을 본 포주놈은 흠칫 놀랐다.

(아니, 저놈들이 바로 나에게 땅을 빼앗긴 백서방, 오서방의 자식들이 아닌가. 그새 저렇게들 컸는가? 저놈들의 저 사나운 눈찌는 분명 네놈은 우리 땅을 빼앗아 인삼포로 만들고 우리 아버지들을 비명에 돌아가게 했는데 그까짓 제상이 뭔가고 대드는것이다. 아!—)

마을사람들의 기를 죽이겠다던 마음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포주놈은 몸마저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 선친의 묘결으로 다니면 안되겠고 그래서 내 돈을 대줄테니 고개길을 닦는게 어떤가?》

마을사람들에겐 뜻밖이였고 영문모를 일이였지만 오솔길을 낸 일이 오늘에야 매듭을 짓게 되였다는 생각에 백석이와 득범이는 빙긋웃음을 지었다.

《포주님, 돈을 얼마나 내시려는지…》

《마을앞에 있는 이 산을 곧바로 톺아올라 고개길을 내면 성안으로 가는 길이 시오리는 줄어들거라 내 선친에게도 좋고 이 마을에도 리익인즉 우리 집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백냥을…》

득범이가 놈의 말을 도중에 잘라버렸다.

《포주님, 고개길공사가 반년이 될지 한해가 될지 모르고 그동안 숱한 인부들을 쓰자면 백냥은 어림도 없고 적어도 오백냥쯤은 있어야 하겠소이다.》

《이놈아, 오백냥이 뉘 집 애이름인줄 아느냐? 네놈이 죽을 때까지 열냥이나마 쥐여볼것같으냐?》

이렇게 이놈, 저놈 욕을 퍼부었지만 백냥은 빠듯할거라고 짐작했던지라 오백냥을 그대로 주기로 작정했다.

《아니, 오백냥도 모자랄것같소이다. 천냥은 있어야 고개마루에 샘터를 파고 향나무도 떠다심고 더우기는 하루일을 끝낸 인부들에게 막걸리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소이까?》

다음순간 터지는 백석이의 말에 놈의 눈은 아예 뒤집혀질 지경이였다.

《천냥?! 이놈아, 우리 집 재산의 절반을 뚝 떼여내도 천냥은 안된다. 고개길을 내지 못한다 해도 천냥은 어림없다. 이놈!》

포주놈은 팔을 휘저으면서 마을을 떠났다.

《그만두시구려. 그럼 우린 예전처럼 오솔길로 다니겠수다.》

등뒤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들으며 포주놈은 이를 박박 갈았다.

(저런 고약한 놈 봤나? 《소이다》를 이젠 《수다》로 바꿔? 그리고 뭐 오솔길?)

그날 밤 꿈에 갈퀴손을 든 애비가 또 장지문을 열었는데 하얀 뼈가 보이는 손이 두눈을 찌를것만 같았다.

《이놈아, 불뭉치를 든 놈들이 저 고개를 넘어오는게 네놈 눈깔엔 보이지 않느냐? 땅을 빼앗긴 분풀이를 하자고 백성들이 집을 불사르자는거다. 천냥을 내놓아라. 그래야 오솔길이 없어져 나도 편안하고 이 집도 무사하다. 어서 천냥을 내놔라, 천냥을!》

다음날 아침 천냥을 실은 달구지가 삐거덕— 삐거덕— 안릉골로 떠나갔다.

천냥, 천냥 외워대며 엎어지고 기여가며 대문을 향해 허우적거리던 포주놈의 손도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말았다.

마을에 이른 달구지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득범이, 마대들에서 돈을 쏟아놓고 마름과 함께 세여보게.》

《아… 아… 한푼도 흟지 않는다니까. 세여보기나새나.》

당황해하는 마름이 이상스러워 한나절이나 되여서야 돈셈세기를 끝냈는데 스무냥이 모자랐다.

《내 이럴줄 알았어. 득범이, 이 달구지를 끌고 다시 성안으로 들어가서…》

《아… 아… 그 스무냥은 여기 있네.》

마름이 소매안에 감추었던 스무냥을 절렁절렁 내놓자 마을사람들은 웃음판을 터쳤다.

그날부터 고개길을 닦는 역사가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인부들이 오고 듬뿍듬뿍 백미밥, 고기에 막걸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 덕에 보리밥으로 배를 채우던 조무래기들도 백미밥에 성수가 나 삼태기로 흙을 나르고 베여낸 풀들을 져내렸다.

고개길역사가 다 끝난 날 마을사람들은 고개마루에 모두 올라서서는 성안으로 가는 길이 시오리나 줄었다고 어절씨구 춤판을 벌렸다. 고개마루에 파놓은 옹달샘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 백석이와 득범이에게 주면서 조무래기들은 물었다.

《고개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 고개이름을 무엇이라 부를가요?》

백석이와 득범이는 마주보며 뜻있는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입에선 똑같은 말이 터져나왔다.

《천냥고개!》

그때로부터 개성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의례히 이 고개를 오르내렸거니와 고개마루에서는 시원하게 샘물을 마시면서 인삼포주의 꿈자리이야기로 폭소를 터뜨리였다.

오랜 세월 찍혀진 발자국들에 고개길은 넓어졌다. 하지만 높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솟아있으면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속에 참으로 꼭 있어야 할 천냥고개임이 분명하다.

연싸움

덕재는 개성의 동쪽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다.

이 언덕아래로 옹기종기 초가집들이 쉰나문채 널려있는데 이 마을을 덕재마을이라고 부른다.

덕재마을로 가는 길 한옆에 초라하게 서있는 덕남이네 집에선 할아버지와 동생 덕신이 이렇게 세식구가 살고있다.

덕남이는 덕재마을에서 태여났다고 해서 덕남이, 덕신이는 덕재마을의 신동이가 되라고 덕신이라 이름지었건만 집안살림이 하도 구차하다나니 덕남이는 글방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부모들과 농사를 지었으나 그래도 덕신이만은 공부시키자고 자그마한 글방에 보내였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간 후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 동생만은 기어이 공부를 시켜보겠다고 덕남이는 땔나무를 팔아 강미돈도 내고 집살림도 이어나갔다.

덕재우에는 평평한 바위가 깔려있는데 덕바위라고 부르는 이곳은 동네애들이 연띄우는 장소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거칠것이 없이 탁 틔여서 연날리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였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면 아이들은 연자새와 연을 들고 덕바위로 모여들어 서로 승벽내기로 연띄우기경쟁을 하였는데 제각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는 연을 날렸다. 연은 바람을 타고 오르고 아이들이 연자새를 돌려 연에 맨 실을 풀어가느라면 연은 공중으로 날고 그중 제일 높이 그리고 제일 멀리 뜬 연이 경기에서 1등으로 된다.

경기에서 다른 한가지는 연싸움이다. 옛날부터 두명씩 짝패가 되여 날리는데 연줄에 갖풀을 바르고 거기에 사금파리가루를 묻혀 연을 날려 서로 연줄들을 걸고 비비면서 그중 한 연이 다른 연의 실을 끊어 떨구는 수준이 있는 경기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조마조마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개성의 곳곳에 연띄우기터가 있고 동네에서도 날리지만 굴뚝들과

큰 나무가지에 걸리기도 하여 연띄우기에서 한다하는 애들은 여기 덕바위를 찾아오군 했다.

연띄우기에서 덕남이는 남달리 솜씨가 있어 그가 덕바위에서 연을 띄울 때면 아이들이 와― 주위에 몰려들었다. 왼손은 연자새를 잡고 연줄을 풀면서 오른손으로 톡톡 잡아당기면 연은 인사하듯 연신 까닥거리면서 공중으로 높이 오른다. 연자새를 반대로 빠르게 돌리면 연줄은 늘어지고 연은 거꾸로 서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줄을 밑으로 잡아내릴 때마다 연은 병아리를 노리는 새매처럼 땅바닥을 향해 내리꽂혔다. 땅바닥을 거의 스칠무렵 연줄이 팽팽하게 연자새를 돌리자 연은 바로서면서 공중을 향해 까마득히 씽씽 날아올랐다.

땅에 떨어질듯싶어 가슴조이던 애들이 《야―》 탄성을 내질렀다.

덕남이가 연자새를 슬쩍 눕히고는 연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연은 옆으로 눕고 재빠르게 연자새를 돌리면 연은 오른쪽으로 누워날았다.

연자새를 오른손으로 바꿔잡고서 왼손으로 연줄을 잡아채니 이번엔 연이 왼쪽으로 누워날았다. 오른쪽, 왼쪽으로 연줄을 옮기는데 따라 연은 좌우로 머리를 돌리면서 춤을 추었다. 하늘은 덕남이가 날리는 연의 교예무대였다. 연자새 세개를 들고서 가오리연, 꼬리연을 번갈아 날릴 때면 아이들은 한번 더 보여달라고 졸라댔다.

이런 연띄우기시절도 덕남이에겐 점점 멀어져갔으니 그땐 아버지, 어머니가 있던 때였다. 그러나 이제는 집안살림을 돌보느라고 언제 한번 덕바위에 오를새가 없었다.

덕남이는 낫을 지게에 꽂고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컴컴한 새벽에 산으로 올랐다. 이쯤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 세식구가 연명할 좁쌀이나마 구하고 동생 덕신이의 학비도 마련할수 있는것이다.

덕남이가 나무짐을 지고 장마당에 이르니 얼마나 번잡한지 제대로 발걸음을 뗄수조차 없었다.

《콩나물 사시오, 콩나물이요―》

《황강포나루에서 새로 들어온 칼치, 조기요. 물좋은 생선이요―》

《흰떡, 찰떡, 쑥떡이라오. 솔향기 풍겨나는 송편이요―》

덕남이가 지나가는 곳마다에서 저마끔 목청을 돋구었다.

(나도 소리를 좀 쳐볼가?)

나무를 사라는 말이 차마 입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처음이 되여 그렇겠거니 하며 《나무 사시오, 나무요-》 뽑아댔으나 입안에서만 맴돌뿐이였다.

고무신짝을 어깨에 둘러멘 장사군이 지나가다가 꽥 소리를 질렀다.

《어떤 놈이 이따위 때지도 못할 풀단 같은걸 지고 좁은 길목에서 헤덤벼쳐? 몸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는데 이 귀한 눈을 찔렀으니 그래, 네놈이 팔백냥을 줄테냐, 이놈아!》

이 고함소리에 목을 움츠리고 들어보니 목소리가 걸걸한게 주먹도 쇠덩이가 분명할것인즉 그 쇠덩이가 언제 날아올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쪼끄만 애구나! 너를 두고 네 애비는 어디 갔다는거냐? 그 애비도 무정하구나.》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네 애비는 정말 무정토다. 이렇게 고생시킬바에야 왜 이런 험한 세상에 나오게 했을고? 나처럼 훨훨 팔도강산을 다니며 고무신장사나 하는게 현명한 처사렷다. 네 처지 불쌍한들 내 목구멍도 포도청이라 엽전 한잎 보태줄수 없으니 이 메마른 가슴속에도 눈물은 있구나. 싸구려- 싸구려- 내 고무신 싸구려.》

고무신장사군이 황새처럼 긴 다리로 너풀너풀 지나가길래 덕남이는 픽 웃었다. 장사군들은 그래도 돈푼이나 좀 있는줄 알았는데 모두 끼살이, 하루살이들이라 그래서인지 용기도 생겼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이 소리를 웨쳐대며 머리에 부루쌈을 이고 가는 아낙네사이로, 두두- 육고집으로 돼지를 몰아가는 사람들사이로 빠져나갔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그 목소리도 점차 익어갔다.

《흥, 풀나무구만.》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사주는가 했더니 이 말을 뇌까리고는 흩어져갔다.

덕바위아래에 자리잡은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문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나무 한단도 팔지 못하고 집에 들어서는 덕남이를 애처롭게 쳐

다보며 내리는 짐을 거들어주었다. 풀나무면 뭐라냐, 해빛에 말리워 아궁에 넣으면 잘 탄다며 할아버지는 덕남이를 위로해주었다.

다음날엔 도끼로 작은 나무들을 찍어서 가지런히 추려 장마당에 들어섰다.

《어험, 어제 반갑게 만났던 꼬마나무군이로구나. 챠, 이런 생나무를 누가 사겠나? 쯧쯧.》

수다스러우면서도 고마운 고무신장사군은 땔나무를 한번 해본적은 없어도 팔도강산을 돌면서 보는것도 듣는것도 많아 그런지 땔나무를 하려면 삭정이를 찍어라, 삭정이란 큰 나무에 달린 바짝 말라든 죽은 나무가지라 그런것을 해와야 저마다 사겠다고 성가시게 군다며 히쭉 웃기까지 하였다.

이번 나무짐도 허탕이라는 생각에 돌아서는데 어떤 아낙네의 목소리가 덕남이의 발목을 잡았다.

《너 덕바위아래집 덕남이가 아니냐?》

돌아다보니 두부점앞에서 나는 소리인데 덕남이네와 이웃하여 살던 뚱보어머니였다.

《에그, 옳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 네가 대신 그 고생살이멍에를 졌구나. 어서… 어서 들어오너라.》

인차 상이 펴지더니 순두부를 가득 담은 뚝배기가 올랐다.

머뭇거리는 덕남이를 상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뚱보어머니는 두부장사나 해보자고 이 장마당으로 이사해 두부점을 차려놓았다는것이였다. 큼직한 두부 한모를 또 내놓으며 이 두부는 할아버지에게 가져다드리고 나무짐은 제가 사겠노라며 돈주머니를 풀어 한잎두잎 돈을 세여주고는 앞으로는 나무를 사라고 목이 쉬도록 웨치지 말고 제창 여기로 가져오라면서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도 씻어주었다.

누구든지 살아가기가 힘겨웠어도 고마운 인정만은 가슴 밑바닥에 흐르고있었으니 두부점어머니를 만난 다음부터 덕남이의 나무장사는 헐해졌고 집살림은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이어져갔다.

이날도 점심때가 거의 되여서야 산에 올랐던 덕남이는 두부점어머니에게 나무를 넘기고 저녁늦게 돌아와 동생에게 글방에서 배운 내용을 물어보았다. 덕신이는 뻥해진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형이 글방에서 배운것을 알겠느냐는 뜻이였다. 자기가 잘 모르는것을

찾아내여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형을 보며 덕신이는 《아니… 아니?》 하고 놀라면서도 야, 우리 형은 글방에 가지 않아도 나 같은건 대비가 안된다고 벌씬거렸다.

덕남이가 동생의 말대로 글방에 가지 않는것도 아니였은즉 그는 아침에 산에 간다고 하면서 동생이 공부하는 글방의 창가아래서 훈장이 가르쳐주는 글을 배우군 하였다. 이날도 창가밑에서 아이들을 따라 공부하느라 늦어서 산에 올랐던것이다.

언젠가는 훈장이 창문을 열고보니 덕남이가 쭈그리고 앉아 그 시간 칠판에 씌여있는 문제들을 땅바닥에 쓰고있었다. 훈장은 글을 배우고싶어하는 덕남이의 마음이 하도 기특하여 자기가 아이들을 배워주는 책들을 남몰래 빌려주었었다. 그러면 덕남이는 그 책들을 가슴에 품고 산에 올라가서는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 글을 썼고 산수문제들을 익히였는데 이걸 아직 동생도 할아버지도 모르고있었다.

(저 아까운 신동이녀석을 썩이는구나. 나무지게에 얽매여 살게 하니 이 늙은것의 죄를 어이할고.)

이런 저녁이면 할아버지는 안타까와 가슴을 두드렸다.

어느날 일찌기 장을 보고 돌아오던 덕남이가 덕바위우로 눈길을 돌려보니 아이들이 몰켜 연놀이를 하고있었는데 얼핏 검은 가죽잠바가 안겨왔다. 스즈끼라는 이름을 가진 왜놈광주의 아들이였다. 얼마전 덕바위마을에 벽돌집을 지어놓은 광주놈은 례성강가의 전포마을에 금전판을 벌려놓고있었다.

덕남이보다 두살우인 스즈끼놈은 몹시 거만스럽고 못돼먹은 놈이여서 마을애들을 보면 거지새끼들이라는 말이 노상 붙어있었다. 그래 동생에게도 스즈끼놈앞에 나서면 안된다고 타이르군 했지만 동네애들과 휩쓸리는 연놀이가 재미있어 덕바위에 간 모양인지 집에는 동생이 없었다.

가죽잠바에 손을 찌르고 연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거만스럽게 보던 스즈끼놈이 불룩한 주머니에서 과자를 한줌 꺼내들었다.

《그동안 연놀이에 무척 배가 고팠겠는데 이 과자나 먹어.》

그리고는 스즈끼놈이 과자를 휘익― 꿰뿌리자 연놀이에 나섰던 애들은 떨어진 연을 거두느라 본척도 안했지만 구경하던 조무래기들은 과자를 주으려고 뿔뿔이 흩어졌다.

《많이나 처먹어라, 이 거지새끼들아.》

스즈끼놈이 또 뿌려던졌다.

조무래기들이 그쪽으로 몰려갈제 덕바위에 오른 덕남이는 과자를 주어든 동생을 보았다.

《덕신아!》

입에 과자를 넣으려던 동생이 굳어졌다.

《이리 내.》

동생은 얼른 손을 뒤로 감추었다가 불이 펄펄 이는 형의 눈길이 무서워 과자를 형의 손바닥에 조심히 올려놓았다. 네모진 넙적한 과자에 조선지도모양이 새겨져있었다.

(이 쪽발이새끼들, 과자를 씹으면서도 우리 나라를 삼키겠다는 섬나라도적놈들!)

손에 쥔 과자가 으드득— 부서져나가고 부들부들 떨리던 그 손이 철썩 덕신이의 뺨을 쳤다.

《이 자식, 쪽발이의 과자를 주어먹어?》

《으앙—》

동생이 뺨을 싸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뭐, 쪽발이놈? 다시 말해봐, 이 거지새끼야.》

스즈끼놈이 다가와서 지껄이자 덕남이가 가슴을 내댔다.

《뭐 거지새끼? 다시 지껄여봐라, 이 쪽발이새끼야.》

불꽃처럼 튕기는 눈빛들이 번개처럼 오고가고 주먹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스즈끼놈이 두살이나 우이고 몸집도 컸지만 붙으면 자신있다고 덕남이는 생각했다.

산발을 타고 바위와 절벽을 넘으며 나무짐을 지고서 억센 힘을 키운 내가 아닌가.

급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덕남이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래일 나하고 연싸움을 하자.》

째진 스즈끼놈의 눈에 살기가 번뜩 비꼈다.

《하하하. 거짓말이 아니지?》

《우리 덕재마을사람들은 거짓말을 몰라.》

경기에는 내는것이 있어야 진짜경기라 너에겐 돈도 재물도 없을게

구 지면 뭘 내겠냐고 스즈끼놈이 다우쳐댔다. 뭐든 하겠으니 네가 정하라는 덕남이의 대답에 쾌재를 올린 스즈끼놈이 주어섬겼다.

진자는 말이 되고 이긴자는 이랴! 쩌쩌ㅡ 잡고서 채찍으로 말궁뎅이를 쳐갈기며 이 덕바위주위를 한바퀴 돌자는것이였다.

그날 밤 덕남이네 집에선 가물가물 타오르는 등잔불이 꺼질줄 몰랐다. 연의 가운데에 뚫리진 둥그런 구멍에 붙인 창호지에는 조선지도가 그려져있었다. 덕남이는 그 뒤면에 얇게 깎은 참대를 붙여나갔다. 참대살대는 꼭같아야지 그 무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공중에 오른 연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 참대살대를 깎느라고 무척 고심했었다.

등불아래서 공부하던 덕신이가 두눈을 깜빡이며 도와줄것이 뭐 없는가고 묻자 덕남이는 그의 볼을 쓸어만졌다.

《지금도 아프니? 내가 래일 과자를 사다주지.》

덕신이는 과자는 없어도 좋으니 래일 꼭 스즈끼놈을 이겨야 한다며 방글거렸다.

덕남이는 장롱구석에 동생이 건사해두었던 사금파리를 꺼내들고 갖풀을 쑤어달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며칠이면 할아버지의 생일인데 저 스즈끼놈과 연싸움을 해서 이겨 할아버지의 생일을 기쁘게 해드릴래요 하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거야말로 생일을 쇠는것보다 더 좋다고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내려섰다. 덕남이는 사금파리를 모아다가 토방돌우에 올려놓고 가루내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깨여진 사기쪼각에 손이 베여 피방울들이 사금파리가루속에 스며들었다. 빨간빛으로 물든 쪼개진 가루를 갖풀에 쏟아넣고 고루 저은 덕남이는 그걸 무명실의 맨끝에서부터 열메터가량 발라놓았다.

(무명실아, 네가 스즈끼놈의 연줄을 끊는 칼줄이 되여주렴.)

다음날 이른새벽 산에 올라 꺾은 삭정이 두단을 가져온 덕남이에게 뚱보어머니는 연싸움을 한다는 말을 듣고 순두부와 모두부를 상에 올려놔주었다.

연자새와 연을 들고 덕바위에 오르니 가죽잠바에 아래다리를 졸라맨 가죽바지를 입은 스즈끼놈이 벌써 와있었는데 그놈의 한손엔 가죽채찍이 쥐여져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덕바위에 오른 덕신이가 그 가죽채찍을 보고는 얼른 아카시아가지로 회초리를 만들어 형의 손에 쥐여주었다. 덕남이는 그러는 동생이 귀여워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제날에 스즈끼놈과 연싸움을 벌리던 아이들도, 조무래기들도 다 모였다.

스즈끼놈과 연싸움을 한다는 소문은 퍼져 덕바위우를 꽉 채운 사람들의 물결속엔 두부점뚱보어머니와 고무신장사군의 얼굴도 보였다.

동풍이 슬슬 불자 덕남이와 스즈끼가 서쪽하늘을 향해 띄운 연들은 스즈끼놈의 벽돌집지붕을 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때 장지문을 활짝 열어제낀 광주놈이 왜놈기발을 머리에 그린 연을 흐뭇이 바라보고있었다.

(아무렴, 저 미개한 무명실이 제국의 실을 어떻게 이겨내? 바위에 머리받기지.)

눈길을 돌린 광주놈에겐 노기가 뻗쳐올랐다. 조선지도가 하늘을 날고있었기때문이였다.

(나쁜 놈, 조선지도를 하늘에 올려? 스즈끼야, 저 조선지도를 얼른 시궁창에 틀어박아라.)

광주놈은 악에 받쳐 중얼거리면서 하늘에 뻗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연을 날리는 덕바위엔 사람들이 꽉 찼지만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두 연은 까마득히 올라 자유로이 날고있었다.

덕남이에겐 스즈끼놈의 연보다 자기의 연이 더 멀리에서 날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안돼. 얼른 잡아당기자.)

연자새를 감아가는 그 찰나 스즈끼놈의 연이 옆으로 누워 빠르게 육박해오기에 덕남이가 감아가던 연줄을 다시 풀어 밑으로 잡아당기니 연은 새매처럼 내리꽂혔다.

《하하하… 이놈아, 비겁하게 도망쳐?》

스쯔끼놈의 빈정대는 소리에 고무신장사군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야,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거들랑 아예 연을 거두어라. 도망치는 꼴이나 보자고 여기에 왔다더냐? 이놈아, 머리가 깨진다한들 왜 돌격, 돌격을 못해? 그러니까 누가 결눈질을 하지 않는 풀나무와 생나무를

꺾어오지. 그럴바엔 차라리 바지를 벗고 산나물이나 캐라. 내 아직까지 싸구려흥정판에서 가난뱅이신세를 벗지 못했어도 오늘처럼 기분잡치는 날이 없었다. 이놈아, 인생이 네 연줄처럼 긴줄 아느냐? 다 끝이 있는 법인즉 조금이라도 길게 살아보자고 도망을 쳐?》

고무신장사군이 퍼붓는 이 욕은 덕남이에게 있어서 고맙기만 하였다. 그의 가슴에서 《후유—》 큰숨이 새여나오고 이마에선 식은 땀이 쭉 돋았다.

(어쩔번했담, 스즈끼놈이 달려든 무명실의 구역은 사금파리가루를 바르지 않은 곳이였으니…)

실을 풀어 연을 공중으로 솟구치게 한 덕남이는 연자새를 감으면서 스즈끼놈보다 앞서게 했다. 의기양양해진 스즈끼놈의 연이 이때를 놓칠세라 사나운 이리처럼 옆으로 누워 날아왔다.

덕남이도 연을 옆으로 눕혀 마주향해 달렸다.

두 연줄이 엉켜들었지만 감긴채로 두 연은 퉁퉁 날기만 했다.

(어느 연줄이 끊어질가? 스즈끼놈의 연줄이 끊어져야 하겠는데…)

두 연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손바닥엔 땀방울이 맺히였다.

(그래, 이젠 열메터구역이야. 연줄을 당기자.)

덕남이는 빠르게 연자새를 돌리며 연줄을 감았다. 두눈을 지그시 감고서…

《야!》

터져오르는 환성과 짝짜그르르 박수소리에 번쩍 눈을 떠보니 왜놈기발을 그린 연은 락엽처럼 흩날리며 떨어지고있었고 조선지도를 새긴 연은 공중에서 유유히 날며 굽어보고있었다.

할아버지와 덕신이 그리고 고무신장사군, 두부점뚱보어머니가 덕남이를 감쌌다.

《덕남아, 네가 이겼구나. 봐라, 조선지도가 이겼어. 우리 조선이 이겼단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얘들아?》

고무신장사군의 떠들썩한 말소리에 《예.》 하고 대답한 아이들이 조선지도가 그려진 연을 향해 두손을 들고 《만세!》, 《조선 만세!》를 웨쳐댔다.

《이것 봐라, 덕남아, 내가 준 순두부와 모두부가 허사가 아니였구나. 경사로다, 경사야.》

두부점어머니가 뚱뚱한 몸을 덩실거리자 동네녀인들도 얼씨구— 저절씨구—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판을 벌리였다.

《장하다, 장해!》

꺽꺽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허리굽혀 인사하고 동생에게 연자새를 물려준 다음 덕남이는 아카시아회초리를 들고서 스즈끼놈에게 다가갔다.

《이젠 엎뎌. 넌 내 말이야.》

《뭐야? 내가 거지새끼를 태워?》

스즈끼놈이 울부짖었다.

《네놈이 먼저 내놓은 내기라는걸 잊지 않았겠지?》

돌덩이처럼 틀어쥔 주먹, 가시가 삐쭉삐쭉 나온 아카시아회초리앞에서 부르르 몸을 떨던 스즈끼놈은 《어디 두고보자.》 하고 이발을 갈고는 넙적 엎드렸다.

덕남이가 놈의 잔등에 올라타 두귀때기를 잡아당기며 《쩌—》 하고 회초리로 궁둥이를 갈겨대니 스즈끼놈은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고 잇달아 폭소가 터져올랐다.

《이 쪽발이놈아, 달리면서 뚜거덕— 소리를 어서 내거라.》

아카시아의 삐죽삐죽한 가시가 얼굴앞에서 얼른거리자 스즈끼놈은 뚜거덕— 뚜거덕— 소리를 내는 속에 냅다 기여갔다.

가죽잠바와 가죽바지가 덕바위에 쓸리면서 넝마쪼박마냥 너풀거렸다.

《일본놈이 말이 되여 뚜거덕— 뚜거덕— 소리를 지르며 달리는구나. 조선이 일본을 올라탔다.》

고무신장사군의 고함소리에 또다시 웃음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이 감히 대일본제국의 기발을 떨어뜨렸느냐.》

허리부러진 승냥이마냥 캥캥거리는 놈은 허겁지겁 덕바위에 오른 광주놈이였다.

《이제 멀지 않아 이 땅도 일본땅, 저 하늘도 일본의 하늘이 될터인데 어느 놈이 감히 일본기발을 떨구었는고?》

지팽이까지 합쳐 세발을 탕탕 구르던 광주놈의 벌건 눈이 아카시아회초리로 스즈끼놈의 엉덩짝을 갈기는 덕남이에게서 멎었다.

《이 조선놈, 거지새끼!》

광주놈의 지팽이가 지끈 내리치자 《아—》 하는 비명속에 덕남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광주놈이 이리 굴고 저리 딩구는 덕남이의 얼굴과 잔등, 가슴팍을 조겨대는데 뒤미처 일어난 스즈끼놈까지 달려들어 구두발로 덕남이를 짓뭉갰다.

《와—》

분노한 고무신장사군이며 두부점어머니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광주놈과 스즈끼놈을 에워쌌다.

《형—》

덕신이가 매달리며 마구 흔들어댔다.

덕남이는 비칠거리며 우뚝 일어나 피젖은 주먹을 부르쥐고 한걸음, 두걸음 그놈들에게 다가갔다.

시뻘건 피가 흐르는 덕남이와 사납게 이그러진 고무신장사군의 얼굴을 마주한 놈들은 공포에 질려 엉거주춤 뒤걸음을 치다가 홱— 돌아서 내빼기 시작했다. 엎어지고 기여가며 벽돌집에 겨우 이르러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

《왱가당— 댕가당—》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덕재마을의 고요를 흔들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들이 광주놈네 집의 유리창을 들부시는 소리였는데 돌멩이는 방안에까지 날아와 집재산을 들부셨다.

《이게 무슨 벼락이냐?》

잠자리에서 깨여난 광주놈과 스즈끼놈 그리고 에미의 앞으로도 돌멩이들이 씽씽 날아들었다.

온밤 부들부들 떨던 광주놈은 이건 분명 덕남이가 한짓이라고 여기고는 덕재마을을 관할하는 관청을 찾아가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앞에 묵직한 돈묶음을 내흔들었다.

《여보 관리나리, 우리 덕남이가 무슨 죄가 있다는거요? 당신은 조선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항의하는 할아버지를 밀어버린 관리는 덕남이를 끌어갔으니 결국은 돈이 끌어간셈이였다.

그날 밤 또다시 돌멩이가 광주놈의 집을 부셨는데 전날보다 더 큰 돌멩이들이 유리창을 깨버렸고 지끈— 지끈— 광주놈의 몸뚱이를 때렸다.

첫날 밤 광주놈네 집에 대한 돌습격이 덕남이의 의로운 행동인줄을 관리는 알고있었다.

그래도 조선사람이라는 량심의 한쪼각으로 덕남이가 잡혀온 그밤의 돌습격을 다행으로 여기고 광주놈을 찾은 관리는 전날의 돌습격이 어디 덕남이의짓인가고 들이대고는 덕남이를 놓아주었다.

감방에서 나온 덕남이를 웃음속에 맞이한 사람은 고무신장사군이였다.

《아저씨, 고마와요. 아저씨의 돌습격이 나를 구원해주었어요.》

덕남이를 품에 안은 고무신장사군의 두눈엔 기쁨의 빛이 번쩍거리고있었다.

《네가 이겼다. 장하다, 덕남아!》

광주놈은 더는 덕재마을에서 살수가 없었다. 돌벼락이 또 언제 터질줄 몰랐고 언제 여기서 제놈의 명이 끊어질줄 짐작할수 없었던것이다.

달빛도 없는 깊은 밤 광주놈은 마차에 가산을 싣고 부랴부랴 떠나갔다. 다만 덕바위만이 삐걱거리는 마차소리를 듣고 쫓겨가는 광주놈의 겁에 질린 꼴을 보았을뿐…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간단히 적는다.

달빛 한줄기 비쳐들지 않는 밤 마차우에서 건들거리는 몸을 부여잡고 터져오르는 분통을 억지로 참으면서 수십리길이 잘되는 전포마을의 금전판에 이른 광주놈은 가죽채찍부터 들었다.

《이놈아, 우리 제국의 실이 무명실도 끊어버리지 못해? 네놈의 연에는 대일본제국의 기발이 그려져있은즉 그 기발이 시궁창에 박히게 해? 어디 맞아봐라.》

광주놈이 든 가죽채찍이 스즈끼놈의 허벅다리와 얼굴에 날아들었다.

《네놈은 조선을 타고앉아야 할 남아라는걸 잊었느냐? 그런데 거지놈은 올라타고 네놈은 말새끼가 되여 아카시아회초리에 벌벌 기여

다녀?》

가죽채찍이 휘감기는 곳마다 벌겋게 부어오르고 랑자하게 피가 흘렀다. 헌데 섬나라족속들이라는게 야생족속이나 마찬가지라 피를 보면 미친 승냥이처럼 더 날뛰는 법이였다.

《네놈의 자식때문에 가산이 박산나고 양옥집을 버리고 도망쳐 왔으니 수치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씻어야 할 수치라는걸 하루도 빼놓지 말고 외워 뼈속에 사무치게 해라. 알겠느냐, 이놈아?》

미친개마냥 지랄을 치다가 새벽이 되여 맑게 개인 덕바위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던 광주놈은 그 하늘에서 금시라도 벼락이 떨어질것만 같아 으드득 몸을 떨었다.

(하찮은 무명실로 일본실을 끊어버린 이 나라 백성들은 슬기로운 민족이다. 어느때든 이들에 의해 우리 일본은 시궁창에 틀어박힐것이다. 아ㅡ)

미친놈처럼 지랄발광하던 쪽발이광주놈은 그만에야 화가 치밀어올라 우구구 거품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다고 한다.

변희철편

화담계곡에 달이 밝다

오월이라 철쭉꽃이 만발한데 신록이 짙어가는 박연골안의 고모담 주변의 널직한 바위우에서도 취흥이 무르익고있었다.

개경의 선비들속에서 그래도 글귀나 잘 주무르고 시구절을 잘 맞춘다고 하는 리규네 젊은 량반패가 한창 피여나는 싱싱한 꽃송이로 장안에 그 이름이 자자한 명기인 명월 황진이까지 데려다가 앉은 상이라 자못 풍성하면서도 틀스럽고 위엄이 풍기였다.

금방 리규가 소매자락을 훌훌 걷어붙이며 짜르르한 시 한수 토해내려는데 이런 제길할…

비척비척 지팽이를 짚으며 옷섶이며 혼솔이며가 다스러질대로 다스러지고 구겨진 도포를 후렁하게 걸친 웬 녀석이 누렇게 뜬 얼굴에 그래도 선비나부랭이라고 끝이 다 닳아진 둥근 갓을 머리우에 얹고서 이 자리를 노려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어쩌는가 하여 한순간 입을 꾹 다문채 말꼭지를 떼지 못하던 리규의 눈동자가 반짝 빛을 뿌렸다.

《아 참, 거기…》

술좌석의 여러쌍의 눈길이 일시에 거지선비에게 쏠렸다.

아름다운 기생들을 척 데리고 앉은 하나하나가 기지가 번뜩이는 젊은 량반들이라 취흥에 가느스름해진 눈들마다 벌써부터 심한 야료와 조소가 차넘칠듯 담고있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아하ㅡ 어른께서 이제야 왕림하시는군.》

그만에야 황진이도 웃음기어린 얼굴에 손을 가져가며 그를 바라보았다. 뭇시선들이 모아지자 약간 당황하였던 거지선비는 그래도 주저없이 마주 들어왔다.

리규가 엉거주춤하며 설레발을 쳤다.

《이리 좀 봅세. 어른께서도 시를 지을줄 알으시오?》

맑은 술이 철철 흘러넘치는 큰 잔을 받아든 선비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어리더니 돌연 생기가 돌았다.

그는 정민수였다.

아무말없이 리규가 내미는 술잔과 함께 육포 한쪽을 받아든 그는 이윽히 좌중을 둘러보다가 조심히 술잔에 입을 대더니 쪽— 소리가 나도록 단숨에 술을 마셔버리였다.

기분좋게 입을 씻고 육포쪽을 우물우물 씹으며 머리를 높이 들고 박연폭포를 바라보던 정민수가 갑자기 《삼천자나 곧바로 날아떨어지니 하늘의 은하수 쏟아지는듯하여라.》 하고 큰소리로 웨쳐댔다.

순간 좌중의 젊은 량반들이 《흐흐—흣》, 《으흐흐흐》, 《하하하하》, 《핫— 하하》 하며 모두가 배살이 아프도록 웃어댔다.

리규는 아예 배를 꼬부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어댔다.

(저 사람이 되게 웃기는구나. 이 자리에 송도의 명월 황진이 앉아있는것도 모르고… 하하하, 하하하!)

황진이도 입을 싸쥐고 가까스로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저 량반은…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도리여 웬 웃음이냐는듯이 눈을 뜨부럭이며 좌중을 빙 둘러보는것이 아닌가.

리규가 손짓으로 뭔가 알으켜주려는데 문득 다시 머리를 쳐든 정민수의 입에서 격조높은 시구절이 쏟아졌다.

《리태백의 이 글귀가 여기에 맞는구나.》

순간 와글거리듯 웃어대던 좌중의 소리가 뚝 멎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정민수는 련이어 뒤를 달았다.

《그러나 려산폭포도 박연만은 못하리라.》

좌중은 물을 뿌린듯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리규는 켕긴 배살을 부여잡은채 웃음을 거두었다.

감탄과 존경의 빛이 일순 정민수의 몸에 부시게 닿았다.

정민수는 좌중의 눈빛은 생각지도 않고 바위우에 펼쳐놓은 음식상에서 술병을 들더니 자기 술잔에 쪼르륵 소리를 내며 쏟아부었다.

그제야 깜짝 놀란 리규가 버선발채로 땅을 짚고 돌아와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형님, 이거 몰라봐서 안됐수다. 자, 어서 여기 웃자리에 오르

시오.》

리규는 정민수를 끌어다 황진이의 곁에 앉혀주었다.

좌석은 다시금 흥에 끓었다.

또다시 몇순배 권커니 작커니 술잔들이 돌았다.

이윽하여 시가락들을 뽑아내는 목갈린 소리들이 박연못가에 날리기 시작하였다.

술좌석의 감초같은 걸죽한 육담들이 고을안의 큰 량반, 작은 량반, 기생집의 안방, 뒤방, 사랑방들을 차례로 훑으며 지나갔다.

누구는 어느 기생과 눈이 맞아 정분이 났는데 서슬푸른 본댁 마나님에게 혼쌀이 났고 또 어떤 량반은 녀편네의 등쌀에 밖으로 자물쇠를 채운 방안에 갇혀 오늘까지 나오지도 못한다느니…

녀편네들이란 참, 량반으로 색이 없으면야 그게 무슨 량반인고, 량반이란 관가에 나가도 열두기생이 줄줄 따를 정도가 돼야겠고 그런 량반과 살아야 존엄이 있는것인데 속되기 짝이 없는 꼬부라진 녀편네들때문에 존엄높은 량반의 지위가 손상당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손해볼거야 그 녀편네뿐이지.

서로서로 이 량반을 욕하다가 저 녀편네를 욕하며 흐흐 하하 웃어댔다.

이때였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들이요. 량반이라고 다 색이 있는게 아니요. 저기 서원의 화담선생님만은 결백하기 이를데없어 색이란 절대 모르시는분이요. 조정의 큰어른들도 어려워하고 많은 제자들이 존경하는 선생이시오.》

정민수의 뒤로 얼른 따라서서 어물거리던 웬 젊은이가 정색해서 하는 말이였다.

그는 서원에서 글을 익힌 오석이다.

《화담선생님은 이를데없는분이시지.》

오석의 말에 정민수가 잇달아 칭찬했다.

(하ㅡ 이 량반 시구절개나 다룰줄 알아 높이 앉혀주었더니 웬 무색소리야, 인생이란 뭔지도 모르는 생둥이가 아니야?)

리규는 흥흥거리며 황진이에게 눈길을 보냈다.

황진이의 입가에도 비웃음이 서리였다.

순간 눈앞에 홀딱 젖은 자기의 몸에 착 달라붙은 모시옷자락사이로 풍겨나오는 살냄새에 숨이 꺽 막혀하던 지족선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른해동안 도를 닦아 생불이라 자칭하던 지족선사의 금욕을 젖은 머리칼에서 풍기는 냄새와 젖은 몸에 착 달라붙은 모시옷자락으로 순간에 끝장내버린 이 황진이앞에서 또 무슨 신선같은 무색을 론하다니?!

사내들이란게 참 어리석기란…

그런데도 초췌한 두 량반은 그냥 화담선생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제자들의 말마따나 화담선생님은 성인이시오.》

그때 말허리를 꺾으며 황진이가 물었다.

《화담선생님에 대해 잘 아시는가요?》

《선생님슬하에 있은지 두해, 떠난지 두해 되오.》

《선생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와요?》

《젊으시였을 때는 유람을 즐기셨는데 지금은 학문을 탐구하시오.》

그러거나말거나 리규는 하늘높이 걸려있는 폭포를 바라보며 무표정히 말을 흘렸다.

《정말 멋진 일이로다. 지족도 벽계도 다 비치는 명월이 화담계곡인들 비치지 못하리오.》

황진이의 가슴속에서도 비웃음과 조소의 피가 끓기 시작하였다.

고양이가 비린내를 피하지 못하듯이 량반치고 색을 피하는 절제가 과연 있을법한 일인가?!

《선생님을 좀 뵙게 해주사이다.》

정민수는 눈알을 꼿꼿이 세우는데 함께 온 오석이 《그거야 못하랴만… 그런데…》 하고 말을 끌었다.

정민수는 눈에 초점을 모으고 가득히 펴놓은 주안상너머 제멋대로 취흥에 잠겨있는 선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리규가 한마디 했다.

《송도의 명월이라면 누가 마다하리오.》

피씩— 오석이 웃었다.

《선생님이 기생을 가까이하실가? 문전거절당할게요.》

리규가 발끈했다.

《그래도 량반이겠지?》

《글쎄, 사람의 속내야 어떻게 다 알겠소만 그래도 선생님은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오직 학문에 한생을 다 바쳐오시는분이니 모름지기…》

그러나 황진이의 눈에는 리규도 오석도 들어오지 않았다.

황진이는 리규에게 이리저리 부탁을 했다.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한다하는 인물인 리규의 눈가에 즐거움이 남실거리고 입귀가 실룩이였다.

황진이는 리규와 함께 제자가 될양으로 서원을 찾았다.

오석이 그의 길안내를 맡았다.

서원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오르자 오석이 당부했다.

《여기서부턴 언행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겠나이다.》

황진이는 화담계곡을 둘러보았다.

비죽비죽한 산봉우리들과 절벽들에서 부딪쳐내리며 콸콸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가슴을 세차게 뒤흔드는데 푸른 수림이 울창한 산마다 철쭉꽃이 무지무지 활짝 피여 타는듯 빛을 내뿜었다.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여있는 푸른 산봉우리며 절벽들아래 파란 하늘이 맑게 비낀 담소는 한폭의 그림마냥 아름다왔다.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슴이 확 열리는 정경이였다.

문득 맑고 쩡한 정기가 넘치는 이 산천속의 서원에서 만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학문을 연구한다는 화담선생의 굳센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상야릇한 불안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산중으로 뻗어간 오솔길우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원에서 내려오는 제자들 같았다.

옷차림을 깨끗이 한 그들은 리규와 황진이를 보더니 한쪽으로 길을 비켜주며 조심히 걸어내려왔다.

서원에서는 누구나 바른편으로 오고가며 항상 도덕을 지키도록 엄격히 요구하고있었다.

황진이는 리규와 더불어 한쪽으로 붙어 마주 올랐다.

《아… 안되겠소, 오늘은 정말 안되겠소. 선생님이 계시지 않소.》

앞서 서원으로 올랐던 오석이 되돌아내려오며 하는 말을 듣자 황진이는 갑자기 마음의 탕개가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일순 긴장해있던 자신을 발견한 황진이는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나서 물었다.

《혹시 어데 가신것은 아니시오이까?》

《먼곳은 아니고 저 고개아래 화정동초막에서 손님을 맞아 술상을 폈다시오. 그러니 오늘은 돌아가야겠소.》

순간 황진이의 눈가에 웃음기가 반짝했다.

《참 잘됐나이다. 우리도 출출한터인데 그렇지 않으시와요?》

오석을 바라보며 황진이가 엉너리를 떨자 리규가 제꺽 받아물었다.

《옳으이, 참 기회가 절로 생기는구만. 이렇게 만나자 술상에 명월의 칠현금소리 계곡에 울리게 됐으니…》

오석은 딱한듯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럼 가봐야지.》 하고 입속말로 우물거리더니 그들을 초막으로 안내했다.

화정동은 서경덕의 본집이 있는 곳이였다.

그앞의 물길을 따라 서원으로 오르는 중간에 자그마한 늪이 있는 평퍼짐한 공지가 있는데 서경덕은 거기에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이따금 낚시질도 하고 술도 마시군 하였다.

그런데 일이 안되게 리규네가 도착하기 전에 산속을 헤매인듯싶은 초췌한 차림의 량반이 초막에서 서경덕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눈에 띄였다.

《이왕이면 잠간 쉬고 가시와요.》

황진이가 제꺽 기미를 차리고 리규와 오석을 찾았다.

초막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격해진 웬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나그네들 말이 초막은 소박하나 산천은 수려하다더니 들은바 그대로올시다.》

《비록 초가이기는 하나 여기 화정동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오이다. 우리 송도땅은 어디나 다 아름답지만 나는 이 계곡에 정이 푹 들었소이다. 이렇게 철쭉꽃이 불타는듯할 땐 정말 볼만한 경치이지요.》

황진이는 그대로 서서 서경덕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수수한 차림이였으나 시원시원하게 생긴 얼굴처럼 몸가짐도 절도있고 나누는 말마디 또한 여물게 뜻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은 이 아름다움때문에 벼슬도 마다하고 이곳을 뜨

지 못하시오?》

《땅에서 나서 숲에서 사는 인생의 멋은 태고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소이다. 산수의 쩡한 정기속에서 심신을 수양하고 자연의 천만아름다움을 마주하여 삶의 백천가지 리치를 깨치니 실로 부러울것이 없고 후회될것이 없는 신선과 같은 생활이로소이다.》

서경덕은 술병을 찾아들고 잔에 기울였다.

갑자기 흑― 하고 울분에 젖은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사화가 참혹하니 명망높으신 화담선생이 여기에 숨어버리고 뜻이 있는 량반들이 높은 벼슬을 단념하는것이요. 지금 권세가들은 그저 읒읒 벼르기만 하는데 장차 또 무슨 화가 터지겠는지…》

《진정하시오이다.》

울분의 목소리를 서경덕이 진정시키려들자 가슴을 탕탕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가슴이 아프오. 인걸이 태여나야 나라에 태평성대가 오련만… 어허허.》

그러더니 타령 같은것을 길게 뽑아댔다.

땅에서 태여나 땅에서 사는 인생
죽어서 땅에 묻히기마련이건만
세상에 나 옳고 큰일 한번 못해보고
쫓기다 흙이 되니 어이 한없으리오

화담이 그에게 술을 권했다.

그들은 조용히 술잔을 맞쪼으고나서 쭉 술을 마셔버렸다.

《만물은 다 자기의 시초가 있고 그 시초 또한 태허의 기가 있는 법이니 종말졌다 없어지겠소? 종말 또한 태허의 기로 가기마련이니 태허에서는 또다시 만물이 생기기마련이 아니겠소. 그러니 세상을 슬퍼할것이 무엇이요?》

황진이는 그들이 나누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수 없었으나 그 누구를 타매하거나 부정함이 없이 세상리치를 깨치면서 하늘에서 굽어보는듯싶은 성인같은 뜻을 느끼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도란 저런것일가? 학문이란 저런것일가? 저런것으로 인생의 희로

애락을 맛볼수 있을가? 아직은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화담선생이라는분이 남들과 다른것은 분명한것같구나.)

오늘은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황진이는 리규에게 그만 서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거기에서 묵다가 화담을 만나던지 아니면 하루밤을 묵고 아침강론에 올라오는 그를 만나자는것이였다.

화담 서경덕과 황진이와의 첫 상면은 이렇게 깨지였다.

…

황진이는 서원에서 서경덕의 착실한 제자가 되여 인생의 새로운 또 하나의 리치를 깨치기 시작하였다.

수십일이 흐르는 동안 황진이는 남들과 꼭같이 조심히 한쪽길로 다니였고 강론장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서경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흐릿하던 마음마저 쨍하게 가라앉혀주는 산천의 정기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즐기였다.

서경덕이 자신과 멀리하면 할수록 가슴속 존경의 마음은 더욱더 커갔다. 이제는 이 화담계곡이 남이 사는 곳 같지 않게 정답게 느껴졌다.

황진이는 요즘 자기의 심장이 여느때와 다르게 높뛰는것을 느끼였다.

조소와 경멸, 야유로 끓던 심장이 존경과 사랑, 그리움으로 끓기 시작한것이였다.

때없이 그리워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보고싶어졌다.

서경덕의 강론이 시작되면 준수한 얼굴의 번쩍이는 눈동자와 가볍게 오르내리는 입귀마저 자기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것을 똑똑히 느끼였다. 그의 숨결은 향기로왔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며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신선의 자태처럼 안겨왔다.

어떤 때는 첫 상면의 야료가 부끄럽게까지 느껴졌다.

《선생님, 제가 듣건대 남자는 가죽띠를 띠고 녀자는 실띠를 띤다하니 가죽과 실은 다르지만 띠는 마찬가지이옵나이다. 그러니 저도 제자가 되여 학문을 배우고싶나이다.》

책대신 칠현금과 술을 내놓으며 하는 황진이의 청을 서경덕은 헌헌히 받아주었다.

《송도장안이 좁다하는 명월이 이렇게 찾아드니 이 계곡에도 여러가지 꽃들이 만발하겠구만.》

그러고는 쓰다달다 말없이 부어주는대로 술잔을 받아 쭉 비우군 하는 서경덕을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바라보던 모습을 생각할 때면 황진이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저런 구실로 차려놓은 술상들에서도 서경덕은 한번도 술을 사양하지 않았고 또 자태를 흐트리거나 도덕에 거슬리는것을 요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았다.

서원의 모든것은 질서정연했으며 서경덕의 류창한 강론은 날과 날을 더불어 더욱 심오해졌다.

제자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풀어가는 서경덕의 강론을 귀담아들을 때면 황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를 굽어보는듯 싶은 일종의 환희까지 느끼게 되였다.

《선생님, 세상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것이오이까?》

《세상이라… 물론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자기의 귀중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지. 원래 이 세상은 모든것이 혼돈되여 태허로 이루어진것이다. 잘 보아라.》

서경덕은 주변의 벼랑이며 바위며 물이며 숲이며를 가리키며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저 높은 벼랑도 부스러지면 흙이 되고 그 흙이 더 부스러지면 가루가 된다.

가루가 더 부스러지면 먼지가 된다. 물도 같다. 저 늪을 다 덮었던 얼음이 봄이 오면 녹아서 물이 되고 그것을 끓이면 가벼운 김이 되여 날아가버린다. 먼지도 모으면 흙이 되고 빚으면 덩어리가 된다.

물김도 맺히면 물방울이 되고 얼구면 다시 얼음이 된다.

《바로 이런것이다. 지금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수는 없으나 가르고 또 가르면 가를수록 먼지들이 태허를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 형상을 이루며 만물을 이루는거지. 바로 기의 맑고 허한것이 무한한 공간에 가득차있는바 크게 모인것은 하늘과 땅을 이루고 적게 모인것은 만물이 된다.》

들을수록 새로와지는 이야기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비길수 없는 서경덕의 풍모를 느낄수록 황진이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알고싶은

것, 보고싶은것이 많을수록 녀성의 몸으로 태여난 자신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나 서원의 제자들은 한미한 가문의 아들들이거나 지어 군역을 피해들어온 어려운 집 자식들인지라 점점 험악해지는 정사에 대해서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등을 끝없이 물어보며 그 대답을 들었다.

서경덕은 그때마다 조금도 탓함이 없이 다 받아주었다.

《옛적에 순아무개는 말하기를 사람은 본시 착하게 태여나는것이 아니라고 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여났기에 나면서부터 자기의것만을 알고 남을 배척한다고 했지.》

그는 호랑이나 승냥이를 비롯하여 세계에는 남을 잡아먹으며 사는 맹수들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 무리의 먹이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맹렬히 싸우는 짐승들이 많듯이 사람도 본시 자기의것만을 알고 태여났다가 부모들과 학당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도덕과 의리에 대하여 배우고 또 국가의 엄격한 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드디여 도와 덕을 깨치게 된다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사람의 본성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과 욕망이며 그것이 자라나면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기때문에 본성자체를 악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해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이야 착한것이 근본이지. 그런데 주위의 환경이 어쩔수없이 악해지니 사람도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것이라고 말이다. 허나 보다 더 중요한것은 례의라고 본다. 례의를 숭상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성인이 있어야 국가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자기 생업에 힘쓸수 있지 않겠느냐?》

훈구파량반들의 악행에 대해 들을 때면 서경덕은 격해버리기가 일쑤였다. 황진이는 불타는듯 이글거리는 서경덕의 눈빛에서 그가 결코 마음이 착하거나 온화한것만을 주장하는 선비가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나라의 기본인 량반은 관직을 맡으면 백성을 하늘로 알고 그들을 위해 힘써야겠는데 지금은 일단 벼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나 자기 살 궁냥부터 하고 백성의 등을 긁어 우로 뢰물만 고이려고 하니 나라정사가 잘될수 없는것이다. 간신들이 득실거릴 때는 백성뿐

아니라 임금도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비록 람루한 옷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으나 세상의 리치를 한가지라도 더 알고 깨치려고 애쓰는 제자들을 보며 서경덕은 자주 격려해주군 하였다.

《옛글에 이런 글귀가 있느니라. <화기애애한 군자여! 어찌 사람을 양성하지 않는가.> 옳은 말이다. 배워야 한다. 옛것을 그대로 답습할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을 진심으로 느끼며 이 세상의 옳고그른 리치를 깨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며 나라와 백성이 잘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매일과 같이 듣게 되는 강론이였으나 서경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황진이는 신선과 같은 그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새겨두었다.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숭배의 감정이 량반들에 대한 조소와 경멸로 굳어질대로 굳어진 바위를 틈내고 샘물처럼 쪼르륵거리며 흘러나오고있음을 금할수 없었다.

허위와 가식의 껍질을 날날이 벗기고 흉물스럽고 구린내나는 몸뚱이들을 활 드러내놓게 하던 어지러운 세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 진실한 인간세계의 따스함속에 함뿍 젖어들고싶어졌다.

서경덕이 곁눈 한번 팔지 않을수록 점점 더 심장가까이로 불어오는 그의 숨결을 느끼며 황진이는 생각을 깊이하게 되였다.

싸고 싸고 또 쌀수록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서경덕에 대한 숭배의 감정으로 온몸이 활활 불타는듯싶은감을 느낄 때마다 밤이 깊도록 서원앞의 언덕우에서 하늘의 별과 달을 벗하여 마음속으로 속삭이군 하였다.

허나 서원의 낮과 밤은 스승과 제자들의 물음과 강론속에 덧없이 그냥 흐르는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그처럼 가슴조이며 기다리던 기회는 끝내 찾아오고야말았다.

이른아침 군역을 피해왔던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한낮에 남아있던 제자들마저 말미를 받고 떠나가버리자 서경덕은 황진이에게도 떠나갈것을 요구했다.

《진이는 여기 서원이 어울리지 않아. 이제는 배울것도 별루 없으니 그냥 돌아가는것이 나을듯싶네!》

황진이는 심장이 높뛰고 가슴이 두근거리였다.

《화담계곡의 진정한 밤을 즐기고싶소이다. 명월이 과연 이 계곡우에 언제까지나 떠있을수 있겠는지… 호호호, 선생님은 이 화담을 떠날 생각이 없으시나이까?》

황진이의 기뻐하는 모양을 느슨한 미소속에 바라보던 서경덕은 이내 머리를 들고 정든 산천을 천천히 둘러보고나서 나직이 말을 내였다.

《글쎄, 학문을 터득하는 일이 산천과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만 나는 이 계곡을 떠날것같지 않구만. 내가 태여나고 자라난 곳이며 또 나를 키워준 어버이와도 같은 곳이거던. 사실 내가 깨우치는 학문도 궁극에는 내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겠나?》

그날 저녁 황진이는 서원앞에 돗자리를 펴고 자그마한 술상을 차려놓았다.

선생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는 그의 청에 자리에 앉은 서경덕은 칠현금을 뜯고 시조가락을 읊조리며 자주 부어주는 맑은 술을 흐뭇하게 받아 선선히 마시군 하였다.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하고싶은껏 부르는 황진이의 진정어린 아름다운 노래와 선률은 점점 깊어가는 어둠속 멀리로 끝없이 울려갔다.

아름다운 계곡이 푸릿한 달빛속에 잠기였다.

씨르륵— 씨르륵— 풀벌레소리가 고요한 계곡에 메아리치며 귀가 멍멍하도록 들려왔다.

여물어 떨어질듯 별들마저 총총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였다.

서재에서는 고즈넉한 정서속에 한대의 초불이 너흘너흘 춤을 추며 소리없이 타고있었다.

늦게까지 칠현금을 뜯으며 황진이가 쳐주는 술을 쭉쭉 받아마시던 서경덕은 바야흐로 취해서인지 서원안의 노전우에 비스듬히 누워 고르로운 숨소리를 내며 편안히 자고있었다.

서경덕이 편히 쉬도록 그냥 칠현금을 뜯으며 정깊은 노래를 불러주던 황진이는 이윽고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함함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발볌발볌 서원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방은 고요한 어둠속에 들었지만 무엇인가 이글거리는 황진이의 아름다운 눈동자는 별빛으로 빛났다.

매끈하고 얇은 문발과도 같이 하르르한 겉옷을 사르륵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이밤 하늘의 선녀보다 더 아름다왔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해오는감을 느꼈다.

한번도 부끄러워해본적 없는 그의 심장이 오늘은 웬 일인지 향방없이 뛰며 연신 볼에도 발깃발깃 홍조를 피워올렸다.

아, 저런분을 내 일생에 한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모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한걸음한걸음 발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면서도 걸음도 손길도 자꾸만 굳어진다.

황진이는 《호-》 하고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고는 서경덕의 옆자리에 가지런히 누웠다.

그러자 웬 일인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누리가 황홀해보이였다.

서경덕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르로운 숨을 그냥 내쉬고있었다.

(정말 선생님은 나에게 아예 무관심하신것일가, 그래도 사내가 아닌가? 아니, 아니야. 이건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선생님을 사모한다. 정말 선생님은 이성에 관심이 없을가? 이제 내가 한번 떠볼가?… 아니, 혹시 이러다 나를 책망하신다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밤은… 이 순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아! 선생님, 용서하옵소서.

황진이는 슬며시 백옥같이 하얀 팔을 들어 서경덕의 목을 조용히 감싸안았다.

그리고나서 하르르한 겉옷자락밖으로 길다랗게 빠져나온 백옥같이 하얀 아름다운 발을 그의 몸으로 넘겨 한몸을 이루려 했다.

숨막히는 행복감에 머리가 어찔어찔했다.

그때였다.

《음-》 하고 나직한 촌티를 내며 서경덕이 흐트러진 머리를 돌리였다. 무엇인가 따뜻하고 말큰한것이 자기를 감싸안음을 느끼자 서경덕이 조심히 빠져나오려고 몸을 뒤채는 순간 부드러우면서도 향기론 살결이 입술에 닿았다.

《원, 이런…》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뜬 서경덕이 둘러보니 황진이가 자기를 감싸안고 누워있는것이 보였다.

서경덕은 조심히 자기의 몸을 그러안은 녀인의 하얀 팔이며 하들하들한 치마주름이 훌 걷어올린 부드러운 흰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뒤로 옮겨놓았다. 황진이는 눈을 뜰수가 없었다.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였다.

《허, 몹시 피곤한게로구만, 입은채로 눕고…》

서경덕은 이내 황진이의 몸이며 다리를 편안하게 바로잡아주고나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서재인지라 깔개 하나, 이불 한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기의 후렁후렁한 덧옷을 벗어 황진이의 몸을 꼼꼼히 덮어주고나서 움쭉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훤한 달빛아래 산천은 푸릿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늘에선 또랑또랑한 별들이 영글어 떨어질듯싶었다.

열정적으로 밤의 선률을 뜯던 풀벌레들이 아쉬운듯이 모두 입을 다물어버리였다.

서글픔과 아쉬움과 타매의 감정이, 뒤끓는 가슴을 부여안은채 황진이는 이슥토록 누워있었다.

발랄한 재기와 샘솟는 야유로 이 세상에 무서운것, 두려운것을 모르던 황진이가 이밤에는 아예 딴 사람이 되여버린것이였다.

《혹시…》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는 이내 그어버리였다.

여기 서원에 와서 오늘까지 지금껏 느낀 모든것이 그대로 체현된 서경덕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는 씩— 하고 웃어버리고말았다. 그러자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다. 지어 행복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는 뜨거운 얼굴을 서경덕의 덧옷자락에 살며시 박고 풍겨나오는 체취를 한껏 들여마시였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문밖에서는 사색깊은 서경덕의 발자국소리만 가락맞게 쿵쿵 울려왔다.

(선생님, 선생님을 알게 된것은 제 한생의 행운이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속의 해빛이나이다. 선생님은 사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에게 깨우쳐주신 스승이시고 신이옵니다. 저는 선생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것이옵니다.)

이윽고 황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단정하게 머리를 모아붙여 쪽지고 나선 그의 모습은 다시금 황홀해졌다. 어깨우에 후렁한 서경덕의 덧옷을 걸친 황진이는 조심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우중충한 산발들사이로 푸릿한 하늘가에 서경덕의 우상이 거룩하게 비껴있었다.

《선생님, 춥지 않으시나이까?》

황진이의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리자 서경덕은 깊은 사색속에 잠기였던 머리를 돌렸다.

《아, 진이로구만. 퍽 피곤했던 모양이지. 그래 잠은 잘 잤나?》

우선우선하면서도 정깊은 서경덕의 목소리가 황진이의 시원하게 넓어진 가슴속으로 활활 쓸어들었다.

《선생님의 고결하고도 높으신 성덕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잠을 잤나이다.》

그의 말에 서경덕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명월의 문장은 역시 뜻이 깊고 존경이 가는구만.》

황진이는 기쁨에 넘쳤다.

문득 며칠동안 생각하고 생각해보던 《송도삼절》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유모아마냥 웃음속에 피여올랐다.

《선생님, 송도에 삼절이 있는것을 아시나이까?》

생글생글 웃는 그의 얼굴을 재미있게 바라보던 서경덕이 이내 뭔가 알수 없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했다.

《글쎄,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이다.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아름다움과 슬기로움과 새힘과 희망으로 쏟아 굽이치는 저기 박연폭포와 혼돈과 어둠속에서도 광명과 새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싸안고 도의와 덕으로 순화시켜가시는 화담선생님 그리고 화담계곡우에서 진정한 빛을 안고 밝게 빛나는 이 명월인가 하옵니다.》

서경덕은 허허허! 크게 웃었다.

《그게 무슨 삼절이 되겠나? 박연폭포만은 우리 송도의 자랑이자 이 산천의 자랑이니 손꼽을만한것이고 다른것이야 후세에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고 뜨겁게 남아 불리운다면 모를것이로다. 하하하, 허지만 진이는 역시 재사중의 재사야.》

황진이도 호호호! 입을 싸쥐고 실컷 웃어보았다.

그러자 마음이 즐거워졌다.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높뛰였다.

선생님과 함께 있는 화담계곡의 밤이여! 황진이는 서경덕을 바라보며 뜨겁게 말을 했다.

《저는 선생님만을 존경하옵나이다.》

그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던 서경덕이 웬 일인지 그늘이 비끼는 얼굴을 돌려 푸릿한 달빛에 싸여있는 산천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난 그럴만한 사람이 못되네.》

…

황진이는 정녕 알수 없었다.

저 화담의 가슴속에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고있는지…

하지만 황진이는 왜 그런지 서경덕이 갈망하는 바로 그 세계가 아직은 그 형태가 푸릿하지 않지만 바야흐로 자신의 갈망과 마음까지 합치며 새롭게 태여나고있을것으로 믿고있었다.

…

1546년 서경덕은 생을 마치였다.

일생동안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던 그는 56살 나던 해에 성균관 유생들의 추천으로 후릉참봉으로 되였으나 끝내 병을 구실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일생동안 화담계곡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죽어서도 거기에 묻혔다.

황진이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바로잡으며 리규를 따라 서경덕의 묘를 찾았다.

서사정아래로 환히 트인 언덕우에 서경덕의 무덤이 있다.

제상을 차리고 술을 붓는 황진이의 하얀 두볼로 맑은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이 진이가 왔사옵니다. 선생님만을 해빛처럼 안고 사는 저의 마음속빛을 어찌 꺼버리시는것이나이까?)

가슴속깊이에서 치밀어오르는 오열에 그는 서경덕의 무덤에 엎드려 오래도록 울음을 울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말은 없으시나이까?》

황진이와 함께 서경덕에게 왔다가 그의 인간됨에 반하여 제자가 되여버린 리규가 침통한 빛으로 말을 이었다.

《운명하시기 며칠전에 좀 부축해달라고 하시더니 바로 여기에 나와 서시였소. 저앞의 산등성이며 저기 절벽이랑 한참 둘러보시더니 중천에 높이 뜬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지. 그러더니 문득 <화담계곡의 명월이라.>라고 하시더군.》

황진이는 서경덕이 서있던 자리에 이윽히 서보았다.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가는 오솔길아래로 멀리 성안으로 들어가는 큰길이 가로질러간것이 보이여왔다.

(누굴 기다리시였을가? 혹시 나를…)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황진이는 문득 얼굴을 들어 길건너 맞은편에 있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아리숭한 속에 갑자기 그는 그 산봉우리우에 둥실 떠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바로 여기 서경덕의 무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자신이 똑똑히 보이였다.

그러더니 돌연 둥그런 봉분으로 솟는것이 보였다.

(아니, 이런…)

황진이는 소스라치듯 온몸을 떨었다.

자신도 모르게 느낀 운명의 점지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니 황진이 너는 죽어서도 넋은 화담선생님만을 따라가려고 이미 작정하고있었구나.)

그는 서경덕의 무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새파란 하늘 멀리에서 꾸르릉거리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선생님, 선생님을 떠난 명월이란 이 세상에 없나이다. 오직 이 화담계곡우에서만 명월은 만공산할것이나이다. 부디 기다려주소서, 선생님!)

황진이는 비척비척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서경덕이 지켜보던 오솔길을 따라서…

그의 손에는 리규가 들려준 화담의 저작이 들려있었다.

저작을 내라는 그 누구의 권고도 듣지 않던 서경덕이 몸이 편치 않아지자 썼다는 론문이였다.

자기의 몸이 운명직전에 이르렀음을 짐작한 서경덕이 붓을 들어 단번에 써내려간 론문은 한생토록 마음속으로 다스리고다스려온 《원리기》며 《리기설》, 《태허설》과 《귀신사생론》이였다.

이미 강론들에서 들어보았던 서경덕의 심오한 사상이 집대성된 론문이였다. 리규가 들려주는 운명직전 서경덕의 모습이 눈앞에 생시처럼 보이여왔다. 림종의 시각 이틀째나 의식없이 누워있던 서경덕의 두 눈이 스르르 떠지였다.

《선생님! 선생님!》

울음섞인 부름소리가 들려오자 서경덕은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몽롱하게 어렴풋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내 똑똑히 보이였다.

《그런데 자네들은 왜 우나?》

제자들이 울음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은 이틀째나 의식없으셨나이다. 불러도 깨여나지 못하셨소이다.》

《그래?》

서경덕은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나서 물었다.

《내 책이 어디에 있나?》

리규가 얼른 서경덕이 쓴 론문을 묶은 책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한해동안 온 심혼을 다 바쳐 쓴 글이였다.

아니, 한생의 총화라고 할수 있는 저서였다.

마음속으로 터치고싶었으나 터칠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반드시 남겨놓아야 이 세상의 모든 론난을 맑게 거스르고 광명과도 같은 빛을 줄수 있는 귀중한 저서였다.

서경덕은 주글주글한 주름이 얽힌 손으로 가슴노리에 놓은 책을 꽉 부여잡고 쓰다듬었다.

《귀중한것이야, 아주 귀한것이야. 자네들도 읽어보았겠지?》

《예,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던 모든것이 한눈에 확 안겨오는 귀중한 진리옵나이다. 혼탁되였던 모든것이 자기의 모양을 정갈하게 드러내놓고 흐리흐리하던 세상이 쩡하게 들여다보이나이다.》

작아진 동공을 쪼프려 대들보우에 쏘는듯이 눈길을 얹은채 서경

덕은 말했다.

《이제 론난이 복잡할거네. 그러나 그네들이 알아줄 때는 꼭 올거네. 그래, 오구말구. 세상의 리치가 또 그런것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중간에 잃어버리지 말구 후세사람들에게 전하여 동방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라구.》

흐느낌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왜 슬퍼들 하나? 울음들을 거두라구. 난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죽기는 매한가지인거구. 그러나 삶과 죽음의 리치를 이미 안지 오래니 내 마음은 편하네.》

다스러지고 해여진 저고리의 팔소매에서 쑥 삐여져나온 여위고 마른 가느다란 팔을 들고 서경덕은 가슴우의 책을 힘겹게 들어 내밀었다.

그리고나서 초롱초롱해지는 눈길을 들어 담담히 말을 이었다.

《방금 꿈을 꾸었는데 어머님께서 불러 찾으시더군. 날 보고 이제는 나물을 뜯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시지 않겠나? 내가 나물바구니를 찾아보니 글쎄 그 바구니가 저 멀리 산언덕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정말 아이적에 나물을 많이도 뜯었지. 계속 굶으며 살았거던. 그런데도 놀라운건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신선처럼 호사스러운 옷차림을 하고있는것일세. 아마 갈 때가 됐나보이.》

리규는 너무도 가슴이 미여져와 두눈을 뜬채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다. 너무도 가난하여 열네살때에야 겨우 학당출입을 하였다던 선생님이였다. 언제인가는 무섭게 무릎을 꿇고앉아 두해동안이나 학문을 파고들어 나중에는 무릎을 굽히였다가는 펼수가 없어 기여다니다싶이 하면서도 알고싶은 모든것을 다 알고야말았다는 이야기도 떠올랐다.

《성현들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머리로 다시한번 따져보고 자기 식으로 새롭게 들여다보며 옳은 견해를 세운다면 세상에 밝혀내지 못할 사물이란 있을수 없는 법이야.》

《나의 학문은 어느것이나 다 허다한 고생끝에 알아졌다.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때문에 공부를 매우 심각하게 하였다.》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이르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득한 공간에서 끝없이 내리고있음을 리규는 똑똑히 느끼였다.

황진이는 리규의 이야기를 꿈속에서인양 들었었다.

《문득 약동하고 열리나니 누가 시킨것인가? 스스로 능히 그렇게 하는것이며 또 스스로 그렇게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 동정(운동과 정지)하지 않을수가 없고 열리고 닫기고 하지 않을수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것이다.》

중세동방의 가장 뛰여난 철학자의 넋은 세기를 주름잡고있었다.

그의 넋을 어루만지며 화담계곡우에 밝은 달이 오래도록 빛을 뿌리였다. …

죽음을 앞두고 황진이는 부탁하였다.

《죽어서도 화담선생님만을 따르련다. 넋이라도 선생님과 함께 화담계곡에 남고싶구나. 내가 죽으면 나의 무덤을 선생님의 묘소가 바라보이는 맞은켠 그 산등성이에 써다오. 화담이라는 해빛이 없으면 명월이 어이 빛을 뿌리리오.》

그의 유언대로 서사정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산등성이에 명월의 봉분이 솟았다.

황진이는 《꿈》이라는 시에 썼다.

그리워도 만날 길은 꿈속밖에 없사오니
내가 님을 찾아갈제 님도 나를 찾으소서
밤마다 오고가는 머나먼 꿈길이여도
한시에 꿈을 꾸어 도중에서 만나사이다

명인은 명인이 알고 세월이 잊지 않는 법이다.

박연폭포가 없었으면 어찌 황진이가 쓴 시구가 고모담 바위우에 씌여졌을것이며 황진이와의 남다른 인연이 없었다면 어찌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서경덕에 대한 이야기가 그처럼 이 땅의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도 아름다우면서 아쉬운 자욱을 남길수 있었으랴.

화담계곡우엔 오늘도 달이 밝다.

파직당한 류수

개성부 류수로 임명받은 한산 서형순이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부딪친것은 경복궁중건에 필요한 자금을 거두어들이라는것이였다.

아들 명복을 왕으로 내세우고 대원군으로 된 리하응이 왕권의 법도를 세우고 각 지방의 토호들을 눌러놓으며 나라의 세금을 늘여 일정하게 저축하면서 늘 생각한것도 바로 경복궁을 크고 웅장하게 중건하는것이였다. 나라의 임금이 드는 궁전 하나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야 어찌 왕권의 위엄을 론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경복궁중건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관청으로서 해당 관청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바로 그때 개성부 류수로 서형순이 임명되였던것이였다.

《이번에 대감어른께서 개성으로 내려가시면 우선 부안의 돈있는 자들을 잘 설복하여 해당 관청에서 할당한 자금부터 뽑아주어야 할 줄로 아뢰나이다. 지금 나라의 금고는 거덜이 나고 궁전건설은 몇해를 넘기다나니 부족한것이 많소이다. 우리 관청에서도 각 고을들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해줄것을 직접 요구하고있으나 백성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보니 잘 모아지지 않고있나이다.》

조정의 높은 벼슬들에 앉아보았고 례조판서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있던 경력을 잘 아는지라 존경의 뜻까지 표시하며 해당 관청의 관리가 하는 말에 서형순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부임시작부터 돈을 걷어낸다는것이 별로 탐탁한 일이 아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들이라고 내놓겠다고 하겠소?》

서형순이 흐린 낯빛을 지으며 말을 뗐으나 그 관리는 주저함이 없이 확신있게 말을 이었다.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개성은 원래 송상들의 본거지라 그들은 인삼재배와 홍삼판매를 한손에 거머쥐고 여기 경상들과 저 만

상들의 돈줄까지 잡아흔드는 거부들이나이다.》

그것은 서형순도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였다.

개성은 인삼의 원산지였다.

개성의 송상들은 거의 모두가 삼포에 돈을 들이밀거나 직접 땅을 빌려 인삼을 재배하고있으며 홍삼을 비롯한 가공품을 가지고 청나라에까지 팔아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고있었다.

나라에서 개성에 증포소를 내오고 수십만냥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있으나 그건 새발의 피나 같은것이였다.

증포소를 내오는 문제로만도 개성의 송상들과 한성의 경상들이 서로 임금께 상주하면서 여기저기로 옮겨가며 세력싸움을 벌리고있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개인들이 인삼을 몰래 가공하여 파는것만도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니 실로 나라의 금고와도 같은 막대한 돈이 개성부에 깔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당 관청의 관리는 못박아 말했다.

송도땅은 본래부터 고려왕조가 자리를 잡았었고 고려가 무너진 뒤로는 거의 모든 세력가들이 권력에서 벗어나 장사를 하는데로 돌아앉다보니 오랜 축적을 이룬 집이 많은것이라고 서형순은 생각하고 있었다.

수백년의 도읍을 이루었던 도시인데 만만치 않은 고을의 민심을 무시하고 그래 이 류수가 개인들이 인삼장사를 하지 않느냐는 명목으로 집집의 돈주머니를 끄르란 말인가?

(참, 어리석은 작자로군.)

서형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일단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간 돈을 무슨 수로 뒤져내여 빼앗는가 말이요?》

《빼앗는다는건 잘못된 생각이나이다. 이번에 강화의 별무사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수삼세를 받았는데 홍삼판매로도 많은 돈을 버는 그들이 수삼까지 판매하는것으로도 막대한 리를 보고있나이다.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집들까지 큰 리득을 보았다고 하니 그들을 잘 동원하면 어렵지 않게 자금을 모을수 있을것이나이다.》

해당 관청의 관리는 서형순의 생각을 바짝 조여들려고 하였다.

《어쨌든 알겠소. 내려가면 내 신중히 조처하겠소.》

《이건 운현궁어르신의 뜻이오이다.》

서형순은 눈을 똑바로 뜨고 관리를 바라보았다.

허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례를 표시하였다.

《그럼 편히 다녀가시오이다.》

서형순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생각은 없었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운현궁에 틀고앉은 대원군의 손탁에서 이루어지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경복궁중건은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라는것을 조정의 관리치고 페부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때문이였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개성부로 내려온 서형순은 이내 관청의 주요관리들과 함께 부내의 재력가며 영향력있는 인물들을 모두 부르게 하였다. 개성은 인삼의 원산지로 오래동안 쌓아올린 재력의 힘인지 제노라 하는 《영웅》들이 많았다.

그들은 관청의 관리들과 이런저런 련계를 가지고 류수부의 권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었다.

서형순의 첫 부임인사를 받고 축하의 목소리를 높이던 장내는 그가 직방치기로 해당 관청에서 할당된 액수에 대한 문제를 꺼내놓자마자 혼란에 빠졌다.

그 액수가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송상들은 침묵을 지켰고 관리들과 유지들은 큰일난듯이 수군거렸다. 과연 그 많은 돈을 모아낼수 있겠는지 또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겠는지…

돈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번져갈수록 서형순은 입을 꾹 다문채 장내의 사람들을 하나, 둘 조용히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류수의 첫 정사인 이 문제를 안팎으로 잘 처리해야 만만치 않은 개성의 민심을 틀어잡을수 있었던것이다.

물끓듯하던 좌중이 천천히 조용해지며 모두의 눈길이 류수에게 쏠리자 서형순은 결심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시원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관청에서 요구하는 돈이 많은것은 사실이요. 또 나라의 금고가 텅 비여 임금을 모셔야 할 궁전건설이 늦어지고있는것도 사실인것이고… 또 우리 개성부에서만 돈을 곱으로 바치게 되면 안되는것도 사실이고…》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여러 유지들의 말들에 다 일리가 있소. 그러고보면 이 류수자리도 편안치는 못한것이요. 그러나 내 첫 부임인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장담할것은 나는 일단 약속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것이요.》

서형순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장내를 한번 둘러보았다.

긴장하면서도 무언가 기대하는듯싶은 눈길들이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몸에 닿는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수 있었다.

서형순은 낮으나 우렁한 말에 그루를 박으면서 말했다.

《지금 경복궁건설이 자금부족으로 딱 목이 멘 때이라 내 말을 잘 듣고 결심하길 바라오. 장담하건대 속히 요구하는 자금의 절반만 바친다면 내 기꺼이 그대들을 위해 보호해나설것이라는거요.》

서형순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였다.

《어험!》 하고 드디여 한 송상이 좌중의 침묵을 깨면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래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심을 하겠나이다.》

좌중은 삽시에 술렁거렸다.

《그리하도록 하오.》

서형순은 말없이 일어서면서 도포자락을 여미고나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 동헌안으로 들어가버리였다.

서형순의 결심은 맞아떨어졌다.

이틀후에 부내의 모든 부자들이 서형순이 요구하는 자금을 바치였던것이였다.

서형순은 기부한 돈의 전량을 그날로 해당 관청에 실어보내였다.

관청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거 서대감의 손탁이 세긴 세구만. 그 완고한 개성의 부자들이 부임 이틀만에 거액의 돈을 내다니…》

허나 며칠후 그들은 쓴입을 다시고말았다.

《백성들의 재력이 고갈되였으니 나를 류수직에서 파면시켜주었으면 하오이다. 나로서는 그들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할수 없나이다.》

조정에 올려보낸 서형순의 이런 글내용을 알았기때문이였다.

서형순이 류수로서 두번째로 손탁을 보인것은 개성에 숨어들어와 홍삼을 제조하여 청나라에 팔아넘기려던 의주상인에 대한 처리였다.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문제는 개성부내뿐 아니라 나라의 권리와 리익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더우기 권력과 소힘줄같이 련결된 돈줄인 인삼장사군들을 잘못 처리한다는것은 때로 좋지 않은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는 심중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칼을 쥔 싸움군과 칼날을 잡고 마주서는거나 같은것이다.)

서형순은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증포소문제 하나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증포소를 한성에 두는가 개성에 두는가 하는것은 막대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도 있지만 증포소가 있는 곳으로 관청이나 개인들의 인삼이 집중되기때문이였다.

인삼이 있는한 제조는 어떤 경로를 타든지 진행되며 제조된 인삼은 판매와 더불어 그 땅에 리익을 남겨주고있었다.

경상들과 송상들은 이 증포소문제를 가지고 사역원이나 호조 등 중앙의 대신들과 함께 개성류수를 끼고 서로 임금에게 상주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었다.

몇번씩이나 개성에서 한성으로, 다시 한성에서 개성으로 옮겨다녔으나 인삼을 캐는 현지에 두어야 나라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개성류수의 장계로 어쨌든 마지막에는 개성에 증포소를 두라는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군 하였다.

그러나 일단 증포소를 두었다면 개성류수는 감독을 소홀히 할수 없었다. 인삼은 나라의 재력과 같으므로 나라에서는 경상이든 송상이든 만상이든 개인들이 몰래 홍삼을 제조하여 다른 나라에 파는것을 엄격히 처리할데 대한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였다.

개성류수로 부임된 관리들의 가장 골치거리가 바로 그것이였다.

그런데 의주의 상인 하나가 몰래 개성땅에 숨어들어와 홍삼을 제조하여 청나라로 밀수하려다 붙잡힌것이였다. 온 개성장안이 벅적 끓

었다.

《감히 나라의 령을 어기고 국법으로 엄금된 홍삼을 제조하여 청나라에 몰래 팔려 한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옥에 처넣어라.》

벽력같이 울리는 서형순의 고함소리에 의주상인은 벌벌 떨었다.

서형순은 이번 홍삼밀매사건을 철저히 조사할데 대한 령을 내리였다.

《이번 일은 정말 유감스러운것이니 제발 류수어른께 여쭈어 살펴주게 해주시오이다.》

의주상인의 측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정했다.

《무슨 소릴, 내 말을 들을게 뭐요? 괜히 자는 범 코수염 뽑는격이 될수 있소. 차라리 직접 찾아들어가는게 나을게요. 아무렴 돈을 싫다고 할 량반이 있을라구.》

《줄바엔 콱 주어야지 눈치놀음을 하다가는 끝장이요. 홍삼밀매는 극형에 해당한것이니 눈을 꾹 감고 내대야 할거요.》

어떤 축들은 조심히 타일렀다.

그저 사실대로 직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것이 낫지 않겠는가고 말하였다.

《지금 류수가 황해도 관찰사로 갔을 때 자기 록봉을 내여 향교를 보수해주고 수양산성에서 사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 흩어져가는것이 불쌍해 자기가 20만냥을 내서 밑천으로 삼고 살아가게 했다지 않소. 그런 량반에게 뢰물을 찔렀다간 한순간에 끝장날수 있소.》

고민에 고민을 하던 측근들은 결심을 했다.

그래도 먹은 소가 힘쓴다고 먹어서 나빠할 일이 뭣이냐 하는것이였다.

끝내 의주상인은 백만냥의 묵돈을 내여 서형순의 집으로 보냈다.

《이건 뭐냐?》

서형순의 눈이 치째지고 볼편이 푸들푸들 떨렸다.

《이놈이 감히 한 고을의 원까지 돈으로 삶아보겠다니 참으로 간특하기 짝이 없는자로다. 괘씸한지고. 대체 그놈의 목이 몇개나 된다더냐? 이놈—》

분별을 잃다싶이 한 서형순은 노기가 하늘끝에 닿아 펄펄 뛰였다.

《마지막끝까지 조사해서 밀매하려던 홍삼까지 날날이 거두어들여라. 만일 조금이라도 사실을 숨기려는자가 있으면 저 역적놈과 한 배속으로 처형할줄 알아라.》

온 부안이 술렁술렁했다.

《류수가 너무 조이는게 아닐가?》

《홍삼량이 간단치 않다누만.》

수군거리는 위구들을 싹 쓸어버리며 드디여 판결이 내리였다.

《이놈, 네놈이 나라의 인삼을 가지고 국법을 어겨가며 롱간질만 일삼더니 아직도 돈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희롱하려든단 말이냐? 내가 바야흐로 큰일을 하려는데 자기만 잘살겠다고 죽기를 재촉할것 같으냐?》

관가의 모두가 숨을 죽이였다.

《저 역적놈의 목을 베고 홍삼은 불태워버려라.》

서형순의 벽력같은 호령에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홍삼을 불태워버리다니…

송상들이며 부자들, 장사군들의 가슴에 서늘한것이 끼여들었다.

세도줄이 빨래줄같은 돈줄도 가차없이 베여던지는 그 기상, 백만금도 서슴없이 줴던지고 홍삼을 말끔히 불태워버리는 서형순의 완력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큰 충격을 주었다.

완고하고 엄격하기도 한 서형순은 신미년인 1871년 각 도에 있는 서원들을 철페할데 대한 나라의 령을 거역하고 개성땅에 있는 《숭양서원》만을 남겨달라고 고집한것으로 하여 류수직에서 파직당하였다. 서형순이 선비들이 모여앉아 제나름의 지식이나 조정의 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정몽주의 위패가 있는 《숭양서원》을 허물지 못하게 한것은 물론 봉건충군사상에 물젖은데도 있지만 고려의 왕권을 강탈한 리성계일당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개성땅의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비록 몇해를 하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재력과 같은 인삼의 비법적인 류출을 막고 민족의 재부를 지키는데서 엄격한것으로 하여 파직당한 서형순에 대한 이야기는 개성사람들속에서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사신의 행차를 멈춘 별찌

《문곡성이 떴다!》

《문곡성이 떴다!》

우득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는 유난히도 밝게 빛뿌리는 그 별을 똑똑히 보았다.

찬란하게 확 빛나는 모습을…

그 빛을 후광으로 흰 수염발을 드리운 장수가 금빛투구를 번쩍이며 성큼성큼 걸어오는것이 환하게 보여왔다.

《강감찬장수다!》

와－ 하고 사방을 뒤흔드는 환호소리가 울려왔다.

갑자기 승전문의 웅장한 자태가 불쑥 솟더니 그앞으로 백마우에 앉아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답례하는 강감찬의 모습이 점점 가깝게 안겨왔다.

《오호홍－》 백마의 울음소리, 위엄있는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강감찬장수다!》

《강감찬장수다!》

선인문을 넘어 배미산앞을 지나는 큰길에도 온 개경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와 환호하고있었다.

말발굽소리가 앵계숲언저리에서 가까이 울리였다. …

우득은 두눈을 떴다.

그러자 목덜미가 선뜩해왔다.

찬바람이 우수수 일며 앵계의 숲이 솨솨 설레였다.

밤새들이 푸드득거리며 잠자리를 옮겨앉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러니 또 꿈을 꾼것이였다.

우득은 한때 강감찬장군의 수하에서 말구종을 한것을 자랑으로 안고 사는 사람이였다.

우득은 거란과의 세차례 전쟁에 다 참가한 로장이였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강감찬을 만난 때는 천수사앞벌에서 군사

들을 모아놓고 호소하는 그의 말을 잡고 섰던 거란과의 2차전쟁때였다.

993년 고려를 침략하였다가 패배를 한 거란침략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끝에 1010년 두번째로 40만의 대군을 끌고 고려땅에 기여들었다.

놈들은 1차전쟁때의 교훈을 생각하여 빠른 기습으로 전쟁을 속전속결할 야심밑에 큰 싸움을 피하면서 고려의 왕궁이 있는 개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1011년 정월 임금이 피난가고 혼란에 빠진 기회에 개경에 들어온 침략자들은 왕궁과 수많은 민가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전쟁이 엄혹해지고 침략군의 검은 발굽이 도읍까지 이르자 온 개경땅 군사들과 백성들이 떨쳐일어섰다.

강감찬은 군사들과 백성들앞에서 피가 뛰는 호소를 하였다.

《저 강포한 오랑캐들이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고려의 지경을 범하더니 지금은 백년사적이 빛나는 신성한 왕궁까지 어지럽히려 하고있다. 적들은 지금 우세한것같으나 애국의 피를 끓이는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적의 예봉을 꺾고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며 아침에도 치고 밤에도 쳐서 잠시도 안정을 모르게 한다면 며칠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 나중에는 멸망당하고야말것이다.》

우득은 강감찬의 백마를 어루쓸고 어루쓸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군사들과 의병들을 불러일으킨 강감찬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군막에서 피를 토하듯 웨치는 목소리가 우득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토막토막 살이 저며지고 몸뚱이가 갈라지는듯싶은 아픔에 우득의 심장마저 떨리였다.

《아, 우리 태조께서 일으키신 대고려국의 왕궁이 불타다니… 통분토다. 내 이미 우리 왕도를 둘러싼 큰 성이 있어야 함을 그렇게도 간곡히 건했건만 우리가 제때에 성을 수축하지 못하여 임금님과 백성들이 변을 당하게 했으니 어찌 신하로서 머리를 들고 살수 있겠는가. 오직 목숨바쳐 저 오랑캐들을 쳐물리쳐야만 그 죄를 어느 정도 씻을수 있는것이로다.》

우득의 가슴속에서도 분노의 불이 타번졌다.

감히 우리 고려땅을 범하고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가 치솟았다.

그럴수록 강감찬의 피가 쏟아지는듯싶은 말마디들이 뼈와 살에 새겨졌다.

《성! 성! 라성!》

강감찬이 군막에서 나와 말을 타려 할 때 우득은 고삐를 쥐고 인사를 올렸다.

《오냐, 이건 웬 절이냐?》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라나이다.》

우득의 진정어린 말을 들으며 강감찬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우득의 가슴이 쓰려났다.

그의 투구밑에서 흰서리를 보았던것이다.

우득의 눈물이 글썽한 얼굴을 의아히 바라보던 강감찬이 백마의 고삐를 받아들자 여러 장수들이 우르르 모여서며 거듭 간청하였다.

《장군, 혼자서 다녀서는 안되나이다.》

《오늘 당한 치욕을 씻기 전엔 죽을수도 없소.》

벼락같이 백마우에 오른 강감찬은 다시 송악산쪽으로 말을 달렸다.

개경을 둘러싼 방어부대를 단신으로 돌아보며 군사들의 피를 끓이는 강감찬의 모습은 우득의 가슴에 애국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졌다.

우득은 강감찬의 말을 끌어본 자랑을 한생 가슴에 안고 살았다.

전쟁은 승리했으나 전란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조정에서는 성을 새로 쌓는 바쁜 속에서도 리가도가 책임지고 라성건설을 어떻게 하나 끝내려고 하였다. 강감찬은 바쁜 시간에도 자주 라성건설장을 다녀가군 하였다.

송악산남쪽의 왕궁을 둘러싼 궁성과 라성을 둘러싸는 고구려식 외성을 쌓는 일은 수십만의 로력을 들여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왕궁건설로 가뜩이나 많은 재력과 로력을 들여야 하는 때에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은 아랑곳없이 라성을 쌓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으므로 공사는 토성역사마저 자주 중단되군 하였다.

쫓겨간 거란침략자들이 또다시 고려의 변강을 위협하며 전쟁준비

에 광분하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고려조정에서는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임명하여 시급히 방어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1018년 거란의 침략이 기정사실화되는 속에서 나라의 군사통수권을 쥔 상원수로 된 강감찬은 시급히 20만의 방어군을 편성하는 한편 침략의 예봉을 꺾고 거란의 기를 눌러놓기 위한 방책으로 의주 동남쪽 흥화진의 여울목에 소가죽을 엮은 보를 막아 강물을 잡아놓았다.

드디여 전쟁의 불이 일었다.

우득은 첫 승전의 소식을 신계에서 들었다.

《강감찬장군께서 거란의 선봉을 전멸시키셨소.》

온 고려땅이 승전의 기쁨에 설레였다.

호기있게 말을 몰아 강으로 들어서던 거란침략자들을 소가죽으로 막아놓았던 동을 터쳐 혼란에 빠뜨린 강감찬은 1만 2천명의 강력한 기병을 밀어넣어 숱한 주검을 내게 하였다.

하지만 거란침략자들은 어떻게 하나 분노한 고려군사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개경으로 쳐들어가 고려임금의 항복을 받아내려 꾀하였다.

개경을 둘러싼 큰 성을 채 쌓지도 못하고 세번째로 전쟁의 불속에 든 고려의 조정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다.

강감찬은 적들이 함부로 날칠수 없게 여러 성들에서 발목을 붙잡게 하는 동시에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1만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적을 앞질러가 개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군민은 강감찬의 지휘밑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서 거란침략자들에게 가는 곳마다에서 무리죽음을 주었다.

하지만 수적우세를 차지한 적들은 어떻게 하나 싸움을 피하면서도 무모하게 계속 남진하였다.

《모든 백성들은 오랑캐들에게 한줌의 쌀이나 마초도 남겨두지 말며 우물들은 모두 메워버리고 성안으로 들어갈것이다.》

강감찬은 청야전술을 결심하였다.

개경주변 100여리의 모든 백성들이 식량이며 마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물들을 메웠으며 마을들을 비우고 성안에 들어가 싸움준비를 갖추었다.

강감찬은 거듭되는 패전과 군량난으로 적들을 피로케 한 다음 총반격하여 구주부근에서 포위섬멸할 구상을 무르익히였다.

강감찬의 지략에 걸려든 적들은 끝내 신계부근에 이르러 주저앉기 시작하였다.

적들을 피로케 하는 부단한 습격전이 시작되였다. 우득의 부대도 부단한 기습전을 벌려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하지만 이 나날 거란기병과의 싸움에서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우득은 개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어 도망치는 침략자들을 섬멸하는 강한 추격전이 시작되여 강감찬의 지략대로 구주에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승리가 이루어졌다.

우득의 가슴은 세찬 흥분을 안고 높뛰였다.

당년 일흔한살의 나이로 흰 수염발을 날리며 금빛투구를 번쩍이는 강감찬의 모습을 그려볼수록 한번만이라도 만나고싶은 간절한 소원에 격정을 금치 못하던 그였다.

애숭이총각시절부터 시꺼먼 수염을 덮은, 아니 때이르게 흰서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전란의 불속에서 따르던 강감찬의 그 손을 한번만이라도 잡고싶었던것이다.

비록 죽다 살아난 병마속에서 다리까지 잘못 쓰는 페인으로서 홀로 사는 궁색함보다 장군의 휘하에서 군사로 싸우고 두번씩이나 그와 직접 말을 나눠본 행운에 우득은 강감찬의 집이 빤히 바라보이는 앵계의 기슭에서 숲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죽는 순간까지 그와 숨결을 같이하고싶었다.

그러한 결심이 오늘까지 그를 버티여 앵계의 숲과 더불어 그토록 경모하던 강감찬의 산책길까지 지켜주고 그의 말구종처럼 말을 받아주는 사이로까지 되였던것이다.

우득은 앵계의 숲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강감찬의 이야기를 즐겨해주군 하였다.

하늘이 낸 무사! 이것이 강감찬에 대한 우득의 총평가였다.

《우리 강감찬장군이야 저 거란놈들과의 전쟁을 끝장낸 당대의 명장이시오. 임금님께서도 저기 영파역에까지 마중을 나가시여 친히 금꽃송이를 머리에 꽂아주시고 맞아주신 대고려의 장수중의 장수이시오. 이 땅에 태평과 안녕을 가져다준 하늘의 무사이구말구.》

우득은 늘 이렇게 말을 떼군 하였다.

그렇게 말을 떼고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그득 차올라 숨쉬기가 가빠지군 하였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시 개선행차를 맞이하던 그날에 서있는듯이 격동되군 하는 우득이였다.

바로 강감찬이 개선하는 그날에 그처럼 바라던 우득의 소원이 이루어졌던것이다.

개경으로 들어서는 개선행차는 또 얼마나 굉장했던가.

북을 치고 주라를 불며 십리를 흰 수염을 드리운 일흔한살의 강감찬이 임금과 함께 말을 타고 승전문을 넘어 들어서고있었다.

도읍을 가로질러 왕궁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환영군중들의 설레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우득은 배미산아래 방추물골앞에서 개선행렬을 바라보았다.

다리를 절뚝이느라 했건만 아픈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참동안이나 흘러가는 개선행렬을 마지막까지 다 보고난 우득은 어두워서야 앵계의 숲가녁의 나무에 기대앉을수 있었다.

만월대가 있는 궁전쪽에서는 등불이 휘황했으나 개경을 빙 둘러막은 지네산과 룡수산기슭의 골짝들은 고요한 정적에 들었다.

길가로 쭉 늘어선 큰 루각들과 관들에서는 만찬이 계속되였으나 뙈기뙈기 이영을 붙인 초가집들의 등불은 인차 꺼졌다.

그중 굵은 소나무밑둥에 거적을 펴놓고 기대앉은 우득은 한낮동안 손을 대지 못하였던 상처를 처치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말발굽소리가 울리였다.

깊은 밤이여서 유난히 들리는 소리가 가슴에 이상한 울림을 일으켰으나 우득은 인차 부정해버리였다.

(지나가는 길손들이겠지.)

그러나 순간 가슴이 후두둑 떨렸다. 말발굽소리가 바로 이 길을 따라 자신에게로 오고있는것이 분명했기때문이였다.

(누가 이 밤중에 여기로…)

말을 다뤄본 우득은 지금 말이 매우 총명하게 사람을 가려보고 또 자기를 경계하고있는것까지 다 짐작했다. 옆으로 말들이 지나쳐갔다.

그러나 한순간이였다. 오호홍— 길게 울리는 말울음소리와 함께

일행이 멈춰섰던것이였다.

《웬 군사냐?》

우득의 가슴이 높뛰였다. 어데선가 들어본듯싶은 저 목소리… 그것은 강감찬의 목소리였다. 우득이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신계싸움에서 다리를 다쳐 집으로 돌아온 군사이온데 집이 다 없어져 여기서 묵고있는중이나이다.》

가까이로 다가와 우득의 상태를 살펴본 젊은 장수가 재빨리 말을 돌려 달려갔다.

무슨 말인가 잠시 듣는듯하던 백마우에서 고함소리같은 호령이 터져올랐다.

《뭣이, 나의 군사를 길가에서 떨게 한단 말이냐? 괘씸한지고. 당장 말에 태우고 따라오너라.》

백마와 함께 두필의 말이 앞서가고 두필의 말이 우득에게로 돌아왔다.

《그래… 짐이 무엇 있나?》

그중 한 군사가 물었다.

《거적 하나오이다.》

《그까짓거 그냥 버리우다. 말을 탈줄 아시오?》

우득이 스스럼없이 주억거리는 말의 주둥이를 정히 쓸어주자 그 군사는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자, 이 말을 타고 앞서가우다.》

우득은 어떻게 말을 타고 그들을 따라섰는지 몰랐다.

이내 배미산기슭의 나지막한 둔덕우의 큰 기와집의 대문이 열려지고 우득은 거침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대청들에 홍등, 청등을 부시게 달아놓은 큰집이였다.

말들은 거침없이 대문에 들어서더니 마구간으로 향했다.

마구간에서는 근 십여필이나 넘는 살지고 힘센 말들이 귀밀을 씹으며 입김을 내불리고있었다.

그 집이 바로 강감찬의 집이였다.

《상처를 잘 봐주고 이내 데려오너라.》

강감찬의 령이 내리자 젊은 하인들이 그를 훵— 들어다 조용한 방에 날라들인다, 상처를 본다 하며 복닥소동을 펼쳤다.

화농이 되려던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 약재들을 붙이니 우득의 조마조마하던 마음마저 활짝 펴지는듯 상쾌해졌다. 거기에 새옷까지 입고 서니 말쑥한 군사가 되였다. 이윽고 우득은 강감찬의 앞에 나섰다.

마당에 큰상이 차려있고 주위에 여러 상들이 기름지게 차려져있었다.

그새 갑옷을 벗고 평복을 한 강감찬이 한결 노기가 사라진 얼굴로 큰상앞에 앉아있었다.

젊은 장수들이 그앞에 앉아 함께 술을 치고있었다. 우득은 맨 아래쪽 상에 황송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오늘은 기쁜 날이라 상하구별없이 마음놓고 마셔라.》

우득이 어쩔줄 몰라하자 강감찬은 마치 할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디서 싸운 군사더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우득이 머리를 높이 들고 대답했다.

《하늘이 낸 무사를 어찌 몰라보겠나이까?》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시꺼먼 수염을 얹은 장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개여올리는 우득을 바라보는 강감찬의 얼굴에도 한줄기 미소가 어리였다.

《허허, 하늘이 내기야… 무슨 하늘이 냈겠느냐. 굳이 냈다면 나는 백성이 낸 무사일따름이니라. 어허허허!》

강감찬이 호탕하게 웃자 좌중이 술렁대며 화기가 돌았다.

《저는 장군께서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여놓고 사열하시고 오랑캐들을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쳐서 잠시도 안정할수 없게 하라고 웨치시는것을 직접 들었소이다.》

뜻밖에 강감찬의 얼굴에 감개무량한 빛이 어리였다.

애국의 피 끓이며 군사들과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던 싸움의 나날을 돌이켜보게 되니 그처럼 힘겨웁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장구한 전쟁을 끝내 종식시키였다는 긍지 비슷한것이 가슴무둑히 차올랐다.

《그때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지.》

피어린 전쟁을 끝낸 즐거운 마당에서 오래전의 싸움이야기를 그것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듯이 손세까지 써가며 하는 우득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강감찬의 마음은 마냥 흥그러워졌다.

갑자기 대궐에서 한참 론의하던 성건축문제가 불쑥 떠오르자 조금 격해진 강감찬이 슬쩍 말을 띄워놓았다.

《거참 통쾌한 싸움들이다.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군사들이다. 거기에 성이 있었다면 그 잘난 기병놈들이 함부로 나다니기나 했겠느냐? 자칫 잘못하다간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려니…》

강감찬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흰 수염속의 입에서 걸걸한 목소리를 뽑아내자 갑자기 마음이 경건해진 우득이 두손을 딱 맞부딪치며 흥분하여 벌떡 일어섰다.

《옳소이다. 그앞 들판엔 성만 있으면 오랑캐들을 마을들에 들여놓지 않고도 능히 멸살시킬수 있나이다.》

강감찬은 머리를 끄덕이며 우득을 앉으라고 손짓하고나서 하인들에게 술을 더 부어주라고 말하였다.

벌거우리해진 우득이 감지덕지해하는 모습까지 이윽히 지켜보던 강감찬은 그때에야 장내에 대고 많이들 하라고 이르고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사실 강감찬의 마음은 개운한것이 아니였다.

이번 전쟁으로 거란군이 다시는 머리를 들수 없게 타격했다고 하지만 오랑캐들에게 궁성이 불타버린 바로 그 아픔과 뼈아픈 자책이 폐와 장속에 진하게 배여있었던것이다.

(그래, 성을 쌓아야 한다.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집에 오기 전까지도 그는 여러 대신들과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성건설이 늦어지고 이번 싸움에서 적의 예봉을 꺾고 청야전술을 폈음에도 마지막싸움준비를 하여야 하는 때에 가슴을 조이면서 나라의 운명문제를 생각해야 했던 아픔에 대해 론의에 론의를 거듭했던것이다.

누구나 일치하게 성을 쌓아야 한다고는 하나 전란으로 인한 피해를 가시고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일 또한 심각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입밖에 올리기를 꺼려하고있었다.

그런데 하찮게 여기였던 군사까지 성건설의 군사상유리성에 대해 손세를 써가며 말하는것을 듣게 되자 결코 고려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자기 가정의 어려움만을 절대시하지 않을것이라는 신심이 솟구쳤다.

아, 순박하고도 강의한 고려의 백성들이여!

《어찌 대고구려의 혈통을 이은 고려국의 황도에 그를 둘러싼 성이 없이 살수 있단 말인가. 다시는 나라의 사직과 임금님과 백성들의 안녕을 욕되게 할수 없느니라.》

강감찬은 우득이 맘껏 마시게 해주도록 하인들에게 이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일찌기 집을 나선 그는 다시는 오랑캐들이 고려국의 황도를 범하지 못하게 하루빨리 라성을 쌓을데 대한 상주문을 올렸다.

하루속히 라성건설을 끝내라는 임금의 어명이 내려지고 성건설을 책임진 리가도는 강감찬의 엄격한 감독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타협없이 강력하게 밀고나갔다.

강감찬은 나라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분망한 속에서도 성건설장을 자주 찾군 하였다.

우득은 전적으로 승전문건설장에 나가 살았다.

강감찬장군이 개선한 승전문건설은 빠른 속도로 완공되였다.

라성의 남문에서 흙성벽을 쌓아올리던 어느날 우득은 와ㅡ 하고 일어나는 환성에 일손을 멈추었다.

《강감찬장군이다.》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터지자 긴 토성벽에 하얗게 달라붙어 흙을 쌓아올리고 다지던 사람들이 긴 고남고개마루로 와 달려왔다.

어려운 전란의 피해도 마다하지 않고 성건설장에 나와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강감찬의 마음속에서 뜨거운것이 솟아올랐다.

저 군사들과 백성들의 피어린 항전이 있어 강포한 오랑캐들이 감히 이 땅을 범할수 없었고 오늘은 바로 저들의 피와 땀으로 애국의 성벽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의 얼굴에 감사의 빛이 력력히 어리였다.

그는 환호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웨쳤다.

《군사들과 백성들, 우리 고려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왕건대왕께서 세나라를 통일하여 세우신 대국이다. 단군성제께서 일으키시고 동명성왕께서 물려주시고 왕건태조께서 이으신 우리 나라가 어찌 한갖 야만인에 불과한 오랑캐들의 불장난에 유린당할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 성을 쌓아 나라와 백성이 안전하게 하여야 이 나라 군사가 되고

백성된 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우득은 와— 하고 다시 일어나는 환호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강감찬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1029년 8월 끝내 강참찬이 그리도 소원하던 라성이 쌓아졌다.

81살의 로년기에도 수북한 장미를 꿈틀이고 흰 수염발을 신선처럼 드리운 강감찬은 개선의 그날처럼 백마를 타고 멀리 동대문까지 나가 성을 돌아보았다. 성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자 왕은 강감찬에게 문하시중이라는 벼슬을 별도로 하사하였다.

그해 11월 지방순시를 마치고 해주에서 돌아온 현종왕은 성건설에 동원된 모든 관료들을 표창하였다.

고려국의 궁성과 사직을 품고 웅건하게 쌓아진 성을 돌아본 왕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1030년 성건축을 기념하여 여기에 참가한 모든 관료들과 기술자들에게 상을 내리고 부역에 동원된 부, 현들의 세금을 면제하여주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우득의 머리에도 하얗게 흰서리가 내리였다. 허나 그는 늘 앵계의 숲에 나가 살았다. 룡수산기슭에는 그의 작은 집이 세워졌다.

우득은 승전문으로부터 룡수산기슭이며 배미산기슭까지 앵계의 숲에 해마다 많은 나무를 가져다 심고 가꾸었다.

그가 이른새벽 방추물골에 맞닿은 앵계의 숲언저리까지 나가는것은 강감찬장군을 만나볼 기회를 얻고싶어서였다.

강감찬은 새벽이면 백마를 타고 앵계의 숲에 나와 룡수산기슭까지 말을 달렸다가 돌아와서는 우득이 있으면 그에게 말고삐를 넘겨주고 스적스적 숲사이를 건군 하였던것이다.

《네가 나보다 더 빨리 늙는것같구나.》

흰 수염발을 내리쓸며 강감찬이 웃을 때면 우득은 너무도 기뻐 《저는 죽을 때까지 장군의 말구종이올시다.》고 하며 웃군 하였다.

이미 우득이에게서 오늘까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번나마 들은 강감찬은 그때마다 《아들이면 충실한 아들같고 군사면 충신같은 전우이니라.》 하며 껄껄 웃군 하였다.

《황공무지로소이다.》

《하하하하!》

함께 늙는다고 늘 우득을 걱정하던 강감찬장군이 벌써 수십일째

숲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슴이 졸아들도록 배미산의 저택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군 하였다.

여든이 넘은 나이이라 로환인줄 알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러저러한 잡생각에 눈물까지 흘리던 우득은 이즈음에 들어서서는 매일과 같이 꿈에 시달렸다.

오늘 저녁은 아침부터 나와있은지라 피곤하여 선의문에서 내리는 길옆의 나무에 기대여 잠간 졸았던것인데 하늘의 계시처럼 별이 뜨고 금빛투구를 쓴 장군의 모습을 꿈에 보게 된것이였다.

벽란도로부터 들어오는 길이라 몹시 붐비던 사람들의 물결은 저녁이 되자 뜸해졌다.

저앞의 집에서만이 불빛이 휘황한데 사신들을 맞고보내는 모습이 얼른거리며 보여왔다.

갑자기 가슴이 쾅 무너지는것같은 아찔함을 느끼며 우득은 벌떡 일어섰다.

강감찬의 저택으로 어의들이 들어가는것이 눈에 띄였던것이였다.

(시중어른께 무슨 변고가 생긴게 아닐가?)

우득은 쩌릿한 아픔을 느끼며 강감찬의 집앞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이 낸 무사도 간단 말인가?)

구름같이 내닫는 천군만마를 호령하며 침략자들을 삼대 베듯하던 하늘의 장수가 죽는다는것이 도무지 리해되지가 않았다.

어디선가 왈랑절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큰 사신행차와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어두운 밤하늘에 맑은 소리를 울리며 방울소리를 내던 행차가 거의 가까와올무렵이였다.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을 확 밝히면서 하늘에서 큰 별찌 하나가 바로 앵계숲우를 획 가로지르며 배미산기슭의 강감찬의 저택앞으로 떨어졌다.

《아ㅡ》

우득은 놀라 두손을 꽉 마주잡았다가 그만에야 으흐흑 울음을 터뜨렸다.

《시중어른께서 별세하셨소.》 하는 목갈린 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울음바다가 터져올랐던것이다.

우득은 심장이 멎는듯싶어 뚝 굳어지고말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부터 왈랑거리며 가까와오던 행차를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우득을 건드렸다.

백발의 로인이 우뚝 서서 눈물을 흘리는것을 본 한 사나이가 조심히 말을 건넸다.

《저 로인님, 여기 사시오?》

우득이 마뜩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준수한 얼굴의 젊은이가 류창한 말로 이야기를 건넸다.

《정신이 좀 드시우? 이분들은 송나라사신들인데 하늘에서 큰 별찌가 내려 무슨 일인가 놀라서 행차까지 멈추었소. 대체 저 집이 누구의 집이시오?》

우득의 눈가에서 또다시 주르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사연 모르고 감동된 젊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서있었다.

《강감찬… 어르신…께서… 별세…》

뚝뚝 피가 떨어지는듯 목메인 목소리가 울리자 젊은이가 화닥닥 놀라 물러섰다.

《그러니 시중어른께서…》

사신들도 놀랐다.

그들은 무엇인가 말을 나누더니 모두 두손을 모아쥐고 강감찬의 집앞에 대고 묵도하였다.

배미산쪽에서 점점 더 큰 곡성이 터져오르고 한참만에 돌아오는 젊은이의 눈두덩도 벌겋게 부어올랐다.

《아, 과시 하늘이 낸 무사로다.》

젊은이에게서 별찌가 내린 사연을 들은 사신들은 다시한번 고개를 숙여 묵도를 하고나서 줄지어 선의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그뒤를 따라 덜커덩거리며 가는 수레들의 처량한 구울음소리가 우득의 가슴에 끝없이 눈물의 샘을 터쳐올렸다.

1031년 수십년에 걸친 거란침략자들과의 전쟁을 종결지어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켰으며 조정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존엄높은 천자국의 지위에 알맞는 고구려식 큰 성을 쌓아올린 강감찬은 83살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온 도성안의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며 그와 영결했다.

그의 죽음을 하늘이 예언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슬기롭고 강의한 민족의 자랑높은 이야기속에 오래도록 전해져갔다.

다음해 우득은 흥국사를 찾았다.

열한해전인 1021년 강감찬장군이 거란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승리를 기념하여 탑을 세운 절이였다.

우득은 이 절에 강감찬장군과 함께 한번 다녀온적이 있는지라 절의 스님들은 깍듯이 례를 지켜 맞이했다.

강감찬장군의 명복을 빌려 한번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그를 절의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이였다.

우득은 정성껏 마련한 시주품들을 넘겨주고나서 탑을 찾았다.

《흥국사》라는 절현판이 우에 나붙은 대문안에 들어서니 웅장화려한 절의 모습이 한눈에 띄였다.

대문을 따라 전후좌우로 늘어선 회랑들이며 대문안의 흥국사탑과 그의 남북으로 마주선 익평루며 박세루가 보였다.

동으로 주조하여 만든 화려한 당간지주의 끝에는 봉황새장식을 했는데 전부 황금을 칠하여 번쩍거리며 금빛을 뿜었다.

측면 매 면마다 오목이를 새김한 아래단우에 거꾸로 련꽃새김을 한 웃단을 얹은 흥국사탑에 거란침략자들의 침략을 끝장낸 위훈을 전하는듯 가운데를 앞면에 새긴 《1021년 5월에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위하여 이 탑을 세웠다.》는 글을 우득은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마치 흰 수염발을 드리운 장군이 앉아있는것같이 보였다.

장군과 더불어 청신한 공기를 마시던 앵계숲의 못잎을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하늘이 낸 무사이시여, 부디 이 나라 백성들의 앞길에 축복만을 내리시오이다.)

두손을 마주잡고 우득은 오래도록 고개를 숙여 장군의 명복을 빌었다.

개성땅의 력사를 전하는 《중경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량온동은 태평관서쪽에 있다. 일명 <락성동>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의 사신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말을 세우고 걸어서 지났다 하여 또 <하마원>이라고도 부른다.》

비취색청기와

의종왕은 당대 고려왕들중에서 가장 사치하고 화려하게 정각들을 꾸리고 놀기를 좋아한 왕이였다.

대신들의 집을 새 궁으로 만들며 민가를 철수시키고 새 정각들을 꾸려놓아 신하들과 백성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으나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대소관료들과 환관들 지어 토호들, 중들까지 나서서 새 정각들을 짓고 기이한 돌이며 화초들로 장식하여 바치거나 초청하여 연회를 차리는 등 온 나라에 술렁거리며 노는 풍이 만연하게 되였다.

그는 또다시 화려하고 사치한 정각들을 여러개 세운 크고 멋진 궁을 꾸릴 구상을 내놓았다.

임금의 령을 감히 누가 거스르리오. 신하들과 환관들은 적극 지지하고 별의별 새로운 방법들을 아뢰며 비위를 맞추었다.

좌승선 김존중의 생각도 깊어졌다.

임금은 이전에 세운 궁들이나 각들이 새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늘 환관들속에 싸여 이런저런 생각을 내놓는데 여러 대소관료들에게 왕의 명령과 의도를 전하고 잘되도록 관심하여야 하는 처지로서 한가지라도 새로운것을 만들어놓아야 하는것이였다.

관료들과 고개를 마주하고 의논한 끝에 새로 세우는 정각들중 한개의 지붕에 청기와를 씌우기로 하였다.

그것도 이미전에 씌운적 있는 궁들의 연칠물청기와와는 판판 다른 한점한점이 보물과도 같은 비취색청기와를 만들어 씌우자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비취색청기와(푸른색을 띤 비색기와)를 어떻게 장만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비취색이야 여기 개경의 가마터들에서 잘 내는것이니 응당 가마터들을 다 조사하여 거기서 만들게 해야 할것같소.》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요. 그래 여기저기서 굽다가 서로 다른것을 구우면 어쩐단 말이요? 차라리 잘 수소문해보고 제일 나은 가마에서 굽도록 하는것이 낫다고 보오.》

《차라리 옛사람들이 한것처럼 남쪽지방에서 만들어 올려오게 함이 어떤지…》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도리머리를 젓기도 하면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던 그들은 아무래도 비취색청기와는 개경지방에서 만들어야 한다는데로 락착을 몰아갔다.

《임금님께서 보아주신 청자기도 비취색자기요. 맑고 투명하고 푸른빛이 뿜어져나오는 비취색자기란 말이요. 이제 해빛을 받으면 저 송악산까지 환해지게 온 정각이 푸른 보석과 같이 황홀한 빛을 뿌리는 그런 청기와란 말이요.》

황토고개너머에 있는 가마들과 송악산너머 가마들에서 나오는 청기와들이 제일이라는데 조용히 알아보고 이왕이면 조금 돈을 주면서 빨리 굽게 한다면 능히 정각건설이 끝나는 동시에 청기와를 씌울수 있겠다고 한 관리가 열심히 설명을 하자 좌승선 김존중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가뜩이나 이것저것 진귀한 화초며 나무며 돌까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오느라 원성이 높고 뒤소리들이 많은데 그까짓 은덩이를 조금 주고 조용히 만들수만 있다면 임금님이 모르게 준비했다가 당일에 문무백관들이 깜짝 놀라게 씌울수 있을것같았다.

김존중은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들뜨는것을 느꼈다. 그래 깜짝 놀라게… 그것이야말로 임금께 기쁨을 줄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것이다.

(이왕이면 온 천하가 깜짝 놀라 부러워하게 비취색청기와를 씌운 정각을 세우자.)

그는 온 심혈을 기울여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

황토고개너머 가마들중에서 제일 이름있는 청자가마주인 무덕은 오늘 아침 별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또다시 안해와 티각태각한것이였다. 일찍 상처하여 두 딸과 함께 살던 무덕이 새로 젊은 녀인을 맞아들였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갑자기 여섯식구가 되는 바람에 청자를 굽는데 전념하던 무덕은 자기들이 굽는 청자기들뿐 아니라 남의 청자기들도 받아 파는 매점까지 내오게 되였다.

사실 청자를 굽는것은 높은 온도와 기술을 요구하는것이므로 가마 하나 운영하는것 역시 조련치 않은것이였다.

게다가 나라에서 내라는 청자기까지 바치고나면 자칫하다가는 본전도 거두기 힘들었다.

그래 가마외에 매점을 내와야 한다는 안해의 지청구에 옳다고 머리를 끄덕인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되는데다가 두 딸을 가진 무덕에게 두 아들을 가진 녀인이 맞붙었으니 자연 살림이 펴이지 않고 언짢은 말까지 오가게 된것이였다.

그까짓 살림이야 늘 어려운것인데 뭣하랴만 티각태각하는 싸움끝에는 늘 자식들 문제가 입에 오르기마련이니 두 딸을 가진 무덕으로서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저기 친구들의 가마들에까지 다니며 부탁하여 여러가지 청자기들을 모아들여 청자기매점을 연것인데 가마일도 씨원치 않은데다가 그들에게 더 손을 내밀수 없는 처지라 참 딱하기 그지없는것이였다.

안해는 늘 두 아들과 매점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청자기들이 좀 있어 그럭저럭 수입이 있을적에는 조용한듯싶었는데 일이 뜻대로 잘 안되는데다가 안해가 이번에는 청자기가마에서 이런저런 기물들을 만들어보라고 두 딸들에게까지 성화를 먹였다.

두 딸은 말없이 집안의 한칸을 내여 따로 록로기를 돌리며 무덕의 가마에서 자기흙을 가져다가 이리 빚고 저리 빚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자가마일이라는것은 일군들사이에 사심이 있어서는 안되는것이였다.

가마내의 일군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서로 조력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여야 모양곱고 빛갈고운 훌륭한 청자기를 뽑아낼수 있는것이였다.

더우기 천점중에서 하나를 택할수 있다는 비취색청자기를 만들자면 온넋을 다 바쳐 불을 조절해야 하였다.

그저 흙이나 걸러내고 주물러 빚어서 작은 가마안에 넣고 초벌구워낸 다음 칠물을 입혀 말리워 본가마에 넣고 불이나 지펴 쉽게 얻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 가마들에서 내는 청자기들은 말이 청자기이지 푸른빛이나 도

는 정도의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한번 보기만 하여도 눈길마저 뗄수 없게 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황홀한 비취색의 세계에 잠기게 하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을 내야 진짜 청자가마라고 할수 있는것이였다.

《불과 숨결을 같이해야 하느니라. 자기의 몸이 불속에 있는듯이 불길과 한몸이 되여야 좋은 청자기를 구워낼수 있느니라.》

무덕은 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이르군 했다.

하지만 불과 숨결을 같이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차려 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말로는 할수 있어도 정말 피부에 닿도록 불에 온넋을 바쳐 청자기들을 구워내는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였다.

무덕의 피타는 노력으로 그래도 그의 가마에서는 그럭저럭 빛갈고운 청자기들과 비취색자기까지 뽑아내고있는터였다.

관청에서 나온 관리들이 좋은 청자기들을 골라가지고 가군 하지만 그래도 가마안의 모든 청자들이 자기의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있기에 무덕의 청자기들은 만드는대로 잘 팔렸다.

무덕의 안해도 이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언짢은 일로 티각태각하는 때도 말을 막 하는듯하면서도 무덕의 감정을 잘 엿보고 제때에 그치는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해가 청기와소리를 불쑥 꺼냈다. 청기와중에서도 비취색청기와를 구워내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념불외우듯한것이였다.

그러면야 오죽이나 좋으랴.

그러나 청자기를 굽는것과 청기와를 굽는것은 다른 일이므로 무덕의 청자가마에서 당장 굽기는 어려운것이였다.

더우기 일군들의 살림문제까지 생각하면… 무덕의 얼굴에는 먹장구름이 덮이였다.

《아니… 청자기를 굽나 청기와를 굽나 같구같은것인데 당신은 왜 미리 얼굴부터 찌프리는거요?》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우. 청자칸도 다시 쌓고 불칸도 생각해봐야 하는것이야.》

《그러기 잘 생각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쉬우면 큰돈을 주겠다고 하겠수.》

시꺼멓게 질린 무덕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생글생글 웃던 안해가 눈을 동그랗게 모았다.

《매점일도 편치않아요. 청자기들은 거의다 팔았는데 우리 가마는 점점 불때기가 힘들지, 다른 가마들에서 가져오던것들은 이젠 계속 값만 올리며 팔아달라니 정말 무슨 변통을 내긴 내야겠어요.》

무덕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도 뻔한 일이고 또 뻔한 말이였다. 하면서도 머리속에서는 청자기와를 굽는 가마안의 모양과 불칸의 위치, 불길이 넘어가는 모양들이 그냥 얼른거리였다.

비취색청기와!

사실 그것은 무덕이 아이적부터 간직한 꿈이였으며 수십년의 련마속에 다져온 소원이기도 하였다.

(청기와라고 굽지 못할리야 없지. 하지만 밑천이 문제야. 저 가마에 명줄을 걸고있는 일군들이 청자기를 구워 팔지 못하면 당장 굶을 처지인데 내가 무슨 정신없는 생각을 하는걸가? 또 가운데만 청기와를 놓고 그 주위에 청자기를 넣고 굽다가 이것저것 다 잘 구워지지 않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질수 있다.)

환희와 불안이 엇바뀌며 마음이 번거로와지자 무덕은 잡념을 털어버리려는듯이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가 번쩍 들고 산천을 둘러보았다.

구불구불 흐르며 뻗어간 내가를 곁에 끼고 푸른 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는 밋밋한 등성이를 따라 가마터로 가는 길이 비스듬히 나지는데 멀리 우뚝우뚝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보여왔다.

푸른 산천을 둘러보니 한결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문득 어릴적에 듣던 무지개기와전설이며 여기 청자가마주인으로 되기까지의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확 눈앞에 안겨왔다.

무덕에게 무지개기와전설을 이야기해준것은 그의 할머니였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신기한 빛을 내뿜는 무지개기와!

《할머니, 정말 그런 기와가 있었을가요?》

《있었다고 하더라. 새파랗고 눈부신 빛이 휘황찬란해서 온 누리를 환하게 비쳤다지.》

무덕은 그것을 진실로 믿었다. 무지개기와에 대한 전설은 무덕의 어린 가슴에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주었으며 환상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무덕은 꿈속에서 몇번씩이나 그 기와를 오랑캐들로부터 지켜냈고 또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무덕이 열다섯살 나던 해였다.

가마들에서 기와를 굽는것을 즐겨 구경하던 무덕은 청자가마를 한번 보려고 황토고개를 넘었다.

나지막한 언덕아래로 밋밋한 경사를 따라 굽이져간 길을 걸어가던 무덕은 정말로 옛말에서 듣고 꿈속에서 보아오던 그처럼 눈부시고 황홀한 푸른색의 빛을 뿜는 보석을 보게 되였다.

풀숲에 떨어진 작은 연적이였다. 너무도 새파랗게 눈부신 빛을 뿜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쳐 연적을 주어들었던 무덕은 해빛을 받자 황홀하게 발산하는 빛발에 그만 온넋이 빠져들었다.

《할머니가 말하던 그 무지개기와의 빛이구나.》

할머니에게 보이고싶어지자 무덕은 무작정 그것을 쥐고 내뛰였다.

하지만 뒤에서 무덕을 소리쳐부르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

《얘야— 얘야—》 하고 가마터주인이 목청껏 불러 찾았으나 온넋이 비취색빛에 빠져버린 무덕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도적놈, 저 도적놈을 잡아줘요.》

새된 처녀애의 목소리도 터져올랐다.

그러나 무덕은 점점 더 멀리로 사라져버렸다. 무덕은 무작정 집문을 열어제끼며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할머니, 이걸 좀 보세요. 그 무지개기와의 빛이 이런 빛이나요?》

어리둥절하여 손자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무덕이 내미는 연적을 보자마자 눈부시게 발산하는 비취색빛에 넋을 잃고말았다.

《아니, 이런 황홀할데라구야. 이런 보물이 다 있다니.》

할머니는 연적을 들고 해빛에도 비쳐보고 그늘에도 감춰보며 연신 감탄을 련발했다.

무덕은 진심으로 믿고 또 믿었다.

《할머니, 그 신기한 무지개기와빛이 틀림없어요. 그런 기와가 진

짜 있었어요. 내 꼭 그런 기와를 만들고야말겠어요.》

이때 그들너머로 푸른 보석같은 연적에 함께 눈길을 주고있던 한 나그네가 불쑥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그 청자연적 좀 봅시우다.》

《아니, 저… 이건…》

할머니는 화닥닥 놀라 말을 더듬었다.

무덕도 더럭 겁이 났다.

그러고보니 너무도 눈부시게 황홀하여 그만 그 주인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혹시 얘가 어데서 훔쳐온 물건이여서…)

할머니는 긴장해지는 얼굴로 조심히 연적을 내밀었다.

그런데 잘 생기고 부한 그 나그네는 아무말없이 푸른 연적을 손에 들고 쭉 팔을 펴들더니 오래도록 꼼꼼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숨막힌 시간이 흘러갔다. 무덕이 참다못해 한걸음 나섰다.

《그건 제가 가져온것이나이다.》

나그네는 쭉 펴든 팔을 그대로 든채로 다른 팔로 조심히 무덕을 밀막았다.

드디여 청자연적에서 눈길을 뗀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천하의 으뜸인 자기로구나.》

나그네는 두말없이 큼직한 돈주머니를 통채로 꺼내놓았다.

《할머니, 이것을 나에게 파시우. 내 값을 푼푼히 드리우다.》

그는 주머니를 쭉 들어 번쩍거리는 은덩이들을 무드기 쏟아놓았다.

(아니, 이런…)

할머니도 무덕이도 깜짝 놀랐다.

살아한생 본적도 만져본적도 없는 은덩이가 자기들앞에 차례지였기때문이였다. 할머니와 무덕이 얼굴이 시꺼매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그네가 다시 사정을 하였다.

《작아서 그럽니까? 그런데 저에겐 이것이 전부이오이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받아두시고 내 이제 다시 올적엔 꼭 더 드리겠나이다.》

너무도 간절하게 사정하자 할머니는 얼이 나가 머리를 끄덕였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내 이 신세를 꼭 갚겠나이다.》

있는 은덩이를 더 꺼내놓고도 거듭 사례하고 떠나는 그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그럼 이 은덩어리가 우리 집의것이란 말인가?)

할머니는 무덕이와 은덩이를 그냥 번갈아 둘러보았다. 그때야 무덕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처럼 귀한 물건에 임자가 없을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번쩍 뇌리를 쳤다.

《아차, 내가 기쁜김에 그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못했구나. 할머니, 이렇게 귀한 물건을 잃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가요? 분명 그 청자가마주인의것이겠는데…》

할머니의 가슴도 덜컥 했다.

《아이구, 내 무슨 망녕을… 나살이나 먹은게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팔다니, 원. 얘야, 얼른 이 은덩이를 그 청자주인에게 가져다주거라.》

무덕이 화닥닥 놀라 뛰였다. 겁이 덜컥 났던것이다.

《할머니, 그래도 될가요? 날 잡아가두지 않을가요?》

《무슨 끔찍한 말을 하느냐. 네가 훔치기라도 했더냐? 우리야 고스란히 은덩이를 가져다주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잡아가둔단 말이냐? 그럼 이 할미와 함께 가자꾸나.》

벅적이며 떠날 차비를 하던 그들은 곧 단념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은덩이를 가지고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할머니는 날이 밝으면 일찌감치 떠나자고 무덕을 타일렀다. 그러나 그것이 한생의 한을 남기게 될줄 누가 알았으랴.

다음날 청자가마에 이른 무덕은 시작부터 봉변을 당하였다.

《이 도적놈아, 우리 연적을 내놓아라.》

청자가마주인의 딸이 무덕의 옷자락을 찢어져라 쥐여흔들며 펄펄 뛰였다. 할머니가 말리여도 막무가내였다.

가마의 일군들이 우르르 쓸어나와 다짜고짜 무덕에게 오라를 지웠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우? 이앤 잘못이 없쉐다. 다 망녕된 할미의 잘못이웨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진정했으나 무덕은 더 아연한 사연에 앞이 캄캄하였다.

나라에 바쳐야 할 자기를 감춘 죄로 그 주인이 관가에 잡혀들어 갔다는것이였다.

할머니는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줄은 몰랐다며 거듭 사죄했다. 은덩이를 다 꺼내놓았으나 막무가내였다. 연적을 찾아야겠으나 사간 사람을 어데서 찾는단 말인가. 가마의 일군들이 은덩이를 들고 관가에 가서 고하였다.

처음에는 펄펄 뛰면서 무덕을 잡아들이라, 할미를 잡아들이라 고아대던 관리들이 누군가 조용히 수군거리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무덕과 할머니는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라는 엄포를 받고 나왔으나 가마주인은 나라에 진상할 자기를 잃은 죄목으로 매 오십대를 맞고서야 풀려나왔다.

온 가마터가 울음바다로 화했다.

가마주인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무덕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그 집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채 죄를 청했다.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주인은 정신을 차리였다. 몸이 좀 추선 다음 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가마주인은 아픈 몸을 일으키더니 무덕을 찾았다.

《그래, 무지개기와를 굽고싶으냐?》

너무도 인자한 물음에 무덕은 눈물범벅이 되여 말했다.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정말 잘못하였나이다.》

그러나 가마주인은 무덕의 손을 따뜻이 잡아끌며 인자하게 다시 물었다.

《됐다, 그만하자. 네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래, 정말 네가 그 무지개기와를 굽고싶으냐?》

그제야 무덕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예.》

가마주인의 얼굴에 밝은 빛이 어리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여 무덕은 다음해부터 가마의 일군으로 일하게 되였고 몇년후에는 그 주인의 사위로 되기까지 하였다. 새되게 고아대던 영악스럽고 이악한 처녀애가 무덕의 일생의 반려로 되였던것이다.

《청자란 우리 고려사람들의 정신이고 넋이란다. 청자는 불속에

서 구워지지만 그것을 굽는 사람의 넋과 정신속에서 완성된단다. 이것을 꼭 명심하거라.》

그때 매를 맞은 어혈로 시름시름 앓던 가마주인은 딸의 혼례까지 치러주고는 다음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무덕은 그의 무덤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도 큰 설음에 눌리워 한해동안이나 그는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지내였다.

누구도 그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지어 명랑하고 재기있는 안해마저 무덕이 설음에 쓰러질가 무서워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렇게 무덕은 가마의 주인이 되였다.

하지만 가마의 일이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고 할 그런 일이 아니였다.

불길이며 바람이며 뻔한것같지만 새 주인을 맞은 가마는 웬 일인지 시뻘건 황토색의 자기나 시퍼런 쑥색의 탁한 색만을 줄줄이 내놓았다.

일군들은 수군거리였다. 가마주인의 살이 낀것이 아닌가고…

가마가 계속 손실만 보자 일군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안해가 팔을 걷고 나섰다. 좀 나아지는듯하나 맑고 푸른색은 나오지 못했다.

(아, 비취색아! 내 한생의 실수로 너는 정녕 사라져버렸단 말이냐?!)

무덕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했다. 총명하고 이악한 안해는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섰던 위치들이며 하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무덕에게 말해주고 익히도록 해주었다.

아버지는 청자의 색은 높은 온도의 불길에 묘리가 있다고 했다.

보임구의 시편들과 불길의 색, 로벽의 색을 하나로 일치시켜보자. 바람이 모자라면 풍구를 더 설치해보고 마지막랭각에도 비방이 있을수 있다. …무덕과 함께 록로기를 돌리고 풍구질도 하면서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며 안해는 그의 충실한 조수로, 스승으로 나섰다.

황토고개너머 산자락들에는 쫀득쫀득한 회백색의 흙이 많았다.

그 흙들을 파내여 물에 풀어 채로 밭으며 흙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무덕은 빠짐없이 익혀나갔다.

멀리에 있는 가마들의 흙들도 가져다 얼마씩 섞어보며 새로운 비취색의 묘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송도땅의 모든것은 정말 보물처럼 귀하고 귀한것들이였다. 드디여 무덕의 가마에서도 한점한점 맑고 깨끗한 청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몇해만에 그 천점중 하나씩 나온다는 비취색자기를 구워냈을 때 무덕은 그것을 붙안고 울고 또 울었다.

그는 자기의 은인이고 스승이기도 한 가시아버지의 무덤앞에 꿇어앉아 거듭 절을 하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렸다.

가마터일은 드디여 자기의 곬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리도 힘들게 일으켜세운 가마를 놓고, 그리도 이악하게 살림을 꾸리며 무덕을 이끌어주고 힘을 주던 안해가 두 딸을 남기고 덜컥 세상을 떠날줄이야. …

(하늘이여, 땅이여! 무정하오이다, 무정하오이다. 어쩌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다지도 가슴아픈 벌만을 내리시는것이나이까? 죽어야 할 이 몸을 끌고갈것이지 귀중한 사람들만을 앗아가는것은 그 무슨 괴변이오이까?)

안해의 묘앞에서 무덕은 두번씩이나 까무라쳤다.

살아있는 안해의 손목을 잡은듯 무덤가의 부드러운 흙을 쥐고 빙긋이 웃거나 사랑스런 몸을 꼭 껴안듯이 팔 벌려 무덤을 그러안고 볼을 비비기도 하였다.

《저 사람이 미쳤네, 미쳤어.》

《왜 미치지 않겠나. 가시령감을 잡더니 또 제 처를 잡았거던.》

《마음씨곱고 이악한 그 안해가 불쌍하이.》

무덕이 정신을 차린것은 딸들의 부름때문이였다.

《아버지, 정신차리세요. 예? 가마가 다 식어가요.》

번쩍! 무덕의 눈동자에서 빛이 뿜어져나왔다.

청자가마, 그것은 자기를 목숨으로 구원해준 가시아버지의 숨결이였고 자신에게 삶의 환희를 안겨주었던 안해의 숨결이였으며 자신과 딸애들의 숨결인것이였다.

《그래, 가마가 숨을 죽이면 안되지. 안되구말구.》

드디여 무덕이 일어섰다. 말없이 가마의 일거리들을 바로잡으며

무덕은 오직 청자가마에 마음속괴로움을 터놓았다.

딸들에게만은 힘든 가마일을 시키지 않으리라 마음다지면서 다시 맞아들인것이 지금의 젊은 안해였다. 그러나 생활은 자기의 생각대로만 흐르지 않는 법이다.

끝내 그애들의 손에 록로기를 맡기고 청자매점에 청자기도 내고 이제는 가마의 운명을 저울대에 놓고 비취색청기와를 굽는 일을 벌리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그리도 아니아니하고 부정했건만 한생의 소원으로 안고 살던 꿈이여선지 비취색청기와는 계속 눈앞에 얼른거리며 가슴을 흔들고 심장의 피를 뿜어댔다.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번뇌가 끓었다.

옳다, 가마를 운영하기란 매일반이다. 물론 청기와를 굽는데는 따로 비방이 있을수 있지만 이미 우리야 비취색을 내는 위치며 불칸이며 화염에 랭각까지 다 해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기와의 개수는 문제이다.

납죽한 기와를 꽃병처럼 세울수는 없는것이고 설사 세운다 해도 겹겹이 몰아세우면 화염이 날아지나며 회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기와는 잘 익지 않거나 또 너무 빨리 익어 얼럭덜럭하게 되고 지어 탁한 빛까지 내게 될것이다. …

그는 자주 집으로 가는 길우의 언덕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깊도록 별무리 흐르는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군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마음속고민을 알수 없었다.

제일 좋은 불길구역에 기와를 놓고 굽는다면 몇개를 놓을수 있을가? 그옆에도 어떤 기물들을 얼마나 놓을수 있을가?

기물의 개수는 곧 가마안의 일군들의 생존과 관련된것이였다.

그러니 기와를 굽겠다고 그 개수를 줄인데다가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청기와의 질이 높지 못하면 정말 야단인것이다.

한번은 그럭저럭 넘길수 있으나 세번째는 그 후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니 그때엔 가마를 세워야 하는것이였다.

(아니, 아니다. 그렇게는 못해. 내 꿈을 실현해보겠다고 가마를 희생시킬수는 없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도 큰 희생을 안고온 가마인데야…)

무덕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날 밤 희색이 만면해서 들어온 젊은 안해가 무덕의 손을 살뜰하게 잡고 또 쏙닥거리였다.

《여보, 내 그 량반에게 선불을 좀 내라고 했어요. 당연하지요. 다른 가마에선 한개도 아마 낼수 없겠는데 우리 가마는 돈이 딸려 힘들다고 했지요.》

생각나는대로 막 주어대는것같았으나 젊은 안해는 진짜는 이제라는듯이 딱 손벽을 치며 기쁨에 넘쳐 말을 이었다.

《가마를 세우지 말자면 아무래도 선불이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 량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기와만 진짜로 구워내라 하겠지요. 이제 크게 횡재할지 몰라요.》

무덕은 말을 못했다. 숨쉬기가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졌다. 남의 돈을 먼저 받는것이 께름했고 갑자기 차례진 행운이 불안했다.

《그저 눈부시게 황홀한 비취색기와만 만들어내오.》

까만 눈동자가 뱅글뱅글 도는 거간군같은 아전이 데려온 점잖은 량반 하나가 묵직한 돈주머니를 안겨주며 말했다.

무덕의 안해는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자, 보라요. 내가 횡재할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

무덕은 말없이 차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슴이 웬 일인지 활랑거리였다. 돈때문은 아니였다.

(돈, 그따위 돈. 돈이란 일을 하는데 꼭 있어야 하지만 남의 돈을 꾸어쓰는것은 잘못 다쳐놓은 독사마냥 무슨 일을 칠지 모르는 무서운것이다.)

무덕은 이미 철없던 그 시절에 벌써 비취색청자연적을 은덩이와 바꾼것으로 한생의 은인이고 스승인 가시아버지를 잃었던것이다.

돈은 먹고 입고 쓰는데 족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비취색청기와를 굽는것은 나의 꿈이며 희망이다. 아니, 전 생애와 같은 귀중한것이다! 바로 이제 그것을 만들어보게 된다. …

기와 구울 준비는 말없이 착착 잘되여나갔다.

심장이 자주 활랑거리고 가슴도 뻐근해왔지만 무덕은 모든것을 다 잊고 오직 비취색청기와에만 온넋을 바쳤다.

먹는것도 자는것도 다 잊었다.

드디여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 왔다.

안해가 무조건 다른 기물들까지 넣어 굽자고 지청구를 들이댔으나 무덕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기와 몇장이라도 더 넣으려고 애를 썼다.

선불로 받은 돈이면 청자가마 한번은 실히 불을 때고도 남음이 있으련만 돈 몇푼 더 벌겠다고 기와를 구워야 할 불길옆에 다른 기물들을 넣는다는것이 량심에 허락치 않았던것이다.

기와를 빚을 흙은 여러번 시험을 거쳐 정확히 선정한 흙으로 잘 이겨놓았고 그것으로 빚어 초벌 구운것에 바늘끝같은 음각으로 살아 움직이는듯싶은 룡도 그려놓았고 칠물도 진하게 발라놓았다.

만일을 생각하여 기와밑바닥의 칠물을 긁어버리고 거기에 고임흙덩이도 여러개 놓아 높은 열에서도 기와가 주저앉지 않게 단단히 고여놓았다. 불칸의 위치도 새롭게 선정하였다.

불길이 직접 날아가 그냥 굴뚝으로 빠지지 않게 단을 여러개 설치하여 기와를 더 놓았다.

잘 익도록 선정한 곳들에 주련이 놓은 기와옆에는 보임판같은 덕대들을 세워놓아 불길돌이를 하게 하였다.

하나하나 준비정형을 꼼꼼히 확인한 무덕이 침착하게 서서 구령을 쳤다.

《가마에 불을 지피라.》

맨앞의 불칸아궁에 불방망이가 던져졌다.

이어 옆칸들에도 불길이 지펴졌다.

우우- 소리를 내며 가마안에서 달구어진 시뻘건 화염이 시꺼먼 연기와 마구 뒤섞인채 무서운 속도로 타래쳐올라 맨끝에 세운 굴뚝으로 높은 불기둥을 솟구쳐올렸다.

《바람을 먹여라.》

일군들이 씩씩거리며 풀무질을 하였다.

시꺼먼 화염으로 마구 엉기여 어둡던 로안의 불길색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더 세게 먹여라.》

어엿차- 어엿차- 일군들이 구령소리에 맞춰 풀무질을 해댔다.

무덕은 언뜻 하늘을 쳐다보았다.

쾌청한 날씨에 파란 하늘이 상쾌하게 보였다.

날씨도 안성맞춤하고 때도 바로 맞춘것같았다.

지금 상태로 잘 밀고가느라면 래일 아침에는 가마를 제끼고 눈부시게 황홀한 비취색청기와를 보게 될것같았다.

타산하고 타산하고 또 타산한대로 불길은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 타래쳐올랐고 가마안은 밝고 눈부시게 뜨거워졌다.

가마가 달구어지자 무덕은 보임구의 구멍에서 로안을 들여다보며 떠날줄을 몰랐다.

그가 숨을 몰아쉬는대로 불길은 점점 노란색으로부터 은백색의 백광을 뿜으며 로안을 달구었다.

무덕은 때를 맞추어 보임시편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구령을 쳤다.

익기, 색퍼지기… 드디여 가마안의 온도가 최고에 올랐다.

무덕의 눈앞에는 새빨갛게 익은 청기와들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여왔다. 얼마간…

《불구멍을 막으라.》 하고 무덕이 큰소리로 웨쳤다.

환희에 넘친 그의 목소리가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가로 아득히 메아리쳐갔다.

그 하늘에서 새빨갛게 달아올랐던 청기와가 식으면서 점점 더 강렬하고 눈부시게 새파란 빛을 뿌려던지고있었다.

무덕은 가마옆에서 온밤을 새웠다.

잠도 오지 않았고 심장은 다시금 활랑거렸다.

멀리 동켠하늘에 푸름한 빛이 한줄기 가로 지나가더니 이내 어두운 구름장들을 밀어던지며 온 천지가 밝아왔다.

무덕은 아름다운 려명을 오래도록 서서 바라보았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다. 새파란 하늘이 아득히 깊은 빛을 내며 무덕의 눈에 비끼였다. 그것은 무덕의 마음속에서 구워진 비취색청기와의 빛이였다.

무덕은 성공하였으며 그의 꿈은 실현되였다.

《야!ㅡ》, 《야!ㅡ》 하고 일군들이 너무도 황홀하여 소리소리 질렀다.

젊은 안해는 너무도 큰 충격에 입을 하 벌린채 두주먹을 모아쥐고 무덕의 옆에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보석처럼 눈부신 광채를 뿜으며 새파란 비취색청기와들이 뚜껑을

열어제낀 통로안의 긴 불길칸을 따라 은하수의 흐름마냥 길게 놓여있었다. 누구도 감히 손을 댈념을 못했다.

무덕은 천천히 가마앞으로 다가갔다. 맨앞의 막새기와들이 약간 들려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얇고 긴 막새의 채양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맑고 깊은 새파란 칠물안에서 두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양이 가는 음각으로 새겨져있었다.

눈부시게 파란 광채가 뿜어져나오는 푸른 칠물안에서 살아 번뜩이는듯싶은 룡의 새김을 보느라니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에 한생 청자기를 구워온 무덕이마저 넋을 잃었다.

《무지개기와! 무지개기와! 우리 대고려의 무지개기와가 드디여 태여났구나.》

푸른 보석덩어리만 같은 기와를 두손으로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얼이 나간듯 고함을 지르는 무덕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

김존중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것이 그 보물같은 비취색청기와란 말인가?! 관리가 보냈던 거간군이 손세를 써가며 말을 할 때까지는 보기 좋을것이라고만 여겼는데 주런이 은하수같이 황홀한 빛이 흐르는 기와들을 바라보니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히는것같았다.

아!―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비치고 땅이 받들 천하제일의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임금님이 놀라하고 문무백관들이 기절하도록 놀라와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존중은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딱― 치고 말았다.

왕궁안의 모든 청자기물을 다 모아놓아도 이와 같이 장쾌하고 황홀한 광경은 이루어내지 못할것같았다.

푸른 보석의 바다를 얹은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정각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숨이 다 꺽꺽 막혀왔다.

한번만 더 구워내면 정각의 지붕을 제꺽 씌울것같았다.

그러나 김존중이 아무리 궁전안의 희한한 청자기들을 다 보아왔단들 청자가마와 숨결을 같이해야만 얻어지는 비취색의 비밀을 어떻

게 다 리해할수 있으랴.

바탕흙도 칠물도 땔감도 가마도 다 여기 송도땅의것이여야 하고 흐리고 맑은 날씨와 춥고 더운 때까지 지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길까지 오직 고려사람들의 숨결과 넋이 배여야만 태여나는 비취색이라는것을 조금만이라도 리해했다면 보물같은 이 땅과 비취색청기와의 무게를 그렇듯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것이였다.

《빨리 새 기와들을 계속 구워내도록 하라.》

가마안의 비취색청기와들은 정히 수레에 실려 왕궁안으로 들어가고 관리들의 불독촉은 련발했다.

가마가 텅 비였으나 무덕은 알지 못할 환희속에 그냥 그앞에 서있었다. 심장이 형편없이 아프고 가슴이 뻐근해왔다. 온 사지가 찢어지는듯싶은 경련도 일었다. 무덕은 자기의 힘이 점점 진해감을 느꼈다.

그는 언듯 정신을 잃고 쾅하고 땅우에 넘어졌다.

최후의 힘을 다했던탓인지 아니면 너무 긴장했던탓인지 무덕은 자리에 누운채 며칠동안 눈도 뜨지 못하였다.

안해는 거간군에게 야단을 쳤다. 한점한점의 보물같은 기와에 값을 매기지는 못해도 살아갈 돈이야 푼푼히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무덕이 죽으면 어디 가서 그런 기와를 다시 구워내겠는가고 들이대는 그 녀자의 지청구에 거간군은 왕궁안의 일인데 낸들 어쩌겠는가고 두덜거리다가 돌아갔다.

《저 청자쟁이를 살려내지 않는다면 다시 그런 기와를 구워내기 힘든줄로 아뢰나이다.》

김존중은 깜짝 놀랐다.

청자쟁이가 죽어가다니?!… 그럼 저 정각의 지붕은…

불에 덴듯 놀라 뛰여일어난 그는 사람들에게 빨리 의원들을 불러대야 한다고 야단을 쳤다.

송도땅의 용한 의원이란 의원들이 황토고개를 부지런히 넘나들어 며칠만에 무덕은 깨여났다.

대관료들까지 가마를 보러 오자 그는 놀랐다.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무덕을 일으키며 칭찬절반, 독촉절반 그들은 읊조렸다.

《빨리 몸을 추세워 기와를 굽도록 해야겠느니라. 그대의 정성은 임금님께 말씀올려 상을 하사하시도록 하겠노라.》

《황송하오이다.》

백미와 소고기며 반찬감까지 수레로 실어다주며 그들은 매일과 같이 무덕에게 언제 불을 때겠는가고 독촉하는 전갈을 보내왔다.

그러나 무덕은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있었다.

무지개기와를 올린 정각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내뿜는 속에 둥둥둥둥 요란하게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있었다.

어데선가 와― 하고 달려가는 천군만마의 발굽소리가 멀리 아득한 하늘가에서 끊임없이 울려왔다.

휘파람소리같은 바람소리가 그의 귀전으로 그칠줄 모르고 울려왔다.

그는 알수 없는 병환에 시달리고있었다.

그보다 더 놀란것은 그의 젊은 안해였다. 멀쩡히 앉아 히죽이 웃는 무덕을 놓고 의원들끼리 쉬쉬― 하며 값진 약재들을 불러댈 때에는 돈벌레라고 욕만 했는데 관리들까지 나서서 부르는대로 은덩이를 주며 빨리 완쾌시켜내라고 당부하고 당부할 때에야 그가 중병에 든것임을 의심하였다.

남편이 어찌될가 하는 근심에 놀랐던 그 녀자는 이내 그 신기한 기와굽는 재간이 하늘로 날아가버리게 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에 눈앞이 새까매졌다.

그 재간이야말로 은덩이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수 있는 천하의 으뜸가는 재간인것이였다. 그 재간이 있으면 은덩이로 산을 쌓고 살지는 못해도 임금님이 알고 나라에서 안다면 한생 걱정없이 살수 있는 것이였다.

보배같은 재간을 마치 하늘의 구름을 잡아보듯이 손에 잡아보자마자 날려보내게 되였으니 그 안타까움을 무슨 말로 어디에 하소한단 말인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아들들에게 그 재간을 물려주게 해야 한다.

안해는 무작정 아들들을 가마터로 불러들였다. 그들이 무덕의 재간을 하나도 놓침없이 배우게 했다. 그동안 무덕이 모아온 흙들이며 그 배합의 비방들과 그것을 채에 밭아 고루 섞어 칠물을 만드는 방법들까지 직접 손을 거두어붙이고 아들들에게 배우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저 가마의 불을 때는 비방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 녀자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졌다.

무덕이 일어나야 하였다.

매일과 같이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녀자는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여보,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김존중은 바빠났다.

정각은 거의 완성되여가는데 그 희한한 비취색청기와는 절반밖에 안되니 속이 바작바작 타들어 입맛까지 젖히였다.

임금앞에 눈부시게 황홀한 광경을 확 펼쳐보이고싶은 충동에 밤잠도 다 잊고 눈엔 충혈이 지여 뛰여다닌 그였다.

임금은 그에게 태자소부의 벼슬을 새로 더 주었으나 새 정각건설로 몹시 바빠하는 존중은 거의 모든 시간을 태자와 더불어 궁전건설장들에 나가있었다.

먼저 대궐 동북쪽에 새로 정각을 세웠다. 금벽단청이 선명하게 장식된 정각안에는 여러가지 진귀한 화초들을 들여놓아 향기가 그윽히 풍겨나게 하였다.

임금은 《충허각》이라는 현판을 내붙이게 하였다. 이어 정자 하나를 또 지어 기암괴석과 이름난 꽃들을 모아놓고 《양성정》이라는 현판을 내붙였다.

청기와를 씌우고 종려나무로 지붕을 잇고 여러가지 폭포며 기암들의 분수며 진귀한 수목들과 처음 보는 기이한 물건들까지 가득히 들여놓아 보는 사람마다 황홀하여 어쩔줄 모르게 할 새 궁과 정각건설에 대한 임금의 걱정은 날을 따라 더해갔다.

이러는 속에 날과 달은 빨리도 흘렀다. 그새 많은 궁들이 새로 건축되였다.

임금은 안창궁, 정화궁, 련창궁, 서풍궁을 만든데 이어 민가들을 헐고 새로 크게 지을 태평정건설에 대해 늘 관심하고 따져물었다.

모든 관리들이 저저마다 새 궁터며 기암괴석들, 진귀한 화초들을 얻어 진상하기에 열을 올렸다.

지어 임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민간에서 진귀한 물건이 있다면 어명이라는 핑게로 무작정 빼앗고 저저마다 실어들이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권세가 당당한 그들도 무덕의 앞에서만은 그가 쓰러질가봐 몹시 긴장해하였다.

절반은 씌울 기와가 있다지만 절반짜리 지붕을 이은 정각이 도리여 화를 불러올지 누구도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명의들을 불러댔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때문인지 아니면 젊은 안해의 남다른 정성때문이였는지 어느날 무덕이 눈을 번쩍 뜨더니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무덕은 의아하게 쳐다보는 일군들을 부릅뜬 눈으로 둘러보더니 대뜸 《빨리 청기와를 빚어야겠다.》고 호령을 쳤다.

가마는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기와제작도 끝나고 칠물도 준비되였으며 가마안의 불칸에는 땔감도 꽉 채워졌다.

온종일 무덕은 가마일에만 전념했다. 죽도 입에 넣어주는대로 받아먹으면서 낮과 밤마저 잊었다.

그의 젊은 안해는 불안해졌다. 무덕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던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빨리 불때는 비방을 잘 배우라고 야단을 쳤다.

매끼 직접 죽을 쑤어들고 무덕의 입에 떠넣어주었고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것이 보이면 어깨며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극성을 부렸다.

《여보, 건강을 돌보며 일하세요.》

별로 살뜰해진듯싶은 안해의 말에 께름해하면서도 무덕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당신이 점점 편치않아하니 아무래도 저 아들들에게 청자굽는 비방을 가르쳐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씨는 달라도 그래도 여기 청자가마주인들이 될건 뻔한게 아니와요.》

무덕은 안해의 말을 들으며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불쑥 자기가 처음 가마터에 오던 그날이 되새겨지며 도적놈이라고 야단을 치던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도 떠올랐다.

또한 자기때문에 매를 맞아 운신을 못하면서도 무지개기와를 굽고싶다는 저를 꽉 껴안아주며 청자가마의 비방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자기의 딸과 혼례까지 치러주던 은인의 얼굴도 보여왔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무덕의 볼을 타고 내렸다.

안해가 놀라 무덕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니, 이런?!… 어디 편찮으세요?》

무덕은 눈물을 주먹으로 뻑 씻더니 《그래그래, 배워주어야지. 배워주어야 하구말구.》 하고 말했다.

그날부터 무덕은 두 아들들에게 가마의 비방을 하나하나 배워주기 시작했다.

《마음을 바루가져야 하느니라. 청자란 불의 산물이다. 동시에 넋의 산물이다. 고려의 비취색을 위해 온넋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만 와닿는것이 바로 천하의 보물인 비취색자기인것이다. 그 보물중의 보물이 바로 저 비취색청기와야, 알겠느냐?》

두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풀무를 바로 잡아라, 률동을 맞춰야 한다, 세게 당겨라, 빨리 늦추지 못할가, 가마안이 노랗게 보이면 첫 시편을 꺼내보아라, 하얗게 백광이 뿜어져나오면 불구멍을 막아 시뻘겋고 시꺼먼 화염이 돌아 색을 내게 해야 하느니라. …

끝없이 반복되며 벽력같이 소리지르는 무덕앞에서 두 아들은 넋을 잃었다.

(색보기시편을 꺼내보고 불구멍을 막고 하면 그만인데 이 두상은 무슨 복잡한 말만 계속하며 우릴 달구어대는건지…)

두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고까운 생각이 벽을 쌓았다.

드디여 불을 때는 날이 왔다.

무덕은 굵은 지팽이를 짚고 나와섰다. 건강이 형편없이 나빠졌던것이다.

그옆에 젊은 안해가 딱 붙어 두 아들들을 달구어댔다.

《가마에 불을 넣어라—》

무덕의 호령소리가 울리자 일군들은 불아궁들에 불방망이를 집어던져넣었다.

무덕이 두 아들들에게 풀무를 잡으라고 호령했다.

가마가 달궈지기 시작했다.

《자, 이젠 여기로 와서 시편을 꺼내보아라.》

아들들이 얼른 보임구멍에서 시편을 꺼내보고 무덕에게 가져왔다.

《불칸을 들여다보아라. 저 흰빛들이 보이느냐?》

《다시 시편을 꺼내보아라.》

두 아들이 헐떡거리며 뛰여다녔으나 무덕은 온종일 지팽이를 짚고서서 계속 호령을 했다.

안해도 등이 달았다.

그의 눈에도 두 아들이 무덕의 호령에 못마땅해하면서 건성건성 대하는것이 보였기때문이였다.

《너희들은 왜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느냐?》

두 아들은 씩 웃었다.

《어머니도 참, 우린 제 할바를 알아요. 별로 큰 비방도 아닌데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릴 윽박지르지요. 저레 기를 펴지 못하게 하려는거예요. 이제 두고보라요. 진짜 비방은 감춰두지 않나.》

그 녀자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무덕이 거짓말을 할줄 모른다는것은 몇해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것이였다.

그런데 저 아들들은 어쨌든 무덕이 자기의 씨를 뿌린 자식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고보니 무덕이 딸들을 대하는 표정과 아들들을 대하는 표정이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것처럼 느껴졌다.

(괘씸하구나. 내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데 제 아들들에게도 비방을 숨기다니… 죽어서 관에 넣고가려나?)

두번째 가마도 완전히 성공이였지만 그 가마뚜껑을 떼지 못하고 무덕은 쓰러졌다.

일군들이 와－ 하고 무덕에게 달려왔다.

《아니, 뭣들 하세요? 가마를 봐야지. 얘들아, 어서 가마를 돌봐라.》

일군들을 나무라고 아들들을 불러세우며 야단을 치던 그 녀자는 그제서야 무덕을 눕혀놓고 약을 먹이느라 법석댔다.

두 아들들이 일군들을 다그어댔다.

좀 이르게 뚜껑을 제끼였으나 이미 다 익혀놓은 가마인지라 가마안의 바닥에는 이전과 같은 눈부시게 파란빛이 뿜어져나오는 비취색 기와들이 은하수마냥 길게 놓여있었다.

기와가 구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존중은 이른새벽의 찬 공기도 마다하지 않고 관리들과 직접 가마터로 나왔다.

활짝 제껴진 가마안에서 빛을 뿜는 기와들을 보느라니 가슴속에서 이상하리만치 고귀하고 숭엄한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한장한장이 보물과 같은 비취색청기와의 황홀한 흐름을 타고 우렷이 떠오르는 궁전들의 높고낮은 웅장한 모습들과 더불어 송악산의 푸른 자태가 마치 푸른 광채를 뿜는 거대한 저 하늘의 신선세계처럼 보여왔다.

그것은 세상우에 거룩하게 떠올라 그 슬기와 지혜의 빛을 내뿜는 푸른 고려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오, 하늘의 해빛과도 같이 광명한 고려의 눈부신 광채여!)

존중은 가슴이 터질듯싶은 충격을 누르며 한장한장 정히 실은 기와를 바라보았다.

드디여 비취색의 눈부시게 푸른빛을 머리우에 인 황홀한 정각이 일떠섰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훌륭해. 빛이 막 뿜어져나오는것만 같구나. 푸른 보석으로 지붕을 이은 정각은 세상에 이것 하나이로다. 정말로 멋있도다, 멋있도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멀리서 보며 즐거움에 잠겨있던 왕은 정각의 이름을 《양이정》이라고 달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남쪽에 종려나무로 지붕을 이은 양화정을 세우게 하였다.

태평정의 황홀한 자태가 일어섰다.

양이정과 양화정뿐 아니라 기이한 옥돌들을 다듬어 환희대와 미성대를 쌓았다.

그 한가운데에는 기암괴석을 모아 쌓아올린 신선산이 솟아올랐고 그우로 멀리에서부터 끌어온 맑은 물이 가득히 차올랐다가 쏴— 폭포를 이루며 쏟아져내리는 광경은 보는 사람마다 경탄을 금치 못했다.

매 정각들의 주위에는 진귀한 나무들과 화초들이 아름답게 놓여있고 이상스럽고 화려한 물건들이 보기 좋게 놓여있는데 그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임금은 즐거움에 못이겨 여러 관리들에게 유람할데 대한 령을 내

리고 유람한 다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어느날에는 관란정에 나와 대사를 실시하고 정각수리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다.

하지만 무덕은 이 모든것을 알수 없었다.

젊은 안해가 왜 야단하는지도 몰랐다.

김존중도 관리들도 다시는 무덕의 가마터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드디여 무덕의 젊은 안해가 제 본색을 드러내듯 욕을 퍼부었다.

지어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무덕에게도 욕을 했다.

《이 속꼬부라진 청기와장사군아, 제 아들도 믿지 않고 잘난 비밀을 저승까지 안고간단 말이냐?》

그 시각 무덕은 푸른 하늘우를 날아다니고있었다.

자기 눈앞엔 불쑥불쑥 솟구쳐오르는 몇십배나 되는 크고 거창한 궁전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 지붕우에서 자기가 만든 비취색청기와가 온 천지가 눈부시게 푸른 광채를 내뿜고있었다.

《아버님, 저게 우리 고려의 무지개기와이로소이다. 바로 저것이… 여보, 저게 당신과 함께 찾고찾던 우리 고려의 무지개기와요, 무지개기와!》

무덕이 두손을 펼쳐들고 끝없이 소리를 질렀으나 사랑하는 안해와 은인은 멀거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갑자기 쿵 소리가 울리며 무지개기와가 꺼져내렸다.

눈부신 빛발이 확─ 뿌려졌다가 천지간의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온 우주가 암흑에 들었다.

무덕은 끝내 운명하고말았다.

무덕의 봉분우에도 새파란 잔디들이 돋아올랐다.

그는 죽어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였다.

두 딸은 이붓어미와 헤여져 멀리로 떠나기로 하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 떠나면 다시 볼수도 없는 무덤앞에 큰딸은 품속에서 자기쪼각 하나를 꺼내여 이윽히 바라보다가 조심히 묻어주었다.

비취색자기쪼각이였다.

아버지가 사랑하였고 어머니가 고대하였던 비취색이였다.

비록 밤알만한것이지만 아마 아버지는 이것이면 족할것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올리는 딸들의 머리우에서 무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우렁 울렸다.

《비취색자기를 만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법이나 대주어서는 알수가 없지. 오직 이 땅과 더불어 자기의 온넋을 다 바쳐 사랑하고 숨결을 같이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니라.》

무덕의 죽음과 함께 그의 청자가마도 끝이 났다.

그러나 비취색청자기의 전통은 끝이 난것이 아니였다.

장사와 리속타산에 옴해있은 그의 두 아들들은 끝내 비취색청자기의 비방을 물려받지 못하였다.

허나 무덕의 넋은 송도의 땅에 살아있었으며 민족의 슬기와 넋을 지닌 후손들에 의해 비취색청자기의 비방은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것으로 끝없이 이어져왔다.

아버지가 바란 효도

정각이 있다는 고개마루까지는 아직 한참 올라가야 하였다.

검은구름이 사태처럼 획획 날아지나고 설렁설렁한 찬바람까지 불어치던 하늘에서 드디여 후둑후둑 비꼬치를 떨구기 시작하였다.

《여보, 일없겠소?! 여기서 좀 쉬고 가자구요.》

천령감이 불안한 목소리로 마누라에게 하는 말이였다.

《일없어요. 이 한지에서 줄비라도 맞으면 당신까지… 병에 걸리겠는데 고개마루까지만 올라가보자요.》

마누라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도리머리를 저으며 그냥 고개마루로 톺아올랐다.

지팽이까지 짚은 천령감은 씨엉씨엉 앞서며 마누라의 손을 잡아끌었다. 마누라의 손은 불덩이같았다.

(이러다 객지에서 마누라가 잘못되겠구나. 아이구—)

천령감은 열번도 더 후회를 하였다. 외지에 돈벌이나갔던 아들이 어느 고을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들떠있다가 괜히 마누라의 지청구에 몰려 떠났다는 후회가 온몸을 조여들었다.

길을 떠나 얼마 걷지도 못했는데 오슬오슬 떨려 하던 마누라가 그만에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 가쁜숨을 몰아쉬니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기만 한데 발걸음은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을들을 지날 때마다 의원집을 찾아다니며 약첩을 꾸려왔지만 마누라는 한시라도 빨리 아들에게로만 가자고 졸라댔다.

하기야 떠난 걸음 돌아선들 병이 나으리오. 아들이 색시를 얻고 제 집에서 산다니 애지중지 키운 자식의 부모된 마음은 그에게로만 달리는것이였다. 그런데 객지에서 고생하게 될줄이야. …

고개마루에 오가는 길손들이 로독을 풀수 있게 세운 정각이 있다니 어떻게 해서든 거기까지 가서 마누라의 병구완을 해야 할 처지였다.

을씨년스러운 하늘은 계속 검은구름을 토해냈다. 천령감은 왜서인

지 저 하늘이 꼭 무슨 일인가 칠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

비방울이 떨어지는 음산한 하늘을 계속 쳐다보며 천령감은 마누라를 당기다싶이 하여 가까스로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퍽 낡아보이는 여러채의 각들이 보여왔다.

천령감은 마누라에게 천천히 따라오라고 이르고나서 제꺽 정각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때였다.

《여보, 거 눈이 없소? 당장 무너질것같은 집엔 왜 들어가는거요? 죽고싶어 몸살났소?》 하는 꽥 소리가 천령감을 우뚝 멈춰세웠다.

(이게 무슨 소린가?)

천령감이 서서 빙 주위를 둘러보는데 여기저기 되는대로 우장을 뒤집어쓰고 들어박힌 길손들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를 내밀지 않았다.

(어떤 싱거운 놈이 역정질이야?)

하면서도 께름직한 생각이 든 천령감이 다시한번 정각을 살펴보니 기와가 다 물러나고 기둥이며 서까래마저 여기저기 썩어문드러진것이 스산하기가 짝이 없었다.

약간 동요하던 천령감은 (그래도 집이 한지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도포자락을 한번 더 조여매고는 그냥 걸음을 짚어 정각안에 들어섰다.

안은 텅 비여있었으나 천령감의 가슴엔 먹장구름이 끼였다.

(이러다 정말 무너질게 아니야?)

찰나 좌—악— 하며 소나기가 쏟아지고 동시에 《여보—》 하는 마누라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쿠, 내 무슨 생각을…》

천령감은 후닥닥 뛰여나가 마누라를 부축해 들어섰다.

어지러운 바닥을 대충 밀어내고는 보짐을 끌러 자리를 깔았다.

《여보, 어서 예 눕소.》

마누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더니 끙끙 앓음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였다.

천령감은 서둘러 물을 뜨려고 방구리를 들고 일어섰다.

비발속에 목을 빼들고 《여기 샘이 없소?》 하고 웨치는데 웬 떠꺼머리총각 하나가 허술한 짚무지속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물때문에 그러시나요. 자, 이걸 받으시와요.》

비속에 몸을 적시며 뛰여온 총각이 천령감에게 물통을 안겨주며 정각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죽자고 이렇게 다 썩은 집에 들어왔나요?》

그러거나말거나 천령감은 얼른 약첩을 꺼내들고 마누라에게 소리쳤다.

《여보 마누라, 어서 일어나 이 약부터 먹소. 그러다 죽겠소, 엉?》

마누라는 듣는지마는지 그냥 앓음소리만 냈다.

비는 점점 대줄기마냥 쏟아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대체 뭘 하시와요?》

부르르 몸을 떨며 비를 털어내던 총각은 울상이 된 천령감을 보자 놀라서 함께 마누라를 흔들어댔다.

천정에서는 사방에서 비물이 좔좔 쏟아져내리였다.

《안되겠어요. 할머니가 불덩이잖나요? 몸을 덥혀야겠는데…》

이때였다.

《집이 무너진다. 집이 무너진다― 이놈아,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나오지 못할가?》 하는 벽력같은 소리가 정각에 울렸다.

번쩍― 번개가 일었다. 우지직거리는 기둥을 본 총각은 천령감의 마누라를 둘쳐업고 반대편의 문짝을 발길로 차며 내뛰였다.

천령감도 죽기로 그뒤를 따라 힘껏 몸을 날렸다.

그뒤에서 우지직― 쾅쾅! 소리를 내며 정각이 무너져내렸다.

《아이쿠―》

천령감은 그만 반대로 쏟아져내리는 흙과 기와에 다리를 묻히고야말았다.

《사람이 상했다―》

총각이 고아대자 비속을 뚫고 어데서 나타났는지 와― 길손들이 모여와 기와며 흙이며 닥치는대로 집어내치고 천령감을 끌어냈다.

천령감은 겨우 다리를 꺼냈으나 허리가 아파 움직일수 없었다.

《여기 환자도 있어요. 열이 펄펄 나요.》

총각이 떠들어대자 도롱이를 쓴 장년의 사나이가 소리쳤다.

《여보게들, 자네들이 쓰고있는것들을 저 나무들사이에 씌워야

겠네.》

《새끼를 단단히 비끄러매시우.》

벅적거리는 사람들우로 비는 그냥 쫙쫙 쏟아지는데 어느새 언덕의 나무들사이에 새끼줄들이 얽히고 나래며 거적 같은것들이 씌워지더니 비를 그을 자그마한 막이 하나 생겨났다.

천령감은 자기가 어떻게 마누라와 함께 그 막안에 눕게 되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소낙비가 멎고 거적두른 막앞에 작은 불무지까지 피여올라서야 자기가 겪은 악몽과 같은 일들이 언뜻언뜻 보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주위를 둘러볼수 있었다.

비에 곤죽이 된채로 주저앉아있는 정각은 마치 시꺼먼 무덤같았다.

《하마트면 생죽음을 당할번하였수다. 헌데 이놈아, 네놈은 꺼내오라는 사람은 꺼내오지 않고 왜 꾸물거리다가 변을 칠번하는 게냐?》

구레나룻이 시꺼멓고 머리에 흰서리가 언듯언듯 보이는 장년의 사나이가 총각을 보고 꽥 소리를 쳤다.

《할머니가 열이 나서… 약을 먹이려다가…》 하고 총각이 얼버무리는 소리를 듣자 천령감은 그대로 스르르 눈을 감고 죽은듯이 누워버렸다.

《몹시 아프신 모양이우다. 하기사 기와에 깔렸댔으니…》

총각의 아버지는 웅얼거리며 불무지에 나무가지 몇가치를 올려놓았다. 새벽녘이 되자 불무지는 더 세차게 타오르며 확확 열기를 뿜어댔다. 밤새 젖은 나무를 말리우며 우등불을 지피던 총각과 그의 아버지는 그만에야 쭈그리고 앉은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

《여보 령감, 지금도 아프시우?》

혼곤히 잠들었던 천령감은 마누라의 목소리에 펀뜩 잠을 깼다.

열에 떠서 아무것도 모르고 쓰러져있던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반가움과 함께 눈물이 쿡 솟았다.

천령감은 거쿨진 손으로 마누라의 손을 꽉 잡아주고나서 활활 타오르는 불무지결에서 고개를 푹 늘어뜨리고 잠이 든 총각과 그의 아버지를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이구, 내 깜빡 잠들었댔군.》

구레나룻이 시꺼먼 사나이가 큰머리를 부르르 떨면서 바로 앉더니 천령감의 허리를 주물러주며 물었다.

《헌데 어데로 가는 길손들이기에 이렇게 욕을 당하셨수?》

《저 아래고을에 자리잡은 우리 아들이 찾기에 떠난 길이예요.》

천령감의 마누라가 사연을 이야기하자 사나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거 효자를 두었구만요. 그런데 그 덕도 보기 전에 하마트면 염라국신세를 질번했소이다. 허허허—》

《정말 고맙습네다. 여러분네들이 아니문 우리 령감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나 했겠습네까? 그런데 은인들에게 인사도 차릴수 없으니…

욕많이 해주시오다.》

녀인의 진정어린 목소리에 구레나룻사나이가 펄쩍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 말 마시우다. 아니, 한지에서 난을 겪는 우리 백성들끼리 돕지 않으문 누가 돕는단 말이웨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들이나 하시우다.》

《할아버지, 좀 일어나 이 꿀물을 드시와요.》 하는 총각의 목소리가 들리자 사나이는 천령감을 조심히 일으켜 앉혀주었다.

총각은 물에 진하게 탄 꿀물을 천령감에게 권하며 싱글벙글 웃었다.

《에그, 네가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엊저녁은 이 할미때문에 이리 뛰구 저리 뛰구 하더니 새벽까지 혼나는구나. 정말 고맙기란…》

천령감은 허리가 아파왔으나 억지로 참으며 총각이 주는 꿀물그릇을 받아 천천히 마시였다.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고마움에 가슴이 꺽꺽 막히였다.

어디 가나 마음씨 무던하고 도울줄 아는것은 평범한 백성들이였다.

《꿀물이 쌉쌀한게 정말 좋은것이웨다.》 하며 천령감의 마누라가 말을 떼자 기다렸다는듯이 총각이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띠우며 자랑했다.

《할머니, 이건 오래 묵은 산꿀이예요.》

그러자 총각의 아버지가 꽥 소리질렀다.

《방정맞은 놈, 환자앞에서 웬 꿀자랑이냐? 썩 물러가서 땔나무나 해오너라.》

총각은 씩 웃더니 푸름푸름한 새벽빛속으로 휭 달려갔다.

웅기중기 일어난 사람들이 눈들을 비비며 모여들었다.

《어이구 좀 낫쉐까?》

《령감님이 허리를 다쳐 어떻게 떠나겠소?》

《세게 눌린것같진 않은데 나이가 나이니까 의원에게 보여야 해. 침 몇대 놓고 곰열을 조금 쓰면 번쩍 일어설게야.》

구레나룻사나이가 길손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더니 움쭉 몸을 일으켜 여러 길손들을 불무지로 찾아 불렀다.

《여러 손님네들, 여기 령감님내외가 한지에서 불상사를 당했는데 아무래도 좀 도와야 할것같수다.》

천령감은 불에 덴듯 놀랐다.

《아니, 그만두시우다, 그만두시우다.》

허리가 몹시 쑤셔나고 가슴이 답답해났다.

《할아버지, 왜 그러시와요?》

어느새 왔는지 총각이 손을 꼭 잡으며 물어서야 천령감은 자기가 소리친 말이 모기소리만큼 목구멍에서 감도는것을 알아차렸다.

《좀 정신이 드시우?》

마누라가 눈물이 글썽하여 천령감의 몸을 바로잡아주었다. 길손들이 웅성거리였다. 절그럭— 절그럭— 엽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소다. 여러분네를 잊지 않겠소이다.》

구레나룻사나이가 매 길손들에게 머리를 수그리며 인사를 하였다.

《고맙기야 뭘… 다 함께 길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돕는거야 응당한 일이지요. 형님이 더 고맙쉐다. 한 이삼일은 더 묵어가야 할터인데 우리도 로자가 푼푼치 않아 더 드리지 못하니 리해해주시우.》

《참, 불쌍한 늙은 내외를 잘 구완해주시우. 어쩌다 길가에서 내외가 함께 불상사를 당했을고… 에참.》

총각의 부축하에 모지름을 쓰며 일어나 앉은 천령감의 마누라가 눈물을 흘리며 길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 신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러분네들,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네다. 아무쪼록 구원해준 은인들께 꼭 인사를 올리겠쉐다.》

길손들이 하하, 허허 웃었다.

《할머니, 내 로자를 따로 내여서라도 꼭 들리겠으니 그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 차려내오시우다. 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질수록 천령감은 눈물을 삼켰다.

아!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은인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떠나갔다. 떠나가면서도 누구나 천령감내외를 걱정했다.

《이놈, 냉큼 일어나 고개를 내려가 어떻게 하나 의원을 한분 모셔오너라.》

《아버님, 차라리 할아버지를 업고 고개를 내려가면 어떻겠나이까?》

구레나룻사나이의 눈찌가 사나와졌다.

《웬 말대답질이야 이놈? 허리 더친다. 잔말말구 떠나거라.》

총각이 떠나가자 그는 천령감의 허리를 꾹꾹 눌러보다가 조심조심 주물러주기 시작하였다. 천령감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원… 아픈 몸에 무슨 눈물을… 일없쉐다. 우리 백성들이야 늘 이렇지요. 로자를 덜어준 사람들이나 고맙게 생각하시우다.》

그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시원하게 어깨며 팔다리며 지어 발바닥까지 한참동안 주물러댔다.

해가 한발이나 솟아올랐다. 젖은 잎새들을 흔들며 푸른 수림이 설렁대였다. 쨍하게 맑아진 산천을 마주하니 마음속이 밝아지고 삶에 대한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정오를 거의 가까이할무렵 흰 수염을 드리운 의원이 총각을 따라 헐떡이며 올라왔다.

그리고는 스산하게 무너진 정각을 빙 둘러보며 혀를 찼다.

《끝내 일들 쳤군, 일을 쳤어. 그만큼 보수해야 한다고 관가에 알리고알렸는데 어느 량반 하나 올라와보지도 않구 수염을 쓸더니 사람이 죽을번하지 않았나? 에이 한심한 작자들, 제 아비, 어미일이

라면 이럴텐가? 백성은 아비, 어미와 같은데 제살궁리에는 눈이 벌겋게 되여 돌아치고 이런건 전혀 셈도 없으니 이제 하늘의 벌을 받지 않나 봐라. 이 괘씸한 량반놈들.》

흰 수염이 푸들푸들 떨리도록 연신 욕을 해대며 의원은 로친네부터 맥을 보고 약을 먹이더니 천령감의 허리며 가슴이며를 눌러보고 두드려보고나서 침대를 꺼내들었다.

《다행일세, 다행이야. 혈도 통해있고 뼈도 성하니 정말 다행일세. 몸이 놀라 긴장되여 몹시 아프겠지만 내 이제 아픔이 싹 사라지게 해주리다.》

의원은 천령감의 어깨며 허리부위에 침대를 꽂아놓더니 다리를 주무르며 다시 혈자리를 잡아갔다.

천령감은 숨이 꺽 막히도록 아프던 가슴이 씨원히 열리고 허리의 아픔도 점차 사라져감을 느끼였다.

침대를 뽑을적에는 온몸에 기운이 도는것을 느끼며 천령감은 언제 아팠냐는듯이 불쑥 일어나 앉았다.

《응, 그렇겠지. 그래 이제는 일어설만하우?》

《예, 정말 귀신같소이다. 하나도 아픔이 없고 힘이 납니다요.》

천령감이 얼굴에 홍조까지 띠우며 아이처럼 팔을 굽혔다폈다해보이자 의원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떡이였다.

《그래도 마을에 내려가 한 이틀 푹 쉬고 떠나라구.》

의원의 말에 천령감은 펄쩍 놀라며 손을 저었다.

《난…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마누라가 열이 몹시 나서 정말…》

천령감이 미안해하며 두손을 맞잡고 말을 더듬자 의원은 그의 손을 잡아이끌어 앉히며 마음놓으라고 다시금 일렀다.

《건 문제가 아니웨다. 열은 떨구었으니 이제 저 약들을 둬번 더 달여먹고 이 산꿀을 물에 풀어 쭉 마시고나면 거뜬할거요. 아마 저녁쯤에는 고개를 내려 어느 주막에라도 들어가게 될거요.》

그때였다.

《아버님, 이 엽전들을…》 하고 총각이 말을 더듬었다.

《이놈아, 그건 왜 아직 드리지 않고있는거냐? 엉, 의원님께 빨리 드리지 못할가?》

천령감은 꽥 소리에 총각보다 더 놀랐다.

그러나 의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수염을 쓸며 나무랐다.

《놔두게, 그애야 무슨 잘못이 있다구. 그래도 그놈이 정말 괜찮아. 막 울면서 나를 붙들구 조르는 바람에 난 이놈 아비가 상사라도 났는가 했지. 혈육인들 저러겠나?》

의원은 총각을 한참동안이나 칭찬하고나서 돈주머니를 구레나룻사나이에게 밀어놓았다.

《내 고장에서 집이 무너져 길손이 상했는데 무슨 돈타령인가? 내려면야 사실 저 관가의 량반들이 내야 할 돈이니 자네는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구. 이런 돈을 받으면 제명을 다 못살아.》

구레나룻사나이가 펄쩍 놀라 뛰였다.

《저, 의원님. 제발 좀 들어보시오이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여기 묵던 길손들이 의원님을 청하려고 모아준 돈이니 제발 받아주시오이다.》

천령감은 민망스러워 어쩔줄을 몰라했다.

마누라도 고개를 수그린채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을 못했다.

그들을 따뜻이 둘러보며 의원은 한결 챙챙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의 병을 봐주는거야 의원으로 응당한 일인것이고 설사 약값이라고 해도 아무데서나 받으면 안되는것일세. 그러면 이렇게 하세. 우리의 마음씨착한 길손들이 모아준 돈이니 저 령감내외가 아들, 며느리집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로자로 쓰게 하자구.》

구레나룻사나이는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다.

천령감과 마누라는 제발 사정을 했다.

다 죽게 되였던 몸들을 살려주고 돌봐준것만 해도 그 신세를 다 갚을수 없는데 돈까지 받으면 안된다며 무조건 밀막았다.

《임자 세상 나서 처음 길을 떠나는것같은데 그럴것 없네. 본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착한것이네. 사실 단군성왕이래로 우리 겨레야 다 한집안식솔들이나 같지. 남의 불행을 보고 그냥 떠날이가 어디 있겠나? 모두가 다 남의 불행을 돕는것을 자기를 위한것으로 여긴단 말일세. 실로 그런것이 아니겠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사람들은 내가 도운것만치 남이 나를 도와 덕을 베푼다고 믿고있는것이야. 그게 진짜 선이구 덕이구 효이구말구.》

의원이 수염을 내리쓸며 이야기하면 할수록 천령감은 정말 사람은 어느때나 불행도 당할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수 있으며 그래서 어느때나 좋은 일 한가지는 꼭 하고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였다.

해빛이 따스하게 내려쪼이고 몸과 마음에 생기가 넘쳐흐르자 천령감은 스적스적 일어나 쭈그러진 옷자락을 펴기도 하며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걸어보았다.

의원할아버지와 구레나룻사나이가 그의 모양이며 걸음새를 살펴주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몇번 더 약첩을 달여먹은 마누라의 얼굴에도 화기가 돌았다.

천령감은 자기도 모르게 스산하게 무너져버린 정각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런지 가슴이 졸아들며 꼭 자기가 무슨 죄를 진것만 같이 여겨져 썩은 기둥이며 깨여진 기와장이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자기가 죽을번해서였을가?! 아니였다. 그는 자기가 이곳에서 변을 당한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마치도 이 정각을 자기가 돌보지 못하여 무너진것처럼 생각하게까지 되였다. 의원할아버지가 옆에 오더니 또다시 줄욕을 퍼부었다.

《백성이 하늘이라고 입부리가 부르트도록 외우는 량반들이 길손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정자 하나 잘 관리하지 않아 사람들이 욕을 보고 목숨까지 잃을번하게 만들고도 가책 한번 받지 않고있으니 세월은 다된 세월이로다. 제 아비, 어미의 집이면 이러겠나? 나라의 록을 타먹는 량반으루 이런것 하나 돌볼자가 없으니 장차 그런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하구 부모에게 효성하겠나. 개탄할 일이로다.》

총각의 아버지인 구레나룻사나이가 의원을 위로하였다.

《의원님, 너무 상심마시우다. 혹 알겠쉐까? 이제 어떤 효자가 더 번듯하게 꾸려놓을지. 허허!》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나. 그런 날이 오겠는지…》

의원은 떠나갔다. 떠나면서도 천령감과 마누라의 몸상태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친절하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르고나서 오던 걸음 그대로 씽씽 떠나갔다. 참으로 의롭고 고마운 의원이였다.

총각과 그의 아버지와 헤여질 때 천령감과 마누라는 손을 꼭 부

여잡고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다.

친혈붙이보다 더 친근하고 뜨거운 사람들이였다.

구레나룻사나이는 가지고가던 산꿀을 그대로 다 안겨주면서 당부하였다.

《이제 령감님이 돌아설적엔 우리도 돌아설수 있수다. 그럼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우다. 그러니 몸성히 잘 다녀갔다 오시우다.》

천령감은 거듭거듭 사례의 인사를 하고 마누라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맞은 아들의 집은 벅적 끓어번졌다. 천령감과 마누라가 이렇게 빨리 들이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마누라도 죽을번하다가 다시 아들을 만나서인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손을 꼭 붙잡고 끝없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천령감의 생각은 깊어져갔다.

며칠이 지나도록 천령감의 얼굴에서 어성버성해하는 빛을 띄여본 아들은 어느날 집안팎을 천천히 돌아보는 아버지를 보자 너무 기뻐 자기가 직접 나서 하나하나 자랑삼아 집 떠나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마당에는 여러 그루의 감나무가 푸르러있었고 며느리의 알뜰한 손길이 닿아서인지 방들은 깨끗하기 그지없었다.

어디를 보나 깨끗하고 살림의 여유가 풍겨오는 아담한 집이였다.

《로독이 좀 풀리신것같사오이다. 여기까지 오시기 무척 힘드셨겠소이다.》

천령감은 아들의 말에서 혈육의 정이 넘치는것을 느끼였으나 아무런 표정없이 말했다.

《힘들기야 무슨…》

천령감의 얼굴빛에서 무언가 이상한것을 느낀 아들은 이때라고 조심히 물어보았다.

《그런데 아버님, 집에 무슨 일이라도 나셨나이까? 오래간만에 찾아오신 아버님께서 얼굴이 개운치 못해있으니 이 아들의 마음도 편치않나이다. 뭔가 걸리시는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시오이다.》

아들의 진중한 얼굴을 띄여보는 천령감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아버님께서도 말씀 못하실것이 계신다면 불효한 이 아들이 어찌 얼굴을 들고다닐수 있겠나이까?》

아들이 절절하게 물을수록 마음이 더욱 괴로와난 천령감은 그만 걸음을 멈추고 집안너머 멀리 하늘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는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의 마음엔 어두운 그늘이 콱 덮였다.

《아버님, 설사 그 일이 죽을죄를 지은 일이라도 제가 어떻게 하나 풀어보겠으니 부디 서슴지 마시고 말씀해주시오이다.》

천령감은 더 어쩔수 없다는듯이 후― 하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뗐다.

《내 꼭 긴요히 부탁하겠으니 들어주겠니?》

절벽처럼 막힌듯하던 천령감의 입이 열리자 아들이 반색을 했다.

《아버님 부탁이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나이까?》

천령감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얘야, 내 지금 바삐 이만한 집을 지을 돈이 좀 필요한데…》

천령감은 더 말을 맺지 못하였다. 깜짝 놀라하는 아들의 얼굴빛이 확연하였기때문이였다.

마누라도 놀랐다. 천령감의 얼굴빛을 보고 은인들 생각에 신세갚음을 못하여서 그런것이라고는 넘겨짚었지만 이 집을 대고 돈을 부를 줄은 몰랐던것이다.

며느리의 얼굴빛은 거의 새파랗게 질리였다.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은 없는것이고… 그러니 이 집을 팔라는것인데 어떻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수…》

천령감은 그런것을 아예 느끼지조차 못한듯이 무뚝뚝히 물었다.

《너야 그래도 여기에 면도 있고 돈이랑 좀 주무를수 있지 않느냐. 아비가 꼭 긴요해서 사정하는데 그래 이만한 집을 살 돈도 돌려오지 못하겠느냐?》

이틀동안 대답을 못하던 아들은 천령감에게 며칠간만 더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시꺼멓게 질리자 마누라의 심정도 복잡해졌다. 생각하면 한지에서 다 죽게 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로자까지 쥐여준 그 은인들에게 무엇이 아까우랴.

하지만 꼭 아들, 며느리의 집을 짚어 돈을 꿔달라고 할것이야 있단 말인가. 좀 지났다가 돈이 마련된 다음에 신세갚음을 하면 안된단 말인가. 천령감이 고집스럽게 아들의 대답만 기다리며 더 말을 않고있자 마누라는 끝내 아들에게 그의 속생각을 귀띔하고야말았다.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의 생각도 깊어졌다.

그런 은인들에게 무엇이 아까우랴… 어떻게 하나 돈을 모아 이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가 신세갚음을 해야 한다.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어머니와 거듭 상론을 했다.

더 돈을 꿀수도 없는 형편에 다달으자 아들은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아뢰였다.

신세갚음을 절절히 외우는 아들의 말에 천령감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웬 일인지 가슴이 답답해왔다. 어쩐지 아들이며 며느리가 남처럼 느껴지는것같은 착각까지 일었다.

(내가 왜 이럴가?)

하루하루가 점점 더 옹색해지고 마음이 졸아들었다.

(그러니 우리 집에도 그 은인들만한 사람은 없구나.)

쓸쓸해졌다. 괴로움속에 시달리던 천령감은 결심했다.

《난 이젠 떠나련다. 너희들도 다 만나보았겠다 볼장도 다 봤으니 더 밥을 축내며 앉아있을 일이 없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펄쩍 뛰였으나 천령감이 옷가지들까지 하나둘 거두어 챙기자 더 말을 않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고까와 말도 잘하지 않던 며느리는 아무리 뛰고뛰여도 돈을 꾸어주지 못한 죄스러움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고개만 수그리고 더 말을 안했다.

부득부득 차비를 하고 나서는 천령감을 따라서는 마누라의 심정도 복잡하였다.

《아버님, 며칠만이라도 더 쉬시다가 떠나셔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시나이까?》

짐을 들고 따라서면서도 아들은 안타까이 청을 하였다.

그러는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천령감은 그냥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십리길을 걸어 어느한 고개마루에 이르자 끝내 참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정하여 주저앉았다.

《이 불효한 아들을 뺨이라도 쳐주시오이다. 대체 무슨 노여움이시기에 그리도 말씀 한마디 안하는것이오이까. 내 당장 은인들이 죽게 되였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은혜를 갚겠지만 한해동안 돈을 모아 꼭 신세를 갚자는것이 정말 아버님은 잘못되였다고 생각하시나이까?》

그때였다. 침울하던 천령감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그는 두손으로 아들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물었다.

《그래그래. 얘야, 내 하나 더 묻자. 이제 아비, 어미가 당장 죽게 되였다면 너희들은 집을 팔수 있겠느냐?》

아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시나이까? 부모님들 생명이자 저희들의 목숨과 같사온데 그까짓 다 무어라고 팔지 못한단 말이나이까?》

천령감이 고집스레 되물었다.

《그게 진정이렷다?》

《아버님, 하늘이 내려다보고있나이다. 어찌 자기의 부모님들 생사앞에 무심할 자식들이 있겠나이까?!》

《옳다, 옳아. 이제야 내 아들답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집을 팔면 너희들은 어디에서 살겠느냐?》

아들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였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온지…》

《내 묻지 않느냐? 집을 팔면 당장 어데 살데가 있느냐고 말이다.》

말할수록 알길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이 커지던 아들은 다시금 정색해졌다.

《당장은… 당장은… 그까짓 남의 집 곁방이라도 들어가면 될노릇인데 그럼 아버님은 정말 우리들이 집을 팔았으면 하시나이까?》

갑자기 천령감이 무릎을 척 꿇더니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얘야, 내 진정으로 하는 말인데 정말 될수만 있다면 그래주렴. 그럼 내 너에게 절이라도 하련다.》

아들은 펄쩍 놀랐다. 급기야 아버지를 꽉 부여잡고 일으켜세우는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렀다. 사연은 다 알수 없지만 은인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에 웬 일인지 콱 감동

에 젖으면서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게 된것이였다.

자신을 바쳐서라도 죽기로써 은혜를 갚으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던것이다.

《내 이제 집으로 가느라면 반드시 내가 죽을번했던 그 정각을 지나야겠는데 무너진 그 집을 두고서는 차마 발걸음이 떼질것같지 않구나. 이제 나를 구원해준 은인들이 그 집을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하늘의 벌을 받을 일이야.》

천령감은 숨이 가쁜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는 모양을 바라보는 아들은 가슴에 무거운것이 매달려있는것만 같았다.

마누라는 천령감의 모습앞에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나나 마누라는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여났다가 빚을 지고서 죽을수야 없지 않느냐? 낯모르는 사람들은 죽기루 우리를 구원하구 가난한 보짐들을 털어 병구완을 해주구 로자까지 쥐여주었는데 허나새나 그네들보다 번한 살림을 하는 아들네 집에 왔던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고 부모와 같은 그들의 은혜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구 한갖 신세갚음으로 여긴다면 어찌 하늘아래 사람가죽을 썼다고 말할수 있겠느냐?》

아들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뜨뜻한 구들에 앉아있을 때 찬바람 부는 한지에서 떠는 사람들을 생각할줄 알아야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은인이고 부모임을 깨달을수 있는것이다.》

천령감과 마누라는 먼저 길을 떠났다.

다음날로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지어주러 간다고 하면서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집을 팔아 돈을 쥔 그들은 부랴부랴 부모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일군들을 내여 자기들의 집과 함께 정각도 새로 짓기 시작했다.

《아니, 저런… 새 정각을 짓고있구만. 관가에서 어찌?… 임금의 어명이라도 내렸는가?》

《모르는 소리, 저게 어느 고을에 사는 사람이 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라 새로 짓는것인데 무슨 어명타령이요?》

무너진 집터자리를 반반히 밀고 영차영차 주추를 박고 기둥을 세

우며 벽체가 일어서고 서까래가 얹혀지자 지나는 길손마다 사연을 듣고는 한푼이라도 보탬을 하려고 하였다.

새로 지붕을 씌운 집에서 먼저 하루밤을 묵게 된 길손들은 뜨뜻한 구들에 앉아 밤새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떠날 때면 누구나 쌀이면 쌀, 돈이면 돈 지어 무명 한끝이라도 남겨놓으려고 애를 썼다.

드디여 훌륭한 정각도 일떠섰다. 정각주변에는 주런이 과일나무들도 심고 크고 든든한 돌들을 걸상처럼 박아놓아 길손들이 바깥에서도 편안히 땀을 들일수 있게 해놓았다. 샘물도 여러곳에 파놓았다.

정자 앞뒤에는 작은 집들도 세워 아름다운 주변경치를 부감할수 있게 하였으며 련못도 새로 파놓았다.

천령감은 아들, 며느리에게 거듭 수고를 칭찬하고나서 집으로 떠나갔다. 아들, 며느리가 새 정각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속에 싸여 매일과 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우르르 한무리의 선비들이 정각안으로 들어섰다.

길손도 아닌 선비들의 출현에 아들이 얼떠름해하는데 웬 활달한 선비 하나가 정각의 모습이며 주변에 심은 나무며 샘터와 돌의자까지 꼼꼼히 살펴보더니 방안으로 쑥 들어섰다.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서 지고온 보짐을 활 풀었다.

《자, 내 술을 받소. 정말 흔치 않은 거사요. 여기 이야기는 내 오기 전에 다 들었소. 늦어 인사를 해서 안됐소.》

구운 게사니를 뚝뚝 뜯어놓고서 연거퍼 술 석잔을 권하는 그앞에서 아들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정말 내 이런 훌륭한 이야기를 또 어디에 가서 듣겠나.》

그는 오래도록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저런 세상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듭거듭 칭찬을 련발했다.

이 선비는 고려의 이름있는 문인이였던 리규보와 절친한 사이였다.

뜻밖에 정각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친구를 통하여 듣게 된 리규보는 그 시기에 어디 가서 흔히 들을수 없는 기이한 사실에 몹시 감동되였다.

리규보는 자기의 문집에 《현종원 중창기》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썼다.

《먼길을 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루 표현할수 없다. 험난한

길을 걸으면 발바닥이 부르트고 더위에 시달리면 갈증에 목구멍이 타든다. 이런 때에 높은 곳에 올라 시원스레 숨을 돌리고 찬 샘물을 마시며 쉬면 피로가 한결 가셔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것이 인정의 옳은 리치이다.

…

고을의 백성 하나가 살림에 분주하고 생활은 그닥 넉넉치 못하나 분연히 마음을 내여 일개인의 비용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유익한 일을 하였으며 제 한몸의 수고를 잊고 만사람의 편안함을 이룩하였다. 잠시동안에 그가 세운 공로가 이러하다. 이는 누가 독촉하거나 명령한것이 아니다. 이는 실로 마음이 스스로 움직인것이며 마음속에서 일어난것이 밖으로 표현된것이다. 말하자면 두터운 인정에서 흘러나온 지극히 정성스러운것이라고 할수 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가, 몸가까이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기쁘게 해주는것만일가?!

길가에 심은 한그루 나무밑의 그늘에서 뙤약별을 피하게 될 길손들이 다름아닌 내 부모가 될수도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산천을 정히 가꾸는것은 아닌지…

나보다 남을 더 위해주는 례의로 동방에 그 찬란한 빛을 뿌린 례의지국의 풀, 나무 한그루나 한포기에조차 자기의 정을 깡그리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장 강한 힘을 키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는가?!…

남행길에 비천생을 만나다

풍부한 환상력과 설득력있는 문학적허구로 안받침될 남해상장 비천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이제 저 멀리 5천여년전으로 되돌아가보기로 하자.

동방의 해솟는 땅, 아름다운 강산에 첫 나라가 일떠섰다.

아버지 환웅으로부터 추장자리를 이어받았던 단군이 범족, 곰족을 비롯한 여러 족의 추장들과 련합하여 비옥한 벌과 푸른 수림, 큰 강이 굽이치는 넓고 아름다운 땅우에 강력한 종족련합체를 묶어세운 후 동쪽과 남쪽으로 그 령역을 넓히여 드디여 조선이라는 첫 나라를 세웠던것이다.

나라를 세운 단군이 오래도록 중시한것은 여러 족들과 끊임없이 련합하여 큰 나라를 세워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여 편하고 강성하게 살아가는것이였다.

그러한 구상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단군조선의 남쪽바다가령역 즉 오늘의 강화도를 거쳐 땅이 비옥하고 사는데 편리한 남쪽지역을 빨리 병합하는것이였다.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여러 족들의 본거지를 여러가지 등급으로 분할하여 중앙과 지방의 구분을 명백히 한 단군은 맏아들 부루를 세자로 내세운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문제에 달라붙었다.

나이도 어지간히 든 단군에게 있어서 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강력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남기는것보다 더 중한 일은 없었던것이였다.

맏아들 부루에게 정사를 맡긴 단군은 남쪽바다가지역에 내려가 남쪽의 광대한 땅을 차지할수 있는 방도도 현지에서 찾아보고 하늘에 제사도 올릴겸 하여 많은 무력을 이끌고 남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남행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가 무엇보다 경계한것은 병마였다.

알수 없는 병마로 군사들과 백성들의 귀중한 목숨들이 끊겨나갈 때마다 단군은 비통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것이다.

더우기 군사들과 그들을 병마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국가란 생각조차 할수 없음을 단군은 잘 알고있었다.

새땅은 어디를 가나 위험을 동반하는 곳이였다.

땅도 넓혀야 했고 사람들도 구원해야 하였다.

《사람이 제일 중하니라. 우리가 땅을 가꾸어 오곡을 키우며 집을 짓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주며 사람들을 교화하는것도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니라.》

단군은 질병을 맡은 부우뿐 아니라 모든 가들에게 늘 군사들을 잘 돌봐주고 병마와의 싸움을 잘할데 대해 그루를 박아가며 강조하군 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우려하던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섬을 마주한 바다기슭에 이르자 군사들이 물을 마시고 쓰러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맑은 물을 나누어주거라. 부우는 빨리 앓는 군사들을 치료하고 부소와 부여는 경계를 강화할지어다.》

여러 가들은 단군의 명령을 받들고 뜨거운것을 삼켰다.

마음을 놓을수 없는 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사실 가지고 떠난 물도 그닥 많은것은 아니였다.

늘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하는 단군의 마음을 잘 아는 그들이였으나 나라의 남쪽바다가지역에 내려와 아직도 많은 날을 보내야 하는 위험한 이 길에서 단군의 신상에 무슨 일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에서였다.

《여기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임금님께서는 부루나로 돌아가셔야 하겠나이다.》

팽우장수가 참지 못하고 한발 나서며 말을 꺼냈다.

여러 아들들이 동시에 간절히 빌었다.

《부왕마마, 어서 돌아가주시나이다.》

단군의 얼굴에 비장한 빛이 어리더니 이내 밝아졌다.

물론 마음을 놓을수 없는 땅이였다. 그렇다고 돌아설수도 없는 땅이였다.

반드시 저 바다를 건너 남쪽땅에 발을 디딜 묘안을 찾아내야만 기름진 전야가 펼쳐져있는 부족들과의 련합을 이룰수 있는것이였다.

아버지 환웅을 따라 북쪽으로는 많이 다녀보았으나 남쪽길은 거의 생소하다싶이 한 단군이였다.

이러한 단군에게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였다.

《싸우면 안되느니라. 서로 화목하게 힘을 합쳐 살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병마의 위험과 싸우지는 못할망정 서로 땅을 다투고 재물을 다투어 싸운다면 서로가 함께 멸하기마련이니라. 그러니 그들을 모두 합쳐놓고 강력한 군사와 도덕으로 서로 리해를 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여야만 사람들은 마음편히 살수 있는것이니라.》

단군은 아버지와 함께 군사를 쓰는 문제, 앞으로 여러 족들과의 련합과 화합을 이루는 문제, 그들을 다스리며 유지하는데 필요되는 재물을 받아들이고 또한 나누어주는것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도 없는것이다. …

오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여 나라를 세운 단군자신이 맏아들 부루에게 나라정사를 맡기고 세 아들과 더불어 지경을 넓히러 떠난것이였다. 빨리 남쪽땅을 평정하여야 늘어나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재부를 축적하여 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수 있는것이였다.

자기의 생각을 모르는 가들과 아들들이 어디에 있으랴만 지금껏 나라를 굳건히 하느라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온 단군에게는 결코 이번 길이 헐치 않은 길임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여러 가들의 생각은 다 같다고 보는데 내가 재삼 당부했지만 이 일은 우리 조선의 먼 래일을 보고 하는 일이니라. 그러니 다른 말들을 더 하지 말고 앓는 군사들을 대책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하겠노라.》

팽우장수가 다시 한걸음 나서며 큰소리로 말했다.

《여기 일은 저희들이 맡아 처리하겠으니 임금님께서와 왕자들께선 빨리 부루나로 입성하셔야 할줄 아옵니다.》

단군은 미소어린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 봐야 어려운 모퉁이에 자기 한몸을 내대는 팽우장수였다.

그러나 사실 그가 불같은 성격대로 좀 거친데가 있어 여러 부족들과의 외교적측면에서는 그리 적합치 않음을 단군은 잘 알고있었다.

물론 강력한 기마군사와 함께 보군을 가진 무력으로 이루지 못할것은 없었다.

순간 단군은 부루세자가 그리워졌다.

환웅을 그대로 닮은 부루는 집안의 맏아들이나 나라의 맏아들답게 덕이 있고 인정미가 넘치였으며 아는것이 많고 남을 헤아릴줄 아는 높은 외교술로 하여 여러 부족들의 존대와 찬양을 받고있는터였다.

《부왕마마, 나라의 령역을 넓히는 일이 아무리 중하기로서니 어찌 제가 부루나에 남아있고 임금님께서 몸소 전장에 나가신단 말이나이까? 가는 곳마다에서 알수 없는 병마가 머리를 쳐들고있는데다 바다를 건너야 하는 어려운 길을 어찌 제가 가지 못하게 하고 부디 가시려 하시나이까? 부왕마마께서 건강하셔야 이 나라가 평안할수 있사오니 부디 제가 그 길을 다녀오게 허락하여주시나이다.》

둥근 깃의 긴 옷을 후렁하게 차려입고 듬직하게 자기의 어깨를 다정히 짚어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부루의 모습이였다.

단군은 그가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하루빨리 대조선국을 이끄는 무거운 중임을 감당처리하도록 시간을 주고 도와주어야 하는것이 얼마나 중한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단군이였다.

그리고 이번 길에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놓고 여러 가들이 서로 자기의 중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실지 전장과 실천속에서 가르쳐주어야 했다.

《기마군사들은 어느때나 움직일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빨리 바다기슭을 벗어나 저기 산들에 전개하여 앓는 군사들을 돌보는 부우네들을 지켜주도록 하여야겠느니라. 이백기씩 무리를 짓도록 하라.》

단군은 무릎을 치는 옷자락을 날리며 언덕우에 올라섰다.

들쑹날쑹한 산발들이 무연한 들의 가녁으로 보이는데 푸른 바다

한가운데 우뚝한 큰 섬이 푸르딩딩하게 안겨왔다.

기어이 넘어서야 할 땅이였다.

그것을 넘어야 남쪽땅을 평정하여 나라의 지경을 넓힐수 있는것이였다.

(그래, 이 고비를 넘어서자.)

빙 둘러 시내쪽을 바라보니 어쩐지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곳에 하늘나라 신선초를 가꾸며 사는 부족들이 있다고 일러주던 이야기가 부드럽게 울려왔다.

(참, 그 일은 부소가 잘 알겠구나.)

언젠가 맏아들 부루가 몹시 앓은적이 있었다.

미음조차 들지 않고 도리머리를 젓는 그를 보는 단군의 마음은 철렁하였다.

부루는 조선국의 대를 이어야 할 세자가 아닌가?!

부우뿐 아니라 모든 가들이 뛰고 지어 다른 추장국들에서도 위문과 약방문들을 보내왔으나 병은 수그러들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형의 병으로 너무 상심하여선지 부소는 꿈에 할머니를 보았다.

말이 없고 듬직하면서도 인정미깊은 부소를 제일 사랑하였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며칠길 잘되는 곳에 가느라면 숲이 무성한 큰 산들을 볼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신선초라고 하는 약초들을 숲에서 키운다고 했다. 그 약초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더라. 그들은 그것을 누가 알세라 몰래 키운다고 하니 네가 내려가 사정해보아라. 그들의 지경앞에 선녀의 집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해주었다고 하면 잘 도와줄것이니 빨리 내려가보도록 하거라.》

부소는 팽우장수, 치우장수와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말을 달렸다.

그때 가져온 신선초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가.

꼭 아이처럼 생긴 시누런 신선초의 그 뿌리는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놀라움은 그 약효였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으며 여위여가던 부루가 신선초를 달여먹인지 삼일만에 벌써 입맛이 돌아 밥을 먹더니 한주일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스무하루만에는 완전히 자리를 차고 일어났던것이였다.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과시 신선초로다.》

단군은 너무도 신기하여 부소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 부족의 령지를 봤는가, 그들이 또 무슨 일들을 하고있는가 등등…

생각에 잠겨있는 단군에게 《부왕마마, 어찌 이런 바람찬 곳에 나와계시나이까?》 하며 부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냐, 됐다. 마침 잘 왔노라. 부우야, 언젠가 부소가 신선초를 가져온 일이 생각나느냐?》

부우의 사려깊은 얼굴에서 눈빛이 번쩍했다.

세자 부루형의 깊은 병을 스무하루만에 완쾌시킨 신선초를 왜 모르랴. 그것을 달여먹여 삼일만에 미음도 못넘기던 부루형이 밥을 먹었고 한주일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으며 스무하루만에 튼튼한 모습으로 조정으로 들어와 모든 가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그때 부우는 부소형의 이런저런 처방을 들으며 약을 달여 직접 부루를 간호했었다.

매사에 침착하고 성미가 대쪽같은 부소마저 너무 기뻐 부루의 손을 잡고 겅중겅중 뛰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그때 그것을 가져온 부족들의 령지가 부소달너머 어디엔가 있으려니 부소와 함께 찾아 도움을 청해보아라.》

부우는 경건한 눈길로 아버지 단군을 우러렀다.

매일 매 순간 느끼는것이지만 이 땅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는 성인과 같은 단군의 생각과 지략은 인자하면서도 빈틈없는것이였다.

《아무래도 누런 나무껍질을 벗겨 군사들에게 달여먹여야 하겠기에 주변의 숲에 들어가보려고 아뢰고저 왔었던것인데 부왕마마께서 그때 일을 상기시켜주시니 생각되는바가 크오이다. 이길로 부소형님을 찾아가보겠소이다.》

《부여도 데리고 떠나도록 하여라.》

단군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자 부우는 자기들 세 아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배워주려고 애쓰는 깊은 사려에 뜨거움을 금치 못했다.

부소와 부우, 부여는 군사들을 풀어 누런 나무껍질을 찾으러 다녀올 준비를 갖추었다.

《껍질을 찾았나이다.》

부소달을 끼고도는 큰 개울을 따라 한참 말을 달려 수림에 먼저 들어왔던 군사들이 환성을 지르는 소리였다.

그때였다.

울창한 수림을 빙 도는 산기슭에서 붉은 띠를 두른 웬 알지 못할 사람들이 피뜩 보였다가 사라졌다.

불안감을 느낀 부소가 침착하게 그곳을 주시했다.

어느새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팽우장수가 자루가 긴 창을 들고 다가왔다.

그뒤로 이백여기의 기마군사가 따랐다.

아니나다를가 조금후 숲이 와슬랑거리더니 붉은 띠를 두른 군사들이 짧은 활과 창들을 꼬나들고서 와ー 하며 짓쳐내려오는것이였다.

《물러서라ー》

부소와 부우가 동시에 소리쳤다.

수림에 붙었던 군사들이 일시에 물러서고 기마군사들이 빙 둘러 방어진을 치며 부소와 부우앞에 장벽을 쌓았다.

팽우가 눈을 흡떴다.

《살들을 날려라ー》 하는 그의 웨침소리가 터지려는 순간 부소가 한손을 높이 들어 제지시켰다.

군사들이 일시에 말을 박차며 내달렸다.

《사람은 맞히지 말고 그앞에 살을 날려 경고하도록 하여라.》

팽우가 홱ー 손을 들었다내렸다.

핑핑ー 무수한 화살들이 하늘을 가리우며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그들앞에 푹푹 내려꽂히였다.

놀란 그 군사들이 일시에 자리에 멈춰섰다.

그들은 화살들을 메운채로 그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더니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몸집

이 우람찬 한 장수가 백마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청동투구가 번쩍거리고 긴 창끝에 매달린 붉은 술이 흩날렸다.

부소가 백마를 타고 천천히 마주나갔다.

백마우에 우뚝한 부소의 갑옷에서는 무서운 위엄과 존엄이 내뿜어졌다.

젊은 장수는 팽팽하게 긴장된 속으로 거침없이 부소를 향해 백마를 몰아왔다.

서로 얼굴이 마주 보이는 거리에 이르자 백마들이 멈춰섰다.

부소는 놀랐다.

청동투구를 쓴 우람찬 몸집의 장수가 너무도 애된 얼굴이였기때문이였다.

목소리 또한 챙챙한것이 스물도 차지 않음이 력력히 알렸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감히 우리 령지를 침입하는거요? 여기는 우리 어머니의 령지라 빨리 군사들을 거두어 물러가기 바라오.》

챙챙하면서도 애된 목소리에 놀라와하면서도 나이에 비해 구리로 부은듯싶은 단단한 그의 몸을 눈여겨보던 부소가 덕이 어린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리는 조선국의 군사들이요. 우리 임금님께서 친히 남쪽의 여러 부족장들과 련합을 이루시려고 여기로 내려오시다가 바다를 건느려는데 불결한 물을 마신 군사들이 배앓이를 만나 고생하므로 누런 나무껍질을 벗기려고 하는수없이 여기로 들어선것이니 그대들은 달리 생각을 말고 리해해주기 바라오.》

젊은 장수는 아무말없이 부소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일순 팽팽한 순간이 흘렀다.

참을수 없는 고통을 느낀 팽우장수가 방패같은 가슴을 내밀며 한발자국 말을 앞세우고 말했다.

《우리는 군사들부터 살려야겠다. 그러니 막아설 생각말아.》

순간 휙─ 하고 공기를 째는 소리가 들려왔다.

팽우장수가 흠칫하는데 부소가 어느새 날래게 창을 들어 내리쳤다.

부소의 청동창에 동강난것은 예리한 짧은 참대창이였다.

욱─ 하고 두 진영에서 동시에 군사들이 활을 겨누어들었다.

팽우가 창을 비껴잡으려는데 부소가 꽉 잡아눌렀다.

《가만, 장수는 듣소. 당신들의 령지를 범한것은 잘못됐소. 그러나 저기서 군사들이 죽어가고있는데 어찌 생명을 놓고 서로 외면하며 힘내기를 하겠는가? 군사들의 생명이상 더 중한것은 없으니 장수는 앞뒤를 잘 타산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를 바라오.》

부소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바라보던 젊은 장수가 휙 말고삐를 잡아돌리더니 자기의 진영으로 사라졌다.

이어 붉은 띠를 두른 군사들이 일제히 숲으로 사라졌다.

《아니, 저놈들을 그저…》

팽우가 씩씩거리였다.

그를 밀막으며 부소가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군사들은 나무껍질을 벗기라.》

이 모든것들을 지켜보던 부우가 군사들에게 호령했다.

《다그치라. 벗긴 껍질들은 먼저 말에 실어보내도록 하여라.》

군사들이 일손을 다그쳤다.

기마군사들은 산기슭을 빙 돌아 그들을 엄호했다.

이윽고 군마들이 떼를 지어 떠나고 군사들이 뒤로 물러섰다.

단군의 진영에서는 나무껍질을 말리우고 달이느라 여기저기서 불무지들이 솟아올랐고 솥마다 쌀쌀 물이 끓었다.

단군은 바위우에 걸터앉아 미소를 짓고 부소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그 애젊은 장수가 창다루기가 귀신같단 말이지. 그럼 어째 제압하여 데려오지 못했느냐?》

무엇인가 깊은 생각이 담긴 단군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부소가 부리부리한 눈을 끔쩍도 않고 대답했다.

《어찌나 날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마치 발에 날개라도 달린것같았나이다. 부왕마마, 제가 보건대 언젠가 부루형님에게 신선초를 보내준 그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나이다. 이미전에 우리와 인연이 있는가본데 그를 설복하지 못하여 죄송하나이다.》

단군의 생각도 깊어졌다.

단군은 남쪽지역을 평정하는데서 여기 큰 산줄기들이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 요충지를 차지하고있는 부족들과의 련합이 아주 중요

한 의의를 가지는데 대해 부소에게 말해주면서 팽우장수를 만류하여 싸움을 막은것은 아주 잘한 문제라고 그루를 박았다.

《주먹이란 피할수 없는 싸움에서도 억제력으로만 써야 옳으니라.》

밤은 깊어갔으나 단군은 잠들수가 없었다.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도 일으켰으나 사방 가는 곳마다에서 각종 토질병들의 위협은 심각하였다.

병마와의 싸움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존망을 놓고 생각해야 할 심중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모든 가들과 장수들이 늘 이것을 새기고 부우와 합세하여 군사들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나무와 풀 등 약초가 될만한 뿌리나 잎들을 수집하여 보내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군은 여러 가들과 세 아들을 불렀다.

자기가 생각한 문제들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

《사람들을 주림뿐 아니라 병마로부터도 반드시 구원해야 하느니라.》

밤은 깊어갔으나 불무지의 화광은 새벽까지 충천했다.

부우는 부여와 함께 말을 타고 천막들을 돌아보면서 앓는 군사들을 돌봐주었다.

밤새 앓음소리를 치던 군사들이 새벽녘에 좀 나았는지 혼곤히 잠들었다.

그들은 해가 한발이나 떠오른 눈부신 대낮이 되여서야 깨여났다.

군사들이 주섬주섬 자리들을 거두고 일어설 때였다.

멀리서 북소리, 징소리가 울려왔다.

부소는 기마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소리를 맞받아나갔다.

그뒤로 군사들을 집결시키는 뿔나팔소리가 부웅ㅡ 울리였다.

단군은 언덕우에 올라 북소리, 징소리가 울리는쪽을 손채양하여 바라보았다.

이윽고 울긋불긋한 기발들과 창검들을 번쩍이며 웬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오는데 그 한가운데 웅장하고 화려한 수레가 보였다.

군사들이 일시에 창검을 치켜든 속으로 부소가 백마를 달리여나갔다.

청동투구를 쓰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부소가 백마를 달려 기마군사들의 앞에 이르자 군사들이 멈춰섰다.
부소의 뒤로 팽우와 여러 가들이 늘어섰다.
앞의 화려한 행렬속에서 한 장수가 백마를 달려 앞으로 나오는것이 보였다.
번쩍거리는 청동투구와 붉은 술이 가득한 창을 보고 부소는 여기 부족의 애젊은 장수임을 알아차렸다.
거침없이 부소의 백마앞에 이른 애젊은 장수가 두손을 모아 례의를 차리였다.
부소 역시 답례를 했다.
《저의 어머님께서 임금님을 뵈오러 나오셨나이다.》
부소가 대답했다.
《나는 조선국의 왕자인 부소요.》
그러자 애젊은 장수는 말에서 뛰여내려 한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다.
《저의 어머님을 대신하여 왕자님께 인사올리나이다.》
부소 역시 말에서 내려 그를 안아일으켰다.
애젊은 장수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 어리였다.
《부소왕자님을 몰라봐서 죄송하나이다.》
부소는 단단하고 거쿨진 몸에 그를 꽉 껴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젊은 장수…》
《잠간만 기다려주시오이다.》
젊은 장수는 패쪽갑옷을 절컥거리며 말을 타고 행렬의 중간에 있는 화려한 수레에로 달려갔다.
이어 행렬이 좌우로 쫙 갈라지더니 그가운데로 네마리의 백마들이 끄는 화려한 수레가 다가오고 붉은 문발을 들고 녀신과도 같은 차림을 한 아름다운 녀인이 내렸다.
젊은 장수의 어머니인 부족장이였다.
부소가 녀인에게 깍듯이 례의를 차렸다.
녀인은 근심에 싸인 얼굴로 물었다.
《대왕님께서 여기로 왕림하셨다가 병을 얻으셨다고 하니 너무도 놀랍고 걱정되여 이렇게 신선초를 가지고 왔나이다. 받아주시기 바라

나이다.》

부소의 억센 가슴에서 심장이 쿵쿵 높뛰였다.

매 부족장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단군에 대한 그들의 숭배심은 저도 모르게 감동에 젖게 하는것이였다.

(아, 부왕마마는 그 어디에서나 신성한것이구나.)

부소는 정중히 답례를 하였다.

《잠시 계시기 바라나이다. 제가 부왕마마를 모시고 오겠나이다.》

부소가 돌아서고있을 때 멀리 언덕우에서 이것을 띄여보고있던 단군이 례의를 차리여 이미 떠난 뒤였다.

다섯필의 백마가 끄는 번쩍번쩍한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단군의 크고 인자한 눈에 크나큰 기쁨이 가득 어리였다.

《대왕마마께 인사올리나이다.》

부족장이 두손을 모아잡고 허리를 굽혀 나부시 절을 하였다.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고맙소이다.》

단군이 긴 수염을 날리며 환한 미소를 짓고 답례했다.

미모의 녀족장은 실로 신과도 같이 아름답고 황홀하였다.

그는 눈길을 들어 단군을 바라보았다.

영채도는 눈빛, 위풍있는 몸가짐, 인정미 흐르는 얼굴에 어리는 미소…

《아, 어쩌면…》

녀족장이 뒤수레에 대고 한손을 살며시 들었다내리자 네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붉은 천으로 싼 화려하게 장식된 큰 통을 조심히 들고와 뚜껑을 열어제꼈다.

《아…》

가벼운 탄성이 일었다.

함안에는 신통히도 벗은 몸의 아이처럼 누렇고 멋지게 생긴 신선초뿌리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놓여있었다.

단군의 얼굴에 기쁨이 확 어리였다.

부소와 부우, 부여, 팽우 등 여러 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부루세자를 사경에서 일으켜세운 그 귀중한 신선초뿌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있는것을 보니 단군을 생각하는 녀족장의 성의가 미쳐와 가슴이 무득했던것이다.

단군은 거듭 사례의 인사를 표하고 그를 방금 마련해놓은 자리로 안내하였다.

상우에는 여러가지 과일들과 음식들이 오르고 맑은 샘물들이 큰 잔들에 찰랑찰랑 부어졌다.

《이건 우리 부루나의 샘물이니 마음놓고 드시오이다.》

단군이 맑은 샘물을 부은 잔을 권하자 감사의 빛이 가득 어린 얼굴로 일어났던 녀족장은 처녀들이 가져온 가죽으로 덮개를 씌운 큰 나무물병을 받아 손수 큰 잔에 기울여 쏟았다.

《이것은 사슴의 젖으로 만든것이오이다.》

이어 단군은 녀족장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변의 부족들과 련합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서로 싸움이 없이 화목하게 잘사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다는 단군의 설득력있는 말은 이미 단군의 웅지에 대해 들은적이 있던 녀족장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단군은 이어 뜻밖에 병을 만난 군사들로 하여 여기 부족들의 지경을 범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례하였고 이렇게 귀한 약재를 가져다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감사의 뜻을 알리였다.

단군의 열정적이면서도 사려깊은 이야기들에 감동된 녀족장이 조용히 일어서서 다시 인사를 한 다음 문득 엄숙한 표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저와 저의 아들은 이미 결심하였나이다. 여기로 떠날 때 이미 제가 결심을 내릴수 있도록 우리 족내 여러 어른들과도 미리 약조도 하였으니 저는 저의 령지와 저의 아들을 대왕마마께 바치겠다는것을 알리는바이나이다.》

가슴이 막 뜨거워난 단군은 녀족장의 단호하고도 열렬한 진정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족장님의 그 높으신 뜻은 우리 조선국에 가져다준 또 하나의 행운으로 되는것이나이다.》

녀족장의 제의를 정중히 받아안은 단군은 여러 가들과 세 왕자들에게 모두 인사를 하게 하였다.

서로 뜨거운 인사들이 오가는 속에 그 애젊은 장수가 달려와 단군앞에 넙죽 엎드려 세번 절을 하였다.

단군은 기뻤다.

새파랗게 젊었으나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억세고 든든한 풍채의 그를 보는 순간 이번 걸음이 매우 잘된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행길의 이러저러한 근심이 확 풀려나감을 느끼였다.

남쪽지경을 튼튼히 지키고 바다건너 족장들과의 순조로운 련합을 이룰수 있는 강력한 지반을 닦았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훈훈해왔다.

단군은 그를 안아일으켜세웠다.

《어디 보자, 우리 젊은 장수! 조선국의 요란한 팽우장수도 가림없이 창을 날렸다면서… 하하하! 하하하!》

애젊은 장수의 얼굴이 붉어지고 녀족장이 회심의 표정을 짓는것을 둘러보며 단군은 기쁘게 웃음을 터뜨리였다.

팽우와 부소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하늘이 우리 조선국에 보내준 행운이니라. 그러니 내 이 자리에서 너에게 성과 이름을 주겠노라.》

모두가 긴장하여 단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녀족장의 마음속에서 뜨거운것이 샘솟았다.

자기의 아들을 왕자들과 꼭같이 대해주는 단군의 높은 인정에 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여기 붉은 비단을 입는 녀족장의 아들이라는것을 따서 성은 <비>로, 이름은 하늘이 내려보내주었다는 의미에서 <천생>이라고 하노라. 그리고 비천생을 나라의 남쪽지방을 돌보는 대장수로 봉하노라.》

비천생은 감격하여 단군의 발밑에 일곱번 감사의 절을 올렸다.

녀족장은 너무도 큰 행운에 어쩔줄 몰라 단군의 너그럽고도 위엄찬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단군은 비천생이 벗어놓았던 투구를 녀족장의 손에서 받아 친히 그의 머리에 정히 씌워주었다.

단군은 기쁨에 넘쳐 두리를 둘러보며 다시한번 큰소리로 웨쳤다.

《비천생을 얻은것은 실로 우리 조선국의 큰 행운이니라.》

여러 가들과 왕자들이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기마군사들이 일제히 말발굽을 들었다놓으며 축하하였고 군사들은 일제히 창대들을 두드리고 칼들을 부딪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환호를 올렸다.

단군은 녀족장에게 당부하였다.

《이 신선초는 이미 우리 태자의 생명을 구원해준 보배롭고 신비한 약초이니 어떻게 하나 잘 가꾸어야겠소. 지금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줄 아오.》

군사들과 백성들의 생명이 곧 나라의 근본으로 된다는 단군의 말에 녀족장은 더욱 감동되였다. 부소도 감동되였다.

하지만 단군의 뜻은 거기에만 머무른것이 아니였다.

조선국의 태자를 구원한 신선초의 힘이 이제 여러 부족들과의 련합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생각이 벅차게 갈마들었던것이다.

(사람이 건강해야 정신이 쩡하듯이 이제 저 신선초가 조선국의 건강뿐 아니라 안녕의 초석이 될지 어찌 알랴.)

부소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뜻을 존중해주며 잘 설복하여 련합을 이루고 화합해야 한다고 이르던 단군의 높은 뜻이 저 신선초에 하늘의 뜻으로 새겨지고있음을 그는 지금 폐부깊이 절감하고있었다.

녀족장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한껏 어리였다.

《대왕님의 령을 삼가 받들겠나이다.》

녀족장은 련합을 이루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군의 사려깊은 이야기에 연신 감사의 뜻을 표하고나서 돌아갔다.

드디여 며칠후 단군은 전군에 남행을 명령하였다.

기치창검을 위시한 기마군사들의 대군이 땅을 구르며 진군하였다.

단군은 세 왕자들과 여러 가들, 장군들, 비천생까지 이끌고 섬의 제일 높은 산에 올랐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단이 쌓아지고 태양신의 축복을 비는 제가 열리였다.

흰 송아지며 오곡이며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진 제상앞에서 그들은 강토를 넓히며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결심들을 다짐하였다.

부소와 부우, 부여 세 왕자들은 군사들과 더불어 직접 돌을 날라다가 단군을 위한 성을 쌓았다.

단군은 그 성에서 며칠동안 묵으면서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가는데서 있을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폭넓은 구상을 무르익혀나갔다.

사신들이 떠나갔다.

이윽고 단군의 용맹한 기마군사들이 부소의 지휘하에 남으로 진군하였다.

비천생은 자기의 군사들과 더불어 나라의 남쪽지역을 철통같이 지키며 단군의 위업을 충실하게 받들어나갔다.

조선의 지경은 날을 따라 넓어졌고 단군조선은 강대한 자기의 힘을 시위하면서 동방 멀리까지 거대한 광야를 차지해갔다.

동방의 첫 나라 강대한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비천생과 더불어 여기 송악산기슭의 송도땅에도 깃들어 후손들의 가슴들을 반만년력사국의 민족된 긍지로 뜨겁게 해주고있다.

《조선력사인명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여있다.

《비천생, 고조선(전조선)시기의 지방관료. 고조선 건국초기 나라의 남쪽바다가지역을 맡은 관리였다. 전설에 의하면 단군이 나라를 순행하면서 갑비고차(강화도)에 갔다가 오는 길에 바다가에 이르니 붉은 룡이 상서로움을 보이고 녀신이 함을 올렸다. 함안에서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아이가 나와 단군에게 절하였는데 단군은 그를 어여삐여겨 그 자리에서 붉은 비단옷이라는 뜻으로 <비>라는 성을 주고 하늘이 낳았다고 하여 <천생>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를 남해상장(남해의 웃어른이라는 뜻)으로 삼았다고 한다.》

송 도 설 화

저 자 홍 순 모, 변 희 철
편 집 성 문 호 편 성 리 용 수
장 정 채 대 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7월 25일
발 행 주체112(2023)년 7월 28일

ㄱ—1607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3, DPR Korea

ISBN 978—9946—31—184—5

ISBN 978-9946-31-184-5

9 789946 311845